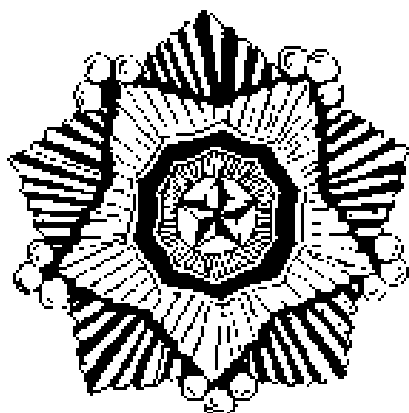




1

주체91(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1(2002)년 제1호

(루계 제 651 호)

◇◇◇◇◇◇◇◇◇◇ 차 례 ◇◇◇◇◇◇◇◇◇◇

축복의 흰눈	4
비범한 예지, 탁월한 예술적천품의 정화	5
힘차게 나뭇기라 총대우의 붉은기여!	8
명언해설	9
새해가 오고 다시 또 와도	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	10
달리는 조국에 부치는 시	11
소설문학의 10년을 더듬어	12
장군님의 총대-우리 식 평론	14
붉은기를 높이들고 시대를 선도해 온 시문학의 10년	16
설날아침에	19
새날의 붉은기	21
빈말은 없다	22
노래의 여운에 대한 생각	46

운명	48
마음의 기둥	49
내 고향도시	50
평론창작경기 조직요강	53
따뜻한 꿈	54
붉은 백두산	64
《새해를 축하합니다!》	65
더 잘, 더 많이...	65
새해와 나의 자세	66
선군문학건설의 전초선에서	66
단거리선수의 속도로 달리겠다	67
평론다운 평론을	67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68
그들의 모습이 깨우쳐 준것	70
아버지의 뒤를 이어	72
악마	73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클니까.....	78
중국의 《모순문학상》과 주체 89(2000)년 모순상 당선작품.....	79
고전소설 《상변군사》에 대하여.....	80

축복의 흰눈

김형준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다려 맞는 설날의 흰 눈

아이들은
눈에 묻혀 덩굴으니
덩굴수록 커가는 행복동이 되고

어른들은
그 행복에 겨워
먹은 나이 또 한살 덜어 지고

종기야 처녀들
설밤엔 설눈이 구색이라
은근히 기다려 온 설날의 흰 눈

밖에 세상
아무리 소란해도
우리 세상은 참말로 끄떡 없어

꽃잎마냥
내리는 흰 눈을 보니
가슴 가득 쌓여 지는 장군님생각

우리 장군님
찬 눈 맞으시며 탄생하시어
그 눈 꽃잎으로 만드신 한평생

바람 섞인 맵고 찬 눈은
자신께서 한몸으로 다 맞으시고

그 흰 눈

초연에 났을세라
총대로 지켜 밤낮을 잊으시니

꽃잎이다
자옥자옥 밟고 가라
이 땅우에 뿌려 주신 축복의 설눈은

햇숨이다
사랑으로 누벼 주신 세월을
만대의 연분으로 맺어 준 설눈은

바라보면 꽃잎
안아 보면 햇숨
안기면 끝 없는 요람속세계

그 흰 눈
우리 장군님 사랑이어서
삼가 두손 펼쳐 받아 드니

무거워라
내리는 눈처럼
한량없이 내려 주시는 장군님사랑

어려 와라
장군님 헤쳐 가신
시련 많던 천만리의 눈길!

아이들아
마음껏 덩굴어라
지구가 무겁도록 우리의 세계를 빚자

처녀들아
한껏 고와 저라
너희들께 반해 세상사람들 따르게

로인들이여
백발은 서럽지 않거늘
그것은 한겨울에 만발한 행복의 배꽃!

스르르-
가슴에 스며 들어
영원한 넋이 되고 뜨거운 피가 된

아!
장군님 주신 축복의 흰 눈
인민이 받아 안은 사랑의 설눈

비범한 예지, 탁월한 예술적천품의 정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로작 《

》 발표 10돐을 맞으며-

문학은 인간지성의 최고의 산물이다.

인간이 사회의 모든것을 창조한다면 바로 그 인간세계를 그리는것이 문학이다. 그 인간세계에는 천태만상의 다양한 생활이 다 펼쳐 지고 사상정서와 내부적체험의 미묘한 심리까지 다 투영된다.

사회와 자연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학》이라고 불은 부분들에는 원리와 법칙들이 정립된 교과서와 교범들이 있다. 문학예술분야를 놓고 보아도 부문에 따라 교칙본과 기법이 있고 법칙이 작용한다. 따라서 문학에서도 그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학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인간지성이 사회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놓는다면 문학은 바로 그 인간을 그려야 하기때문이다.

현대문명의 발전이 도달한 최첨단과학기술의 도움에 의해서도 결코 인간두뇌의 무한대한 사색과 탐구의 세계를 축성할수 없으며 생활현실에 신비하게 작용하는 심장의 울림의 세기와 강도를 알수없다.

그러면 인간학을 창조하는 원리는 인류가 영원한 미지의 문제로 남겨 놓으며 대를 물려야 하겠는가. 문학도 사람이 창조하는것이거늘 왜 아직도 미지의 권리로 간주하면서 2,500여년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파연 문학창작의 참다운 길을 안내해 주는 리정표는 영원히 찾을수 없을가. 파연 인간지성의 모든것을 다 체현한 위인, 지성인의 대표자인 작가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그러한 위인을 인류는 어느 세기에 가서 맞이할수 있을가.

이런 숙제와 념원을 안고 인류문학예술은 수천년 흘러 왔다.

마침내 20세기에 이르러 여기 동방의 조선에서 문학예술의 위대한 향도성을 맞이했으니 인류문학예술은 가장 옳바른 향로를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거성으로 세기의 창공높이 솟아 오르시여 주체문학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 주신것이다.

마침내 주체81(1992)년 1월 20일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학론》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화리론은 오늘 인류의 리상인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리론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주체문학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탁월한 예술적천품이 낳은 최고지성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뛰어 난 예술적천품은 비범한 문예사상리론활동을 벌릴수 있는 근본바탕이다. 특출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지 않고서는 그 어떤 위인도 탁월한 문예사상리론을 내놓을수 없다. 더우기 문학형상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문학창작의 신비한 생리를 밝혀 주는 사상리론을 내놓는다는 것은 특출한 예술적천품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지성이 오를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가장 숭고한 예술적천품을 지니고 계시기때문에 문학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여 주체문학을 가장 높은 형상세계에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학론》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가 빛발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비껴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는 문학창작의 생리과정에서 남들이 감촉하지 못하는 자그마한 요소까지도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그 본질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며 개별적인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열, 백, 천, 만을 헤아리시며 전반적인 원리를 간파하시는 천재적예지이며 인류가 리상으로 그리는 자주시대문학의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신 선견지명의 예지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비장한 탐구심의 빛나는 결실이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새로운 진리를 찾는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오직 정력적인 탐구심을 가져야만 리론의 절정에 도달할수 있을뿐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상한 탐구심으로 하여 주체적문예사상의 대가로, 주체문학창작과 건설의 거장으로 되시였으며 문학의 새로운 원리들을

찾으시었다.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탐구심은 일찌기 학창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간직되어 있는 천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체득할때까지 계속 파고 드는 깊은 탐구심,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꿰뚫기 위한 폭 넓은 탐구심, 진리를 찾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시며 연구하시는 가장 정열적인 탐구심 등 그이의 숭고한 천품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비상한 탐구심의 기초에는 창조적인 사색이 동반된다. 사색이 없이는 사회현상에 대한 옳은 견해가 설수 없으며 사상리론이 나올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문화론》**에서 밝히신 사상리론은 그 어느 하나도 장군님의 고심어린 사색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것을 문학현실로부터 출발하시고 문학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고 인류문학의 발전과정과 방대한 문학작품들을 연구하시며 그에 기초하여 형상창조에 필요한 원리와 방도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의 형상을 놓고서도 창작생리의 견지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결론을 내리시고 논리적귀결점을 찾으시며 새로운 형상묘리를 찾아 내고 그것을 무르익히시는 진지한 사색을 하신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예지, 비상한 탐구심, 창조적인 사색은 인류문예사에 전무후무한 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화론》**을 창작교본으로 탄생시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창시된 독창적인 주체적문예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사상리론은 오직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서만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고전적로작에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가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고전적로작의 차례만 보아도 비범한 예지의 변특임, 비상한 탐구와 창조적사색의 고귀한 열매라는것이 직감되며 동서고금 그 어느 문예리론저서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독창성과 참신성, 백과전서적인 의미가 일목요연하게 안겨온다.

불후의 문학대강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시는 사상리론활동의 특성이 응축되어 있다.

고전적로작은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의 철저한 계승성과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어 있다. 로작의 심원한 세계에 젖어 들면 들수록 선대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후대수령의 계승성과 충실성을 절감하게 된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최상의 높이에 놓고 모든 사상리론이 전개되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사상을 주체적문예사상, 주체적문예리론, 주체적문예활동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상리론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문예관에 대한 리론도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사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풀어 나가고 있으며 창작에서 주인은 작가이며 창작의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요인도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찾는 견해와 관점에서 정립하고있으며 문학의 본성과 사명, 창작방법을 규정함에있어서도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로작은 특히 주체사실주의를 우리 시대의 가장 우월한 새로운 창작방법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인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을 창시하신 불멸의 업적에서부터 출발하여 계승성의 견지에서 리론을 전개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철저한 계승성으로 하여 주체문학건설위업에 영원한 투쟁의 지침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활동으로 빛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주는 독창성과 시대성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자주시대 새형의 문학인 주체문학을 창조하는 길은 그 누구도 걸어 보지 못한 생소할 길이며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새형의 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하는데서 새롭게 나서는 미학적문제들과 창작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지 않고서는 주체문학건설위업이 전진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리론활동은 독창성과 시대성으로 하여 바로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그 생리과정을 조건 짓고 기초 지어 주는 근본원리를 똑바로 밝히는것이다. 더우기 생활의

재현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문학창작의 특수한 과정은 그것을 옳게 해명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뉜다.

인류문학의 장구한 흐름과정에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문학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관념이 굳어 진 조건에서 문학에서 핵을 이루는 범주에 대한 옳바른 해명이 앞서야 주제, 사상, 인물성격과 같은 개별적요소의 개념을 옳바로 해명할수 있다.

인류문예사는 수많은 문학원론들과 개론, 창작론들을 내놓았지만 문학의 본질적요소를 밝혀 내지 못하였다. 오랜 력사속에 묻혀 있던 이 비밀을 밝혀 내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비범하고 천재적인 문예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한 리론을 내놓으시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력사적인 전성기를 이룩하신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고전적로작에서 작품의 종자리론을 완벽하게 정립하시였다.

이것은 문학예술창작의 신비한 비결을 독창적으로 밝힌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고전적로작에서 20세기 후반기에 제국주의반동문학의 어지러운 탁류가 인류의 지성을 여지없이 더럽히고 이에 편승한 혁명의 배신자들이 사회주의문학을 말살하고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을 부활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문학의 담당자이며 주인인 작가들을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실천적방도들을 비롯하여 시대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현실적인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는 문학창작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밝혀주는 다방면적이고 심오한 문예사상리론이 전일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로작에는 시대와 문예관으로부터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예전통문제, 주체사실주의의 본질과 그 특성문제 등 주체문학의 원론들이 심오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체문제와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으로서의 수령형상창조문제 등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전적리론들이 정립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대한 리론,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으로서의 수령형상창조리론을 심오하게 해명하고 수령형상작품에 고유한 생리가 있다는것을 완벽하게 밝혀 주심으

로써 주체문학의 기본의 기본이 무엇이고 우리 문학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주선으로 틀어 쥐고나가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불멸의 리정표를 확고히 세워 주시였다. 그리고 수령의 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총적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였다.

고전적로작에는 문학창작의 형상원리들과 형상방법,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문학의 다양한 형태 등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의 창작실천적문제가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어 해명되고 있다. 또한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구현하며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문학의 대중화실현문제, 작가들의 정치사상적 및 창작적자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다 해명되어 있다.

리론은 리론이 정연하여야 사람들에게 잘 파악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논리성 있게 밝히심으로써 그 리론이 비상한 설득력을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그 어느 원리나 방도들도 다 주장이 명백하고 론거가 당당하며 사리가 정연하다. 로작의 그 어느 부분을 보아도 체계가 명백하고 리론이 짜여있으며 원리로부터 구현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다. 하기에 누구든지 그 심원한 사상과 철의 리론에 매혹되어 곧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 들이는것이다.

참으로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학론》**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성인 충실성과 계승성, 독창성과 시대성, 다방면성과 심오성이 투철히 구현된것으로 하여 자주시대 문학건설위업의 불멸의 대강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종합체계화하고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문예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문학의 형상대상과 복무대상을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학술적견지에서가 아니라 창작실천적인 견지에서 밝히심으로써 자주시대의 지향과 미학적리상에 맞는 문학의 원전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새 세기에 선군혁명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휘황한 진로를 따라 더욱 힘 있게 전진하여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과시해 나갈것이다.

최길상

힘차게 나뭇기라 총대우의 붉은기여!

올라지미르 표도로비치 베료진

사람들이여
눈길을 들어 창공을 보시라
그러면 보게 되리
온 지구를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휘날리는 조선의 붉은기를

그 거세찬 퍼덕임
인류를 고무하나니
우리의 마음 틀어 잡는 저 붉은기
그것은
총대에서 나뭇기는
주체의 붉은기여라

내 눈물겹도록 바라보며
돌이켜 보노라
희망과 기쁨
시련과 고통
전진과 승리 그 모든것
다 안고 흘러 온 붉은기력사를
붉은기 있어 혁명이 승리하고
력사가 전진하나니
자유를 갈망하는 인류
붉은기 없인 살수 없으리

그래서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적기가》 높이 부르며
조선의 항일투사들
돌격전의 병사들
손에서 손으로 붉은기 넘겨 주며
심장으로 웨치지 않았더냐

그렇다
붉은기는 혁명선렬들의 피로 물든 기치
그 기치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그 진리 목숨으로 간직했기에
조선의 선렬들 지켜 낸 붉은기
그처럼 빛나는것 아니냐

붉은기
너는 정의를 안고 싸운
선렬들의 넋
하건만 어이 알았으랴

내 조국에서 것처럼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붉은기
맥없이 내리워 질줄을...

아-
어이하여 우리
붉은기 지키지 못했던가
붉은기
너는 휘날려야 하는것
너는 사수되어야 하는것
허나
총대 없인 너를 지키지 못하리

우리 피눈물 삼키며 체득한 진리
총대 없는 붉은기
이는
수령이 없는 당
당이 없는 대중과 같은것
총대에도 사상이 있나니
그 총대없이
붉은기 어이 지키라

세계의 싸우는 투사들이여
전진하는 인민이여
눈여겨 보시라
주체의 붉은기 받든 저 기대
그것은 혁명의 총대
그 총대에 받들렸기에
주체의 붉은기
그처럼 힘차게 나뭇기는것이여라

아-
시대의 위인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그이는
총대로 주체의 붉은기 추켜 들고
시대의 기수
사회주의의 수호자

그이께서 우리 뒀까지 스며 있는
붉은기 높이 추켜 드셨나니
전진하는 사회주의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뭇기라
총대우의 붉은기 주체 붉은기여!

(필자는 로씨야사람임)

명언해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의 대변자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을 대변하는 자세와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아름다운 정서를 안겨 주는 인간정신의 기사들이다. 그들에게는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지워져 있다. 시대정신에는 해당 시대 인민대중의 삶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며 요구가 구현된다. 인민대중은 생활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참된 삶의 길을 지향하며 가식과 거짓이 없는 량심의 목소리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이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대중의 량심을 작품으로 대변할 때 참된 삶의 길로 인민대중을 선도할 수 있다.

새해가 오고 다시 또 와도

박헌철

눈이 내린다
수도의 하늘가에 흰 눈이 내린다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언덕우에
축복의 설눈이 내리고 내린다

수령님께 설세배올리려
만수대의 계단을 물결쳐 오르는
설단장 곱게 한 사람들의 어깨우에도
함박눈은 푸근히도 내리고 내린다

새해의 인사말도 여기서 시작되고
새해의 첫 걸음도 이 언덕에서 시작하는 우리
우리 조국의 휘황찬 삼백예순다섯날이
여기서 시작되어 천리마를 타고
하늘높이 치닫는것 아니라

생각도 깊어라
땀으로 눈 부신
지나온 한해의 날과 날들을
구슬처럼 꿰어
수령님앞에 아뢰일 때면
왜서인지 긍지에 앞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어

우리 아무리 많은 일 하였다 해도
멀고험한 전선길 걷고 걸으신
장군님의 그 로고와 수고를
천만분의 일인들 덜어 드렸을수 있으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위해
낮과 밤을 잊고 사신
장군님의 분과 초를
단 한번인들 대신할수 있었으랴

언제나 혁명의 최진두에는
우리의 장군님이 서계셨기에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 내며
승리자로 또 한해를 긍지높이 맞이했고
헤쳐야 할 고난이 앞에 더 있다 해도
우리는 두렵없이 웃으며 새해를 맞이해라

만수대 여기서 우리 한해의 첫 자욱을 내짚노라
걸음걸음 생각깊이 오르는 이 길은
새해에도 수령님의 영생으로 이어 지고
걸음걸음 맹세 안고 내리는 길은
어디든 그 어디든 장군님 따르는 한길로 이어
지려니

정녕 이 땅우에 새해가 오고 또다시 와도
어버이수령님 서계시는 이 언덕에서
첫 자욱 떼는것을
풍습처럼 알고 있는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 따라
수령님 손 들어 가리키시는
그 길로만 변함없이 곧추 가리라
정월부터 12월의 마지막기슭까지
아, 세월의 무궁한 그 한끝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 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작품의 핵은 작품의 모든 개별적요소를 싹 티우고 자래울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종자는 주제와도 다르고 사상과도 다르다.

종자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란 무엇인가 하는것부터 똑바로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의 심장에 창조의 불씨를 지피 주고 창조적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정서적체험세계에 이 끌어 주고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달아 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야 문학의 종자로 될수 있다.》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문학작품의 종자로 될수 없다.》

《종자가 작품의 핵으로 되는 근본요인은 그것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체현하고 있는 사상적알맹이라는데 있다. 만일 그 사상적알맹이가 없으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죽어 버리게 되고 형상은 빛을 잃게 된다. 그 사상적알맹이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생명이며 핵이다. 그러므로 종자는 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규제하고 통일시키며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중심으로 된다.》

《종자가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부터 작품의 핵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작가의 창작과정이며 새로운 형상세계가 래어나는 과정이다.》

《종자를 바로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워 나가는것은 문학창작의 생리로, 철칙으로 되어야 한다.》

《생활에서 종자를 발견하는 과정은 그에 체현되어 있는 본질을 파고 드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종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아무런 충격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정상적으로 흘러 가는 생활에서는 종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종자는 어떤 충격에 의하여 생활에 파동이 일어 나 그 정상적인 흐름이 깨여 지며 사람의 운명에서 심각한 변화가 생기게 될 때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생활의 흐름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사람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 나게 한 그 근본요인속에 바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종자가 있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탐구하는 과정은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파고 드는 과정이다.》

《종자의 발견은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이다.》

《종자는 기본형상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가 주관에 빠지면 종자는 죽고 만다. 작가에게 있어서 종자가 발견중의 발견으로 되어야 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펼쳐 지는 인간성격과 사건, 세부와 일화도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달리는 조국에 부치는 시

문동식

혁명의 기관차인양
붉은기를 휘날리며 질풍처럼 달려 온
나의 조국이어
또 한해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
나는 그대 렬차에 몸을 실었노니
만리길도 지척인듯 가까웁고나

세월의 끝까지 갈수 있는것은
이 세상에 오직 그대 하나뿐
그대만 타면
내 가고싶은 곳으로
불새처럼 훨-훨- 날아 갈수 있나니

그래서 부럽지 않다
붉은기가 없이 이 아침 떠나가는
이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기관차도
부유와 호강 환락을 누리며
폭신한 침대우에 누워서 간다 해도

마치 달리는 력사의 준마 같은
마치 굽이치는 생활의 대하 같은
《붉은기》호 기관차 그대의 진군을
그 어떤 봉쇄가 훼방할수 있었더냐
그 어떤 압살이 막을수 있었더냐

때로는 그대앞에 시련의 파도
때로는 그대앞에 고난의 진펄...
그런 때조차 우리 장군님
그대의 조향간을 억세게 잡으시고
선군궤도위로 질풍처럼 달렸나니

사납게 울부짖는 눈보라속에
온몸이 얼어 드는 그런 때조차
내 그대 렬차에서 내릴줄 몰랐노라
쓰거운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고
불돌에 손발을 녹이면서도

전기가 안 오고
기름이 떨어 저도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이긴다는
이 하나의 신념을 안고
그 어떤 다른 길을 생각한적 없었거니

그대 달려 가는 그 어디나
세상을 놀래우는 천지개벽을
이 땅우에 전설같이 펼쳐 놓으며
오늘로 달려 온 창조의 보람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빛나는 전망 안고 또 한해 떠나가는

나의 인생행로엔 변함이 없다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수천만이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그대보다 좋은 렬차 나는 모르나니

황금을 쌓아 놓고 혼패를 흔들며
그 누가 어서 오라 불려도
나는 그대 품에서 내리지 않으리
원췌의 총알이 심장을 노리여도
나는 그대 품에서 떠나지 않으리

세상에 길은 많고 많아도
백전백승하는 선군기관차
누구에게나 복을 주는 인민행렬차
정의의 길로 달리는 혁명의 철마는
이 세상에 그대밖에 없어

내 무엇을 아끼랴
그대 만약 광풍속을 힘겹게 간다면
내 어깨로 바퀴를 밀어 가리라
만약 그대 달리는 먼 길에 필요하다면
내 서슴없이 뼈를 깎아서라도
그대의 치차되고 나사못이 되리라

그렇다
내 사랑 《붉은기》호 기관차여
위대한 장군님 조향간을 잡으신
그대와 나는 하나의 운명
내 삶을 붉은 기폭에 물들여
새 세계의 노을로 피우고 싶어
그래서 내 그대와 한뼉이 되었거니

오, 《붉은기》호 기관차
천만산악이 앞을 막아 나서도
백두의 정신으로 뚫고 내달리는
사랑하는 나의 위대한 조국이어
세월의 끝까지 갈수 있는것은
이 세상에 오직 그대 하나뿐

나는 달려 가리라
행성우에 호화로운 차들이 있다 해도
《붉은기》호 기관차 그대만을 타고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비약의 날개 펴고 승리의 한길로

나는 가리라
나의 붉은 피로 물들인 붉은기로
강성대국 붉은 노을 피워 올리며
인류가 갈망하는 자주노을로
세계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소설문학의 10년을 더듬어

새 세기가 들어와 두번째로 맞는 설날 아침 달력의 첫장을 펼쳐 드니 1월 20일이라는 날자가 눈앞에 확 안겨 온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신 뜻깊은 력사의 날이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주체문학의 대강을 받아 안고 뚫어 오르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로작의 자자구구마다에 새겨 진 심오한 사상을 파고 들며 깊은 사색과 열기 띤 토론으로 밤 가는줄 모르던 그때가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한데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다.

21세기에 들어 서 주체문학의 년대기우에 웅근한 년대로 새겨 지는 이 10년간을 돌이켜 보느라니 20세기 마지막년대를 승리적으로 빛내여 온 주체문학의 대화원이 눈앞에 펼쳐 지고 앞으로 더 무궁번영할 **김정일** 시대문학이 줄달음쳐 안겨 온다. 크고 작은 꽃들, 그 아름다움과 향기 또한 다양하고 짙은 우리 문학의 대화원속에서 무게 있고 장중한 소설문학이 류다른 감회를 불러 일으킨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지만 지난 10년처럼 소설문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 지고 소설가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 진적은 없다.

지난 10년으로 말하면 시대와 정세의 흐름으로 보나 창작조건으로 보나 이전 시기와 대비할수 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소설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고 붉은기를 지켜 **《강성부흥아리랑》**을 창조하는 력사의 그 나날에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작가적 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앞을 밝혀 주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밝혀 진 소설문학의 발전방향은 시종일관 소설가들의 창작의 기치로 되었으며 끝없이 샘 솟는 열정을 분출시켰다. 그들의 심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에 박동을 맞추었고 그들의 가슴은 온 세상을 다 안은듯 한껏 부풀어 더욱 넓어 졌다. 키도 몰라 보게 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당이 내놓은 문화예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소설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높은 문화수준에 맞는 소설,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창작을 위해 소설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년간 소설문학의 혁신적성과는 바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다정하게 의견을 주시는듯 소설이 독자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소설의 특성을 살리고 도식적인 틀을 깨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류문학사의 어느 갈피에 우기 장군님처럼 소설은 인민들속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문학형태이라고 값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작가는 자기가 써낸 일부 소설이 어떻게 되여 인민들속에서 널리 읽히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다정하게, 친근하게 일깨워 주시는 이런 령도자가 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소설의 특성을 잘 살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문학에 쓰이는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르 다 리용할수있는 소설의 우월성과 특성, 묘사문학, 이야기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와 이야기줄거리 전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형상수법을 재간껏 탐구리용하며 소설의 형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미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로작에는 처녀총각사이의 사랑관계를 어떻게 그려야 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도 있고 주인공설정수법이며 주인공을 감추어 두고 형상하는 수법, 부정적인간을 중심에 놓고 형상하는 수법을쓸수 있다는 깨우침도 있다. 중편이나 장

편을 써야 소설가로 인정 받을수 있는듯이 생각 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에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는 간곡한 타이름과 고무의 말씀도 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소설문학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사상리론은 그대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이였고 엄격하고도 따뜻한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였다. 그 말씀 한마디한마디, 로작의 자자구구는 소설가들을 격동시켰고 눈앞이 확 트이게 하였으며 소설가의 본분을 다하는 길로 힘 있게 떠밀어 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창조와 예지의 빛발이 비쳐 10년간에 소설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마련되었고 소설문학의 대풍이 마련되었던것이다.

이 기간 두차례에 걸치는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를 통하여 소설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뚜렷이 특징 짓고 그 위력을 온세상에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소설은 선군혁명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을 대표하는 문학형태로서의 자기 지위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게 되었으며 소설발전에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돌려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고 인민들속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문학형태로 될수 있었다.

이 기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힘》, 《대지의 건설》, 《영생》, 《삼천리강산》, 《열병광장》...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동해천리》, 《푸른 하늘》, 《력사의 대하》,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 《서해전역》... 등이 창작되었으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와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이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령역에 걸치는 장중편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편소설들인 《붉은 흙》, 《높은 목표》, 《북부철길》, 《불기둥》, 《백금산》, 《열망》, 《수평선》, 《산촌의 화불》, 《지금은 봄이다》, 《작품》... 중편소설들인 《트락토르운전수일가》, 《박우물》, 《교정의 룰리》 등을 비롯하여 그 수는 근 200편에 달하고 있다.

장중편소설뿐아니라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백편의 단편소설들이 특색 있게 창조되어 소설문학에 참신하고 생신한 기운을 돋구어 주었다.

참으로 우리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가치는 비할바 없이 높아 졌다.

다양한 주제령역과 다양한 형태의 소설작품들에서는 심오하고 참신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그 어느 작품이거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참다운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 신념과 의지에 관한 문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며 고난을 박차고 강성부흥할 래일을 안아 올 혁명적락관주의로 일관되어 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약동하는 선군시대의 숨결이 느껴진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력과 실적으로 우리당을 받드는 새로운 시대의 전형들이 창조되었다. 특히 인민군대와 당, 국가경제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책임적인 일군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주목을 돌리게 된다.

이것은 앞채를 메고 이신작작의 모범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옹호관철해 나가며 온 나라 모든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감명 깊게 보여 주는데서 커다란 형상적 의의를 지진다.

또한 소설의 묘사수준이 비할바 없이 높아져 읽을 맛이 나고 견인력이 크다. 새롭게 탐구개척된 소설의 수법과 형태는 또 얼마나 다양한가.

벽소설, 지능소설, 추리소설, 환상소설, 실화소설, 운문소설 등 소설형식들이 앞을 다투어 분단에 등장함으로써 소설분야를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장식하였다.

종래의 도식과 류형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상수법과 형태를 개척하기 위한 소설가들의 진지한 탐구의 나날 소설문단에 새로 등장한 작가들도 많으며 그들이 중견작가들과 실력을 겨루며 훌륭한 성과작들을 내놓고 있다. 하여 소설문학의 대는 굳건히 이어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에 이룩한 소설분야에서의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론 학론》**을 발표하시여 소설가들의 안목을 띄워 주시고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쳐 주신 결과에 새롭게 면모된 선군시대의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기백과 청신한 기풍을 그대로 실증해 준다.

앞으로 소설분야에서의 창작본생은 더욱더 새롭게 변모될것이다.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독자들의 손에 쥐여 진 작품보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야 할 소설이 더 많기에 순간도 탕개를 늦출수 없는 소설가들이다.

우리 소설들이 창작활동에 영원불멸할 주체론

학의 대강 《주체문학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문학에서 제시된 과업과 사상미학적원칙들을 드림 없이 관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21세기 선군혁명문학건설에서 기본전선을 담당해야 할 소설문학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는 길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소설문학은 또다시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펴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새로운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의 불길은 이전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소설문학에서 먼저 더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성과는 확정적이다. 새 세기 문학의 보물고는 **김정일**시대의 선군혁명소설로 더욱 빛날것이다.
...

김려숙

장군님의 총대-우리 식 평론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다.

강산은 몰라도 우리 평론문학의 면모가 일신된 세월이다.

좌절과 실패, 절망과 혼돈의 타류속에 인류의 진보적문학이 몸부림치던 90년대 초, 다시한번 사회주의문학의 포성을 울리며 탄생한 주체문학의 대강은 우리 평론전선에도 위력한 《방사포》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 식 평론!

평론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 잡아 주는 문학발전의 힘 있는 추동력이다...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평론의 근본사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평론가는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사업에서 전위투사...

평론은 문학예술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무기!...

문무검전의 백두령장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전고미문의 철학으로 우리 식 평론의 심오한 세계를 밝혀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적극 선전하며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식 평론의 기본 특징이다.》

동서고금 그 어느 문예론에 평론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와의 관계속에서 그 존재방식을 해명한 례가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식 평론의 본질

적면모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평론도 창작이라는것, 평론에는 그 평론가의 독창적인 발견과 주견이 있어야 하고 문제는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맛이 있어야 하며 친절하고 흥미 있어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평론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문학작품으로서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 올수 있는 곧바른 지름길을 뚜렷이 밝혀 주었다.

작가가 인간과 생활을 대상하여 문학작품을 창작한다면 평론가는 작가와 작품을 상대하여 평론을 창작한다.

하여 평론가 역시 작가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 서게 되었으며 이것은 작품과 평론, 작가와 평론가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벽들이 리론실천적으로, 도덕률리적으로 제거되게 되었다.

그렇다. 주체문학의 평론대강은 우리 평론계에 떠돌던 불투명하고 아리송하며 끈적끈적한 《안개》를 《우리 식 평론》이라는 《신형포》로 단 방에 걸어 버렸다.

앞으로!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문학운동의 전법에 맞는 신형의 무기로 재무장한 우리의 평론진은 주체문학의 전초선에서 폭풍같이 돌진하였다.

평론가들은 우리 당 문예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론증하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일반화한 글들을 활발히 써내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골짜기는 환경에 맞게 우리 평론가들은 작가들의 창작에서 나타나는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눈을 밝히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

투로부터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우리 식 평론을 작전지시봉으로 틀어 쥔 평론가들은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작가들에게 창작의 주제방향, 형상방향을 구체적으로 그어 주면서 사회주의붉은 기수호의 문학, 수령숭배, 수령영생의 문학, 선군혁명문학을 힘 있게 선도해 나갔다.

이 나날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혁명임무와 사회적으로동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태도라든가 작가의 창작심리에 대한 문제 같은것을 주체적립장에서 깊이 있게 해명한 평론들은 우리 작가들의 문예관을 바로 세워 주는데서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가.

우리 평론가들은 시야도 넓어 지고 도량도 넓어졌다. 다른 나라의 문학도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좋은것은 제때에 찾아 내어 우리의 미감에 맞게 창조적으로 리용하도록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이끌어 주었다.

작가들과 독자들은 말한다. 동서고금의 이름 있는 평론들도 딱딱하고 감칠 맛이 없어서 읽기가 따분하고 리해가 어려운데 최근년간 우리의 평론들은 내용이 심오하고 사리정연한데다가 예술적흥미가 있어 볼 맛이 있다고.

과시 그렇다.

주체적인 평론리론이 정립된 때부터 우리의 평론은 세상에 문예평론이 생겨 난 이래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물려 내려 오던 악습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민에게 주는 글로,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미감에 맞는 문제로 자기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형식은 또 얼마나 다양해 졌던가.

우리의 평론은 그 어떤 과학론문이나 연설, 웅변도 닮지 않은 독특한 문학형식으로 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대담식의 평론이 나왔는가하면 론쟁식평론도 출현했고 수필식이나 서한체, 일기체 형식의 평론들이 속출되었다.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창작경험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창작에서 이룩된 독창성과 개성화의 모범을 일반화한 작가론적평론이 활발히 창작되어 작가에게 자신심과 영예감을 안겨 주고 평론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정규군의 사단처럼 우리의 평론진은 조직성과 집체성으로 짜여 졌다.

매 시기마다 평론의 기본방향과 기본과녁이 정

확히 설정 되고 섬멸전과 집중포화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다. 이와 함께 문학발전의 추세와 작가들의 창작정형을 늘 예리하게 주시하고 평론가들의 지상토론과 론쟁을 기동성 있게 조직하면서 문학창작에서 걸리고 있는 사상리론적인 문제들을 평론가들의 집체적인 힘에 의거하여 풀어 나갔다.

감회롭다. 이 나날에 아름답게 꽃 피나던 작가와 평론가사이의 공산주의적결연리.

때로는 작품의 결함을 두고 얼굴을 붉히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한 전호에서 있는 동지적충고이고 사랑이었다. 예리하면서도 공정하고 계발식으로 된 평론의 도움으로 졸작의 골바닥에서 명작의 봉우리에 올라 선 작품은 그 얼마였던가.

정녕 지난 10년간 우리 평론의 적극적인 선도와 아래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의 위력한 총검이 되고 수령영생축원의 열렬한 송가로 되고 선군혁명령도의 힘 있는 기치로 된 소설, 시, 극, 아동문학작품들은 그 얼마이며 수령숭배와 결사옹위의 불로되고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정신의 넘으로 된 백두산3대장군의 전설, 명산전설, 고전작품, 번역작품들은 또 얼마던가.

하지만 우리 평론대오의 발구름은 아직 그렇게 우렁차지 못하다. 우리 식 평론의 구령소리에 하나같이 걸음을 맞추자면 심장이 요구된다.

지난해 4월 28일 최전연과 후방을 쉬임없이 넘나드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의 장군님께서 또다시 우리 식 평론의 시대적요구를 심오히 깨우쳐주실 때 우리 얼마나 자책감에 몸부림쳤던가, 동시에 세기의 명작들을 줄느린히 앞세우고 마중오는 우리 평론의 미래를 확실히 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백과전서적저서 《주체문화론》이 탄생하여 10년.

이 나날은 우리의 평론이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로, 우리의 평론가들이 그 총대의 탄환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전초선에 확고히 들어 선 나날이었다.

우리 식 평론이여, 너는 척후병, 선도자, 전위투사로서 주체문학의 대오앞에 영원하리.

백두령장을 우리 평론부대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평론가들의 평필은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리.

김학

붉은기를 높이들고 시대를 선도해 온 시문학의 10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멸의 문학대강 **《주체문학론》**을 내놓으시어 혁명적시문학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신 때로부터 어언 10년 세월이 흘러 갔다.

오늘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혁명적시가의 탑을 돌기돌기 쌓아 온 뜻 깊은 창조의 나날들을 류달리 감회로운 마음으로 돌이켜 본다.

지나온 10년 세월의 그 자욱자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시문학령도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으며 장군님과 우리 시인들간의 혈연적의리관계로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위인상에 매혹되어 그이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며 그이의 선군정치를 결사옹위하는 시세계의 새 경지를 개척해 왔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문학론》**을 받아 안은 10년력사는 우리 시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문학사상에 매혹되어 당의 시인으로 성장하여 온 긍지 높은 나날이며 장군님의 비범한 문학실력을 걸음걸음 따라 배우며 힘차게 전진하여 온 보람찬 나날이며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자랑 많은 나날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 안은 10년은 우리 시인들이 장군님의 탁월한 문학사상에 매혹되어 당의 참된 시인으로 성장하여 온 긍지 높은 나날이다.

령도자에 대한 매혹과 숭배는 그의 사상에 열렬히 공감하고 심장을 불 태우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령도자의 뛰어 난 위인적품격은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상은 령도자의 위인적품격을 이루는데서 핵으로 된다. 령도자에 대한 모든 위인적매혹과 숭배의 원천은 그가 지닌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사상이 위대하여 위인인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인 시문학사상을 끝 없는 환희와 경탄속에 받아안고 그에 매혹되어 새로운 시창작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보람찬 길에 들어 섰다.

기억도 새로운 주체81(1992)년 1월 20일 불후

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철리로 온갖 낡은 시론과 기성의 관념을 일소하고 새로운 주체의 시문학사상을 정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비추어 현실생활과 시문학의 관계, 서정성의 본질과 실현방도, 시문학의 음악성과 운률문제, 가사창작에서 나서는 미학적요구 등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주체의 시문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시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은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올바른 길, 자주적삶을 누릴수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 주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적시가문학건설의 튼튼한 담보로 된다.

시는 시대정신을 노래한다. 그 시대의 인생을 노래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대와 인생문제보다 더 절박하고 관심 있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시인들이 지금까지 시대와 인생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찾으려 세기를 거쳐 모태겨왔다. 시란 과연 무엇인가? 시가 시대와 인생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각이한 역사적시기에 각이한 환경에서 창조활동을 벌려 온 력대 시인들의 **《시학》**에는 시문학의 창조적역할을 강조한 귀중한 긍정점이 있다. 하지만 시대의 전진을 선도할데 대한 혁명적형상의 높이에는 이룰수 없었다.

오늘도 온갖 이색적인 시문학은 갖가지 색깔과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초로인생》**, **《인생허무》**를 설교하며 시대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주체의 시문학은 시대를 자주의 한길로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나뭇길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는 참된 인생길을 밝혀 주고 있다. 자주적인 시대, 창조적인 삶에로의 길은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인생길이다.

인간을 자주를 지향하는 시대로 선도하는 진정한 시문학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숙망은 인류의 운명전도를 두고 깊이 헤아려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비로소 성취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주시대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것을 우리 시문학의 정수로 내세우시고 품위 있게 노래하도록 시인들을 이끌어 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빛나는 한생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은 삶의 위대한 귀감이다.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 주고 시대를 옹호 선도하여야 할 시문학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것은 첫째가는 본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칭송 시문학창작사업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는 시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그 손길에 이끌려 우리 시인들은 인민의 한결 같은 사상감정을 담아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축원하며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는 시문학의 창조는 수령님께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성심과 의리심의 발현이며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미의 고결한 결정체이다.

총대는 선군정치시대의 상징이다.

총대를 노래하는것은 선군정치시대 시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 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귀감이다. 그러므로 선군정치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할 시문학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노래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노래하는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문학의 생명선이다.

서사시 《백두산은 웨친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많은 명작들이 그래서 태어났다.

선군정치시대의 시문학을 지도함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적시의 본보기인 인민군대시문학을 모범으로 내세우시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선군정치시대에는 시문학의 본보기도 사회에서 인민군대로 흘러 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대에서 사회로 흘러 드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 지고 있다. 인민군대 시문학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지도밑에 인민군대인들이 창조한 시가문학으로서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로 결사옹위하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혁명적사상정서로 하여 선군정치시대를 힘 있게 선도하고 있다. 바로 선군대시문학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나왔고 서사시들인 《백두의 종대 영원 불멸하리》와 명가사들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이 나왔다.

시문학은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시문학사상에 매혹되여 창작의 한길을 걸어 온 우리 시인들은 그이의 사상을 창작에 완벽하게 구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간직하고 있다. 장군님의 사상감정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여기에 시문학이 시대를 선도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 장군님의 사상감정은 우리 시문학의 넓이고 숨결이며 시대정신이다.

우리 시문학의 갈피마다에서는 장군님의 사상감정이 용용히 굽이쳐 흐르고 있다. 우리 시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감정으로 충만된 명실공히 장군님의 시문학으로 되였다. 이것이 지난 10년동안 우리 시문학발전의 가장 빛나는 총화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 안은 10년은 우리 시인들이 장군님의 비범한 문학실력을 따라 배우며 전진하여 온 보람찬 나날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통하여 우리 시인들에게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인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야 하며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는것, 시문학의 음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운율을 살려야 한다는것 명가사는 입에 인차 오르고 오래오래 잊혀 지지 않아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생활적으로 씩여 지고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씩여져야 된다는것 등 참으로 많은것을 깨우쳐 주시였다.

우리 시인들은 한생을 따라 배워도 가닿지 못

할 장군님의 비범한 문학실력을 끝없이 숭배하며 따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문학실력을 지닌 정도자만이 실현할수 있는 뛰어난 정도예술로 나라의 시문학창작사업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

장군님께서 문학부문을 지도하시면서 큰 힘을 넣으시는 부문은 시와 가사이다. 그이께서는 본보기가 될만 한 시와 가사로 완성시키시는 과정에 당의 문예정책을 구체화하시며 새로운 문예사상파리론을 제시하기도 하신다. 일단 본보기시가 작품을 마련하신 다음에는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 나가신다.

시인들에게는 백마디, 천마디 이론적강조보다 한편의 본보기작품이 더 힘 있는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위력한 정도방식은 우리 장군님처럼 불후의 고전적시가명작들을 내놓을수 있거나 시인들의 스승이 되어 본보기시가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실천적으로 이끌수 있을만큼 문학에 비범한 조예를 가진 실력가형의 정치지도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사랑 받는 명시가작품들은 그렇듯 위대한 스승의 손길밑에서 향기롭게 꽃피날수 있었다. 지난 10년동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시인들이 창작하여 올린 1천여편의 가사, 서정시, 서사시들을 지도하여 주시였다. 1천여편의 작품가운데는 우리 시인들의 힘과 재능이 모자라 미숙한 작품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어떤 시는 제목을 고치게 해주기도하시고 어떤 가사들은 친히 수정가필까지 하여 완성시켜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서사시 《조국이어 청년들을 자랑하라》,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 《대흥단 삼천리》, 《2월은 봄입니다》, 《강성부흥아리랑》과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나왔을 때는 치하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시인들의 창작을 고무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시인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데 대하여 자주 높이 평가하시면서 장편서사시 《백두산》, 서정시 《어머니》, 《나의 조국》 그리고 리수복, 길영조 영웅들이 남긴 시들과 풍자시 《벌거 벗은 아메리카》와 같은 추억에 남는 시들을 인민들속에 널리 선전보급하는 조치도 취해 주시였다.

로동자, 농민, 병사출신의 우리 시인들속에서 그렇듯 시대를 선도하는 작품들이 팡팡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평범한 인민을 문학예술의 창조자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문학실력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문학세계를 따라 배워 그이의 참된 시인이 되자, 이것은 지나온 10년간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우리 시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 신념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 안은 10년은 우리 시인들이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나날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에 대하여 늘 나의 작가, 나의 동행자들이라고 하시며 작가들을 보호해 주고 내세워 주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문학론》에서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불러 주신것은 정도자로서 우리 작가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신임이며 사랑이다. 그러시고도 우리 시인들이 자그마한 창작성공을 거두어도 못내 대견해 하시며, 《김일성상》과 로력영웅 등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아낌없이 안겨 주신다.

시인들이 걸어 온 지난 10년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장군님의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자라온 추억 많은 나날들이다.

참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의 품에 안겨 창작하는 우리 시인들보다 행복한 시인은 세상에 없다.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실력, 고매한 사랑을 지닌 위인을 숭배하며 시창작의 길에 나선 우리 시인들의 가슴속에는 오늘도 래일도 붓대를 총대삼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맹세가 차넘친다.

김의준

설날아침에

최용호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이 인사말로부터 시작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설날에는 그 어디서나 듣게 되는 인사말이다. 집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달리는 빠스나 전차안에서도...

누구나 조금이라도 낯 익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인사말부터 건넨다.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도 한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만나도 지어 어제저녁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도... 설날의 이 새로운 풍경이랄까.

《새해를 축하합니다.》

설날에는 누구나 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한다.

이 짧은 인사말속에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새해에 모든 것이 잘되고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축하의 인사말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설날아침

새날이 밝았다. 새해가 온것이다.

저 멀리 동녘하늘가에서는 새해의 첫 태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밝은 해살을 뿌린다. 그 해살을 받아 온 천지를 뒤덮은 흰 눈이 눈 부시게 반짝인다.

새해, 희망으로 가슴 부푸는 새해가 온것이다.

거리는 온통 명절일색이다. 가는 곳마다 축들이 내걸리고 경축장식으로 울긋불긋하다.

이제껏 보아 온 거리풍경이지만 새해가 와서인 지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고 정답게만 느껴진다. 가로수의 가지들마다에 묵직하니 쌓인 눈들은 류달리 희고 소담해 보인다. 발밑에 눈 밟히는 소리마저도 별스레 경쾌하게만 들린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환희에 찬 웃음이 가득 넘친다. 웃음을 한입 머금은 눈사람이 새해를 맞은 사람들을 축하한다.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거리에 나섰다. 딸애의 손에서 빨간 꽃 한송이가 하얀 설경속에서 유난히 붉은 광채를 뿌린다. 만수대언덕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설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것이다.

새침데기 딸애도 오늘은 별스럽게 참해 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나부시 절을 하며 《새해를 축

하합니다.》 하고 제 엄마가 배워 준 인사말을 곧잘 외운다.

궐도전차는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달린다. 궐도전차안에도 새해를 맞이한 즐겁고 유쾌한 기운이 차넘친다.

저쯤에 선 처녀들의 손에도 꽃다발이 들렸다. 그들도 만수대언덕으로 가는 길인가보다. 명절날이나 기념일이 오면 그 어디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맹세를 다지는것이 우리 인민의 전통화된 가풍인것이다.

궐도전차가 정류소에 멎었다. 오르는 사람들속에 설날에 어울리지 않게 큼직한 배낭과 가방을 무겁게 지고 든 사람이 끼였다.

어디로 여행을 떠난것인가. 하필이면 이런 설날에...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자세히 여겨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박동무!》

자리를 잡느라 두리번거리던 그의 얼굴에도 반가운 웃음이 확 피여 난다.

이제는 멀리로 흘러 가버린 학창시절 나의 딱 친구였던 한책상동무 박동무였다.

공부를 해도 함께 하고 장난질을 해도 함께 한 다정한 동무, 때로는 악의 없는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서로 도와 주고 깨우쳐 주며 우정을 키우고 청춘의 푸른 꿈도 함께 키워 온 다정한 사이였다. 비록 서로 꿈이 다르고 지향이 달라 박동부는 공학을, 나는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로 다른 대학에 입학하던 날 우리들은 서로 약속했었다. 너는 조국의 명예를 떨치는 이름난 과학자가 되고 나는 사람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는 훌륭한 작가가 되자고...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연구기관의 쟁쟁한 연구사로 되었고 몇년전에는 학사칭호까지 수여 받았다.

박동무는 지난해부터 근 1년째 지방의 어느 한 공장의 현대화를 도와 주기 위해 현지에 내려 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회포를 나누었다.

《그간 왜 그렇게 꿈쩍 안했나?

연구사업에서는 성과가 있겠지?!》

《지난해는 정말로 힘들었네. 연구과제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고 새롭게 정립했다고 할가.》

...박동무가 말은 연구과제는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그 누구도 해본적 없는, 최첨단과학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하는것이였다.

거듭되는 실패, 이제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것이 또 실패...박동무는 뚫고 나갈 방도를 찾아 모대졌다. 외국의 기술문헌자료들도 다 찾아 보았으나 별로 신통한것이 없었다. 실패, 또 실패...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는 그러한 기술개발은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외국에서도 성공한 실패가 없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공장을 돌려 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고 후날로 미루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정말 막막하더군. 한걸음 앞도 보이질 않았어. 정녕 불가능한것인가, 이대로 물러 서야만 하는가... 나는 나 자신의 미약한 능력을 타매하며 몸부림쳤지.》

박동무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아니, 물러 설수는 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걸음 물러 선다면 래일에는 열걸음, 백걸음 뒤떨어 지게 될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에 조국의 전진이, 미래가 달려 있다. 곤난앞에 무릎을 꿇고 현상유지나 하려는것은 퇴보이며 후퇴이다. 다시 시작하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노력은 성공의 디딤돌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박동무는 다시 분발하여 일어 섰다. 남의것을 넘보지 말자.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하자.

람구의 낮과 밤이 흘렀다. 암중모색... 드디어 성공의 밝은 빛이 비쳐 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소와 최종합의도 보고 또 컴퓨터모의실험도 해볼겸 해서 올라 왔던거네. 모든 일이 다 잘됐어. 이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한계단 도약하게 될거네.》

비록 모습은 몰라 보게 수척해 졌으나 박동무에게서는 자부와 긍지, 정력과 활기가 넘쳤다.

박동무는 생각 깊은 시선으로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실풍경을 한동안 내다보았다.

《벌써 설이로구만. 한해가 어느새 흘렀는지...

이번에 나는 우리가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하는가 하는것을 두고 생각이 많았네.

만약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오늘의 현실을 보고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현실은 답보와 침체를 용납하지 않는 법이네.

보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투시하고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쉬임없이 돌진할 때에만 우리는 뒤떨어 지지 않고 세계선진수준에 당당히 올라 설수 있지 않겠나. 강성부흥은 그 누가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해야 하는것이거든.》

나는 왜서인지 가슴이 찢르르해 났다.

박동무는 싱긋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 자네 일은 잘되나? 언제부터 버르던 그<결작>은 어떻게 되었나?》

나는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얼굴이 뜨거워 났다. 딸애가 초롱초롱한 눈길로 붉어 지는 내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궤도전차가 역앞 정류소에 멈춰 섰다.

우리는 궤도전차에서 내려 마주섰다.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것이다.

《설이나 최고 가지. 경심이 어머니(박동무의 안해)가 섭섭해 하지 않겠나.》

박동무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인차 마지막실험을 해야 하네. 실은 내려 가서 동무들과 함께 쇠지. 연구조동무들과 약속했거든.》

우리 경심이 엄마도 다 리해한다네. 이게 다 우리자신과 또 경심이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박동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딸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 있거라.》

《새해를 축하합니다.》

딸애는 버릇처럼 허리를 꺾어 절을 하며 인사를 한다.

박동무는 호탕하게 웃으며 딸애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래, 고맙다.》

한데 이 아저씨는 네 축하인사를 받을만 한 일을 해놓은게 없구나. 진짜 축하인사는 이다음 아저씨가 성공하고 올라 온 다음에 받기로 하자구나. 어때 좋지?》

박동무는 절결 웃음을 터뜨리며 딸애를 높이 추켜 들고 빙글빙글 돌아 갔다. 좋아라 깔깔대는 아이의 랑랑한 웃음소리...

저쯤 걸어 가던 박동무가 문득 소리쳤다.

《참, 이야기바람에 잊었군.

새해를 축하하네- 가족들에게도 내 인사를 전해 주게.

성과를 바라네-》

박동무는 웃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마주 흔들었다. 하지만 새해를 축하한다는 말만은 차마 할수가 없었다. 왜서인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걸어 갔다.

거리로는 명절기분에 잠긴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른다. 딸애는 좋아라 깨꿈질을 하며 저만치 뛰여 갔다가는 다시 돌아서 뛰여 온다.

나의 눈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손을 흔들던 박동무의 모습이 떠날줄 몰랐다.

그처럼 고심분투하여 성공의 열쇠를 찾아 쥐고서도 아직은 새해축하인사를 받을만 한 일을 해놓은게 없다면 그의 목소리... 그런데 나는?

1년은 날자수로는 365일, 시간으로는 8,760시

간이다.

하다면 나는 그 하루하루, 한시간한시간을 어떻게 흘러 보냈는가. 과연 조국앞에 시대앞에 나의 그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몇몇이 말할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 말할수 없다. 한해동안 이렇다 할 글 한편 똑똑히 쓰지 못한 내가 어찌 그렇게 말할수 있으랴.

현실은, 시대는, 사람들은 저렇듯 뛰고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책상머리에서만 맴돌고 래일에는, 다음달에는 하고 버리기만 하고... 결국 나의 지난 1년간은 해놓은 일이 별로 없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1년으로 되지 않았던가. 부끄러웠다.

시간은 쉬임없이 흐르고 현실은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그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 투쟁, 자각, 분발... 이러한것에 토대하여 그 발전은 이룩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박동무의 말이 옳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말은 그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받을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조국앞에, 시대앞에 한해동안 자기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몇몇하게 할수있고 받을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나도 분발하자. 줄달음쳐 달리자.

그리하여 나도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말을 다음해에는 몇몇이 부끄럼없이 할수 있도록, 받을수 있도록...

딸애가 달려 와 내 손에 매달렸다.

《아버지, 빨리 가자요.》

《그래, 빨리 가자.》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새날의 붉은기

리창식

설날이 흥날리는 수도의 건설장에
말없이 나뭇기는 한폭의 붉은기
거리거리 화려한 설풍경너머
뭇시선을 이끄는 건설장의 붉은기!

밝은 앞날과 희망을 축복하며
우리 세워 놓고싶은 경축화도 많았건만
위훈의 우등불로 밤하늘을 불 태운
창조의 억센 심장들은
새해의 이 아침도 너와 선참 마주하고 싶었나니

붉은기
붉은기
너와 함께 우리는 행복을 꿈 꾸었고
너와 함께 우리는 시련의 고비들을
웃으며 넘어 오지 않았던가

하거늘 사람들이여
굳이 이앞에서 우리와 나눌
새해의 첫말을 다르게 고르지 말라
우리가 안고 사는 래일의 설계에 대해
채색한 전망도를 찾지 말라

하고싶은 말
펼쳐 놓고싶은 황홀한 미래
우리 한폭의 붉은기에 담아
새해의 하늘높이 세운것이거니

여기엔 있어라
새집의 창가마다
만복의 웃음소리 실어 주고싶은

창조자들의 후더운 마음

여기엔 다 있어라
온 세상 보란듯이
부흥의 새 모습 펼쳐 놓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떨치고싶은
승리자들의 가슴 벅찬 열망!

내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안고
새해도 전선천리 이어 가실 장군님
돌아 오실 때마다 기쁘게 보시라고
우리는 새로이 높아 가는 충충우에
언제나 너 붉은기를 꽃으리니

새날의 붉은기
너는
이 땅 이 하늘아래서
기어이 강성대국의 아침을 맞이할
우리들의 불 같은 맹세

너는
장군님 밝히시는 헌신의 천백밤을
애국의 화불 밝혀 함께 지새고싶은
우리들의 뜨거운 충성
선군시대 인간들의 량심!

오, 불 타라
영원히 우리의 의지로 불 타라
새날의 붉은기
주체91년의 붉은기여!

빈말은 없다

김병훈

《삼천리 금수강산》

1

휴식일 저녁컨이라 들놀이 나갔던 가족일행이며 어느 공사장엔가 지원 나갔다 돌아 오는 작업복차림의 청년들이며 낚시대를 접어 멘 낚시군들이며 유원지나 유보도를 거닐고 돌아 가는 쌍쌍 남녀청춘들이며... 휴식의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 가는 사람들로 길거리는 흥성거린다.

하지만 정류소에는 줄이 그닥 길지 않다.

어디선가 실례이는 초여름 훈풍을 타고 향기로운 냄새가 실려 와 기분이 좋다. 한창 싱싱하게 푸르려 무성해 지는 수삼나무가로우 사이사이에 우거진 장미덤불은 소담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다.

내앞에는 30대의 젊은 부부가 일어눕살되어 보이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서 있다. 한뼘만 큼 키가 큰것은 아들이고 작은것은 계집애다. 아이들의 등에는 감쪽하게 생긴 배낭이 없었고 부부는 각기 손에 구력들을 들었다.

《목마가 좋아, 목마가 일등! 동물원 진짜 말처럼 무섭지두 앓구 쟁쟁쟁쟁...》

《그건 장난감이야. 관상차가 최고지. 휘익 비행기처럼 두바퀴나 가꾸로 도는것!》

《체, 저 혼자 타구선.》

《누가 타지 말라던, 네가 눈 꼭 감구 부들부들 떠니까 아버지가 내려 왔지.》

《요담엔 탈래. 엄마, 일요일 또 가자...》

오늘이의 싱갱이질을 들으니 유원지를 다녀 오는 길이 분명하다.

《야, 데거. 2층빠스. <삼천리>야!》

불현듯 총각이 울리는 환성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소리다.

《아버지, 건너 가서 저기가서 저거 2층 타자!》

《다음에 타자. 저거 타문 사동까지 직행인데 집엔 언제 가겠니.》

《체, 제각 갔다 올텐데. 나 저번때 타봤다.》

《너 자유주의했구나...》

2층빠스, 단층빠스 작년부터 온 수도를 그물처럼 누비며 달리는 새 빠스들이 실새없이 오고 간다.

한가한 일요일 길인데 거리의 룻지에서 바람처럼 풍기는 장미꽃냄새를 맡으며 가고 오는 빠스를 구경하는 멋도 괜찮다. 다만 저녁 6시 텔레비존에서 나올 축구선수권대회방영시간에만 집에 들어서면 되는데 요즘 빠스속도면 넉넉히 30분전

에 닿을수 있으니 걸어 가도 넉넉하다.

오가는 빠스는 금시 압출기에서 빠져 나온 수지완구처럼 최신행으로 쪽 빠지고 색깔도 갖가지로 품위있고 다양하고 속도감 있게 생긴것이 볼수록 정답고 대견하다.

게다가 동체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국이며 병사들을 자랑하라》, 《삼천리 금수강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등등 저마끔 서정시 같은 글을 새겨 붙인것이 더욱 흥을 돋군다. 누가 궁리를 했는지 시인보다 머리가 잘 돌아왔다. 어떻게 예술이 이처럼 생활과 밀착될수 있단 말인가!

요사이의 새 빠스를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 혹은 성과 이름을 가르듯 《삼천리》나 《금수강산》이라는 이름으로 떼여 부르기도 한다. 옆구리에 새겨 놓은 다양한 시구절 그대로 《인민을 위하여》를 타고 왔다, 《조국이며》를 타고 간다든가 하는 말보다 《삼천리》를 타고 왔다, 《금수강산》을 타러 간다고 하는 편이 훨씬 어감도 좋고 부르기 쉽고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즐거운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섰던 소년이 소리친다.

《온다-》

1분도 안됐는데 빠스 한대가 장미덤불 우거진 길옆으로 바투 붙으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

《저거 뭐이간?》

오래비인 소년이 내기를 건다.

《<삼천리>!》

누이동생의 서슴 없는 대답.

《체, 아니야. <조국이며>야.》

옳다, 아니다. 남매는 또 승쟁이다. 오는 빠스에 새긴 이름은 건너편에서만 보이는 까닭에 내기를 걸수 있다.

벽찬 숲을 뚫아 내듯 치익하는 압축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빠스가 옆에 와서 멎는다. 차의 손님들은 밀려 내리고 탈 손님들은 한걸음씩 줄을 조인다. 뒤편에 선 나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탈것 같긴 하지만 뭘때문에 서두르겠는가. 인차 다음 차가 올텐데...

운전칸결에 달린 앞문이 덜렁 열리더니 맵시 있는 간편한 차림에 죄꼬만 가방을 어깨에 걸멘 차장처녀가 가볍게 내려 섰다.

《아지미- 이 차는 뭐나요?》

달려가 묻는것은 내앞에 섰던 소녀였다. 대답할 사이없이 소년이 소리친다.

《<조국이며>이지요?》

《<금수강산>이지요?》

차장은 그제야 무슨 소린지 알아 차리고 생글 생글 웃으며 대답한다.

《<인민을 위하여>다.》

《데거…》 하고 소년은 큰 길로 돌아 가 확인할 기세로 나서는데 뒤에서 부모들이 다급하게 불러 세운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흐뭇하여 허허 덧없이 웃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귀 익은 목소리가 《림운 형님-》 하고 부른다. 차장이 내린 운전칸 앞문으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근이?…》

《어서 타시우.》

오라는 손짓이다. 70이 랠모레라 늙기는 했어도 표정은 늙지 않아 동그란 작은 얼굴에 한껏 벌리고 웃음 지은 큰 입은 예나 다름없이 앳되어 보인다.

웃으면 얼굴에 입박에 남지 않는다.

《다음 차 타지머…》

《어서 오시우. 볼 일 있어 그래요.》

옛 전우, 시운수련합총국의 책임사령을 하다가 몇해전에 년로보장으로 들어 앉았는데 무슨 일로 다시 차를 탔을까? 지난 설날에도 술병 차고 와서 축배 한잔 같이 들고 《만약 전선에서…》를 한바탕 부르고 갔지…

《아직도 표장표장선비님 그대로군요. 오라요.》

미안쩍게 올라 서는 나에게 하는 소리다.

《그렇게 아니라… 그런데 웬 일이야. 다시 직장가나?》

전에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작업복차림으로 온 시내를 동분서주하는 정근이를 가끔 만나곤 하였었다.

《그러문요. 이 뺄스를 뒤흔고 집에 엎더 있을 재간 있어야지요. 허허허…》

큰 입이 귀밑까지 찌지게 웃으면서 변속지레대가 한데 붙어 있는 현대적인 조향간을 탕탕 두드린다. 함께 웃었다. 웃음도 그대로 성미도 그대로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없는 사랑스러운 《동생》, 나의 옛 전우다. 나와 그는 겨우 네살 터울인데 아직도 그는 나를 깡듯이 형님으로 존대한다.

《인사해라. 이 선생님은 글쟁이인데 전쟁땀 나의 전우였지. 그땐 같은 운전자-수송전사였구, 아예 여기서 교대하자.》

정근이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애어린 청년에게 이런 소리를 하며 운전석을 내주고 내옆에 와 앉는다.

그는 나를 글쟁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직업이 기자와 작가생활을 겸하고 있어서 어느쪽으로 찍어부를지 복잡하다며 그렇게 부른다. 나도 그렇게 불러 주는게 친근스러워 더 좋다.

《내 교대운전합니다. 햇내기지만 발신성 있어요. 청년영웅도로건설 나갔다 운전기술까지 배우고… 이제 한 정류소 가서 내립세다. 꼭 할 얘기

있는데 일 없겠지요. 일요일이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사이 없이 뺄스가 떠나자 정근이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아-아- 출발 그렇게 떼면 안된다는데… 보라구. 손님들이 뒤로 자빠지지 않아? 알릴듯말듯 처녀손목 잡듯이, 음,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에 지그시…》

《차, 내가 언제 처녀손목을 잡아 보기라두 했나요? 그러구 선 손님들은 떠날 때 좀 들춰 줘야 자리가 잡혀서 편안해 진다구들 한단는데…》

젊은 운전사는 두덜거린다.

《야, 그건 밀구 당기구 오구탕치던 옛날 얘기다. 요즘 선 사람이 많이 된다구 자갈돌 들추듯 들춰서 자리 잡는다는거야. 청년영웅도로에서 짐차 몰던 버릇 똑 떼야겠다. 야 야. 저 로타리 한번 미끈하게 돌아 봐… 속도만 조절해선 안돼. 계란 옆대기모양으로 곡선을 완완하게 잡아 가지구선…》

나는 정근이 무엇때문에 년로보장을 그만 두고 극성스레 뺄스를 따라 다니는지 그까닭이 비슷이 짐작되어 웃음을 지었다.

《뒤편방 만났네… 내가 뭐 제 손잔가. 이 녀석 저 녀석…》

《요 발가라진 녀석아. 어디서 그따위 소릴 벌써 배워 가지구… 오, 오, 잘 꺾었다. 됐어.》

노상 두덜거리면서도 젊은 운전사는 시키는대로 하느라고 눈을 부릅뜨고 땀을 흘린다.

벌써 반 세기가 지났구나! 정근이의 센 머리를 바라보니 새삼스레 감회가 깊어 진다.

처음 만난것은 50년도 10월 초였다. 수도에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던무렵 내가 근무하던 조국보위후원회에서 소개조직 되었고 나에게 몇동무와 함께 선발대로 떠나 후보지를 잡아 놓을 임무가 떨어 졌었다.

나는 거절하였다. 전선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1국백 네거리에 세워 놓은 조선지도게시판에 공화국기발이 하루 한뼘씩 남으로 진격하여 이제는 남은 공간이 한뼘밖에 안되는데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수십차례 투정질하였지만 민간군사기관의 정복도 군복은 군복이다. 군사위원회 명령위반이다라는 한마디로 매번 가차없이 잘리웠다.

스무살 시퍼런 청년이 부산이 해방될 때까지 후방에서 군대초모사업이요, 군기헌납금운동이요 하고 뛰어 다니다가 서울거리엔 먼저 달려 가 만세를 부른단 말인가?

석달동안 불이 부어 불탄과 초조로 지도만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것이다. 이때야 말로 땅크를 타고 달려 가 38선을 넘어 오는 미국놈들과 사생결단날 날이 오지 않았는가!

《정 그렇다면… 하지만 동무는 며칠후 구역당에 가서 입당심의를 받아야 할텐데…》

위원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렇다, 사흘후에 구역당에 가서 입당심의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출장지에서 돌아 와 대기중이였다.

《미국놈을 쫓아 대고 와서 당원증을 받아두 되지 않습니까? 한두달 늦었다구 뭐...》

《한두달이라니?... 어쨌건... 그렇기야 하지만...》

의미 있는 어정쩡한 대답이였으나 그것을 감득할 겨를도 없이 환성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종로인민학교에 자리 잡은 군사동원부에 갔는데 거기서 정근이를 만났다.

《저... 군대형님.》

신체검사 받는 줄에 서 있는데 등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나는 동생이 없으므로 돌아 보지도 않았으나 이번에는 옷소매를 당기며 같은 소리를 한다. 돌아다 보니 열너댓살쯤 되는 애송이 소년이다. 나는 눈만 꺾어버린다.

《형님은 <조국보위후원회>지요?》

《그렇다.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우리 학교 선전사업 나왔겠지 않나요.》

나는 그의 손에 벗어 천 《고중》모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형님두 여기서 신체검사 하나요?》

인상까지 좋아서 대답은 해야겠는데 무슨 뼈꾸기소린지 알수가 없다.

《그렇다. 우린 <조국보위>니까.》

《후원회》라는 기관명까지 뽑아 버린 건승대답이였다.

《그래두 우리 학교 나왔을 땐 요기애다 죄꼬만 전장 단 군복 입고 조국보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다, 군대에 나가자, 비행기, 탱크 기금을 바치자. 이런 선전하지 않았나요?》

학생복깃에 평장을 그려 보이고 명민하게 생긴 눈으로 말뚱말뚱 쳐다보며 하는 소리가 제법 여물었다.

《너 몇살이나?》

《예에?!...》 놀라며 굳어 지는 표정이다.

나는 허허 웃으며 말해 보라고 하였다.

《사실은 나이와 체중, 키때문에 여러번 퇴짜 맞아서 형님 도움 좀 받자구 그래요.》

나이는 한살밖에 속이지 않았지만 체중과 키가 다 모자라는데다가 생겨 먹길 또 애송이같이 생겨서 두번이나 퇴짜 맞았다는것, 이번엔 뽕뜨밀 사타구니에 납덩어리를 찔더니 체중은 비슷한데 키는 속일수 없다는것, 신발 뒤꿈치에 노트를 찢어 고이고 뒤편치 높였지만 키 짤 때 신발 벗어라 하면 야단이라 등등 들을수록 내 동생일같이 아츠러워 동정하지 않을수 없다. 다행히 그날 입대심사를 말고 나온 군관은 평소애 사업상 관계로 안면이나 있는 소좌였다.

《걱정 말라구. 내 좀 도와 줄테니...》

《고마와요. 형님! 그런데 꼭 탱크부대 가도록

좀...》

《그렇게 해보자. 자신은 없지만 나두 그런 부대에 갈 작정이니까. 허허허.》

《데거!》

환성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좋아. 좋아. 기계화부대에 보내주지!》하는 소좌의 쾌담까지 받고 입대하였으며 형제가 되였다.

나의 배낭에는 일기책 두권이 있고 그의 배낭에는 조기천의 《백두산》이 있었다. 그날 밤으로 새로 편성되였다는 《기계화부대》에 배치된 우리 립시중대는 본부대를 찾아 평양을 떠났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후퇴의 길로 이어 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군복도 못 입고 군인선서도 하지 않은 《잠뱅이》신병중대가 개천에 있다는 본부대주둔지에서 허탕치고 그대로 목상하여 압록강가에 당도하여 본부대를 만난것은 11월 중순, 거기서 구련성벽돌공장 가마에 병실을 꾸린 우리는 자고 난 새벽에는 그을음이 올라 흑인처럼 되어 가지고 한달은 훈련하였는데 기계화부대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동차운전사를 양성하는 운수교도련대였다. 8천명 신병대원이 한달동안 훈련한 결과 먼저 시험에서 150명이 합격되어 재진공하는 전선부대의 뒤를 보급하는 수송련대에 배치되였는데 그때 우리 《형제》도 선발되였다. 그리고 서울과 시벌리 등 전선서부와 중부으로 포탄과 식량, 피복 등을 수송하였다.

가루개고개에 올라 섰을 때 정근이는 고중학생모자를 벗어 천 주먹을 높이 쳐들고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기다리라. 탱크를 몰아 미국놈을 쏘어 내고 돌아 오리라.》

애된 얼굴, 귀밑까지 째여 지는 큰 입에 웃음이 피어 있었지만 별같이 타는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그 웃음, 그 눈물에 포근한 정이 들었다. 지금도 가끔 그를 보면 어찌하여 저 녀석이 작가가 되질 않고 나와 자리를 바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옥류교 네거리다.

《속도 늦추라.》

정근이의 계속되는 잔소리.

《통과신혼데...》

《그래도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해야 할게 아닌가.》

《이건 정말 서캐 쓸겠네...》

두덜거리면서도 답판에서 발을 뺀다.

바로 저기였지.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정근이를 다시 만난곳은... 추억 이 새록새록하다.

정진 이듬해 백과부돌집자리에 출판사가 있을 때 종로정류소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화물자동차가와서 멎었다. 아직 얼룩덜룩한 전쟁때 위장도

색을 벗지 못한 《지스》차에 풍을 씌우고 보대풍 무늬에 나무사다리를 걸어 놓았다. 그때도 운전 칸문이 덜컥 열리고 《형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튀어 나왔다.

색 날은 군복, 가슴에 락장 3개, 한달전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차와 함께 제대되어 평양시 빠스사업소에 배치되었다. 땀한 빠스들이 기차에 실려 지금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여 바이칼호 근방에 닿았는데 이제 인차 이 얼룩이 《지스》와 작별하게 된다던지, 하지만 자기는 얼룩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큰 입을 벌리고 웃던 정근이...

재진공하여 몇달만에 군관으로 재발된 나는 정근이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정치부에서 복무하다가 52년도에 제대되어 대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세월도 참...그때부터 오늘까지 정근이는 변함없이 수도의 러객운수에 복무한다.

그러나 자그마하고 애된 사나이 정근이의 70평생은 평양시 러객운수력사를 안고 있다.

어쩐지 밀물 같은 감개무량이 가슴에 차오른다.

련광정, 력사박물관을 지나 종점에 닿았다.

《그럼 수고해라. 형님, 내립세다.》

정근이 일어 서며 하는 소리다.

《책임운전사동지, 오늘은 점수 안 매겨 주고 갑니까?》

젊은 운전사가 덧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소리친다. 《오늘은 만점이다. 4.5다.》

《데거. 만점이라면서 4.5야요?》

젊은 운전사는 볼 부은 소리를 했으나 얼굴은 흡족한 표정이다.

《너 이 차가 무슨 차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지요.》

《바로 그거야. 출발할 땐 덜컹하여 승객들을 놀래웠기때문에 공점 주자고 했는데 로타리는 미끈하게 돌았기에 0.5만 따낸거다. 명심해. 어떤 차를 모는가를!》

《알았습니다.》

젊은 운전사는 벅글거리며 대답한다.

정근이도 통쾌한 웃음을 남기며 내려 서고 나도 그뒤를 따랐다.

0.5삭감리유를 밝히는 정근이의 유쾌한 대답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나의 가슴을 찡 울린다.

《그래 임자가 이 차를 맡았나?》

《말기야 뭐, 조수격이지요.》

《조수라니? 방금 그 젊은 운전사가 <책임운전사>동지라고 하지 않았나?》

《허허허, 그 녀석이 익살을 부리는게지요. 공로보조원을 누가 책임운전사로 비준해 줘니까. 이차, 저차 옮겨 타면서 젊은 녀석들 신발이나 바로 신겨 주는 조수노릇할 작정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어느덧 낚시군들이 줄 지어 앉아있고 저녁노을 곱게 젖은 물결이 출렁출렁 기슭을치는 대동강유보도로 내려 선다.

《저 후퇴때 문화부중대장 말이요, 생각나시우? 앞의 <문화부>는 빼버리구 중대장이라고만 불렀던 나팔쟁이 말이요.》하고 정근이 느닷없이 묻는다.

《아, 장운룡중대장말이야? 생각나구 말구. 어떻게 뻘었다나? 무슨 기별이라도 들었나?》

《기별이 아니라 만나봤지요.》

《만나다니?...》

장운룡의 더부죽한 큰 얼굴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200명의 《잠뱅이》신입대원들속에 군복 입고 무장 가진 진짜 군인은 두명이 있었는데 중위전장을 단 장운룡부중대장과 상사전장을 단 부소대장 한명이였다.

성미도 생김대로 통이 크고 소탈한 열정가였다. 개천에서 본부대를 만나지 못하게 된 이튿날 밤에 나를 불렀다.

《동무를 정치상학 부교원으로 임명하오. 내가 교원이긴 하지만 나팔은 종일이라도 불수 있는데 글 쓰는건 캄캄이요. 그러니 도와주요.》

이렇게 되어 군인선서도 못한 《잠뱅이》신대원이 편제에 없는 부교원이 되어 어느 부락에선가 최고사령관동지의 10월 10일 방송연설이 실린 도일보 한장을 얻어 가지고 행군길 틈틈이 제강을 짚으며 정치상학교원인 부중대장은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제강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이 제소리로 강의를 하여는데 격식적인 제강내용보다 훨씬 생활적이고 생동하였다.

아직은 사민이던 우리는 《문화부》라는 세 글자는 떼여 버리고 중대장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중대장 없는 부중대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주야로 쏘아 지는 폭탄과 나팔탄, 기총소사와 락하산강습부대 등으로 불바다를 이룬 천리후퇴의 길을 《잠뱅이》신입병사 200명이 한사람의 락오자와 탈주병도 없이 뚫고 나가게 한것은 제강보다 부중대장의 나팔소리였다. 행군을 시작하여 얼마간 걸으면 200명 대원들이 5리나 되게 늘어 서서 절록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대장은 배낭속에서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트럼베트를 꺼내서 분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조국보위의 노래》, 《땅크병의 노래》... 마지막에는 《노들강변》, 《도라지타령》에 이르기까지 청청한 나팔소리가 끝없이 이어 진다.

그러면 어느사이 대오는 모여 들어 저벅저벅 보조를 맞춰 노래 부르며 행진한다.

정근이의 뚱뚱하게 잘 울리는 고음이 언제나

나팔소리에 맞추어 선창을 댄다. 아, 보고싶은 중대장.

《전번 일요일날 저녁 역전에서 전화를 걸어 왔더군요.》

《전화?... 그러니 이미 입자하군 거래가 있는거로군.》

《그럼요. <금방 내렸네. 집을 어떻게 찾아 간다?> 하기에 <역전 인쇄공장근방에 뺄스정류소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 런못동행 삼천리 금수강산을 타시우.> <뭐, 삼천리 금수강산? 그걸 어떻게 타. 룡담 아니야.> <요새 들어 온 새 뺄스, 그러루한 글 써붙인 뺄스들이 있어요. 타고 10분이면 우리 집에 옵니다. 정류소에서 기다리겠수다.> <그그래. 참 별난 뺄스로구만. 몇해만에 왔더니 촌놈 댔군...>》

정근이 하하 웃었다. 눈앞에 장운룡의 얼굴이 선하다.

《머느리한테 맥주도 받아 오고 저녁차비 잘하러 이르고 정류소에 나갔는데 글썽 이 량반에 와 주어야지요. 한시간, 한시간반, 그동안 뺄스는 몇십대 지나갔는데 어떻게 된거야... 제길 무슨 사고난게 아냐? 조바심하는데 그때에야 들어 온 파란 <금수강산>에서 싱글벙글하며 내리더군요.》

《대체 어떻게 댔나?》

《내 터무니 없어서... <왜 늦었소?> 물으니까 <뺄때거리 좀 소풍하고 오는 길일세.> <뺄때거리라니?> 나는 눈이 쾅해 졌지요. 그답에야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시킨대로 정류소에서 기다렸지만. 연방 뺄스는 들이 닥치는데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강성대국>... 이러루한것들뿐이고 <금수강산>은 안 보이더라지 않소. 아무거나 탈가 하다가 아차, 전에는 한로선에 ①, ②, ③번호를 달아 정류소를 구분하였는데 지금은 저런 시 같은 글을 새겨 분간하는가 보군. 그저 참 멋들어 지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거 아니우. 나 참...》

정근이 쓰겁게 웃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건너편 정류소에 2층뺄스가 와닿더래요. 그러지 않아도 가끔 지나가는 그 희한한 2층뺄스를 타보고 싶어 몸살 나더렸는데 예라 이젠 내막을 알았으니 저 뺄스를 먼저 한번 타고 돌아 와서 정근이네 집엘 가자, 이런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지 않소.》

《저런 변이라구야! 그게 어디 가는 뺄스제?》

《<뺄때거리>지요. 2층에 올라 앉아 신선놀음으로 광복거리소풍을 하고 왔다는게 아니겠소. 하아, 하아, 하아...》

정근이 양천대소를 한다.

《결작이야. ①, ②, ③번이란 말이지, 허허허...》 눈곱에서 눈물이 새어 나온다.

《중대장이 아직 계시우?》

《웬걸요. 그 이튿날 떠나갔시다.》

《그런 법 있나.》

《형님 만나겠다기에 직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함흥지구에 참관 갔다는게 아니겠소.》

《사흘쯤 기다리면 될걸. 붙잡아 둘게지.》

《사흘이 뭐요, 이튿날 일 보고 밤차로 돌아 갔는데 인차 또 오겠대요.》

《무슨 일이게 그리 바빠? 이젠 일흔댓 댔을텐데.》

《농장에서 쓸 컴퓨터부속 사가지고 부랴부랴 돌아 왔어요.》

《컴퓨터부속이라니?》 기상천외한 일이다.

《장군님께서 정보산업화방침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농장에 컴퓨터실을 꾸리는데 한개 더 갖추어야 할 무슨 프로그램이라던데... 필지별로 적기적작이니, 적지적작이니 하면서 프로그램소리를 하는데 당일군 아니라 꼭 학자 같더라니카요.》

《흐음, 거 대단하군.》

《내가 주선했잖나.》

《잘했구만. 칠십 가까운 령감이 아직도 당의 의도를 침단수준에서 정통으로 받들고 살아 가누만! 우리 련대 3천명이 집결하여 후퇴총화할 때 압록강기슭까지 다 와서 <태극기>를 그려 가지고 도망치려던 놈들 2명을 붙잡아 쏘아 제쳤지만 우리 <잠병이>중대는 한사람도 배신자없이 도착하여 군복을 입고 군인선서를 한게 다 중대장이 한달동안 선두에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불러준 덕분이야. 그렇잖아?》

《예. 정말 지금두 나팔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는것 같소.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것 같지 않은 나팔소리...》

정근이의 눈빛은 감개무량에 젖어 습벅거린다.

우리는 황혼이 비껴 내리는 대동강유보도를 걷고 있다. 노을에 물든 잔 물결이 기슭에 가득차 출렁거리고 있다. 물결처럼 가슴에 가득해 지는 뜨거운것, 그것을 뭐이라고 표현해야 할가...

중대장은 제대되어 고향에 가서 리당비서를 했지.

《지금도 리당 공로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취주악단 고문까지 한다우.》

옥류교우로 1층, 2층 새 뺄스들이 연줄연줄 건너 가고 있었다. 가끔 석양빛이 뺄스유리창에 부딪쳐 금빛으로 부서 진다.

《저 뺄스가 시내 교통문제를 완전히 풀어 버렸어!》

《그러문요. 괴양시민들이 끄는 5복의 첫째가 뭔지 아시우?》

《뭔가?》

《직장 가까운 주택에 사는것...》

《허허. 그래. 그런 소리들을 했지. 교통이 복잡하니까. 수령님께서 무궤도, 지하철도, 궤도를 제

속 확장해 주셨지만 워낙 인구가 급증하는데다 도시구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니까 당해 낼수 있어 야지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멀어도 타면 15분, 우리 장군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았나!》

《장군님께서 지금의 청년영웅도로를 구상하실 때 고속도로지만 량견에 인도가 달린 시내도로처럼 설계하도록 하셨지요. 그때 벌써 수도가 남포와 이어질걸 내다보시고.》

《아, 그래! 정말 저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면 어쩔번 했나?》

《이젠 시내주민들이 앞을 다투어 거기 교외구역으로 이사 나갈게요.》

《그렇지.》

《출퇴근은 30분이면 넉근, 공기는 좋지. 일요일엔 들에 나가 터밭, 과일나무도 가꾸고 강에 나가 낚시대도 드리우고. 땀때때 시내에서 살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장군님께서 구상하신거 아니나요.》

《<삼천리>가 정말 까맣게 멀어 보이던 미래를 한순간에 눈앞에다 넉넉 옮겨 놓은것 같구만.》

《표현이 비슷해요. 역시 글쟁이형님이 다르군!》

《나는 유럽의 큰 도시들을 방문한적 있었는데 길 건너편 구역에 있는 호텔까지 가는데도 보통 30분, 1시간씩 걸리더군.》

《왜 그렇소? 걸었던가요.》

《아아니, 걸으면 10분쯤 걸릴까? 땀뻘 뻘 벤젠데 글썽 가기만 하는 길을 거쳐 오기만 하는 길을 에돌아 10선짜리 오고 가는 대동로에 나섰다가 다시 오기만 하는 길과 가기만 하는 길을 에돌다 보니 그렇게 됐지.》

《게다가 승용차요, 뭐요 하는 각종 차량이 길을 꼭 메웠지요?》

《그렇구말구. 꿈무늬를 바짝 마주 대고 비비지. 호텔에 들어 가 창문을 열고 굽어 보니까 떠나온 작가회관이 큰길 건너편 코앞에 우뚝 서 있더라니까. 허허허.》

《빌어먹을, 잘 사는 놈들 세상이니까 승용차가 딱장벌레무리 덮이듯 깔려 길을 막아 버렸으니 그 꼴이지요. 우리 나라가 뭐 가난해서 승용차대수가 적은줄 압니까?》

정근이의 달아 오른 얼굴은 묻는 표정이 아니어서 나는 고개만 끄덕이었다. 우리는 비어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승용차대수는 계속 줄이고 대중수송수단을 부단히 늘이는것, 공기오염 없고 소음공해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궤도, 궤도전차, 지하철도를 위주로 시내교통망을 그물처럼 확대하는것이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입니다. 정전직후 전선수송화물차에 풍을 쐬우고 시작하여 수도교통망의 주선을 이루었던 내연기관 뺄스로선들이 해마다 줄어 들어 시내에는 록음

이 우거지고 공기도 더욱 시원해 지고, 그래서 가로수 푸른 숲속에 께꼬리, 밀화부리 새들이 울고 한낮에 엄지뿔이 새끼행렬을 이끌고 꺾 꺾 아스팔트대통로를 건너 달려 가고… 그때문에 교통보안원이 정지신호를 오래 들고 있어서 옥류교네 거리에 차가 몰켜어 길이 멘적은 있수다만…》

《그래그래, 정말 그런적 있지! 여보게, 임자가 오늘부터 내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게. 임자 뺄스 운전대는 내가 좀 잡아 보세나. 현지체험 검사해서.》

《헤헤헤, 룡담 마시우. 형님이 다 아는 소리인데… 그러나 이것만은 모를거우다.》

《이런 일이 있었수다. 60년대 말이던가 70년대 초던가. 대소한추위뎀데 수령님께서 아침저녁 출퇴근길 정류소들에 긴 줄을 서서 얼어 드는 발을 구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애기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업고 손목 잡고 떠는 모습은 가슴 아파 못보겠다고 걱정하신 교시가 계시지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벽에 깨면 먼저 창문으로 화력발전소 굴뚝부터 살피시고는 그 길로 시내를 한바퀴 돌아 보는것이 습관이시였지요. 어느 날…》 하고 정근이는 주체사상탑 저편에 무엇을 더듬는 듯 물끄러미 바라본다. 대야동두 점점산(큰 벌 동쪽머리에 점점이 널린 산밭이여라는 옛 시구절)에 어설픈게 비친 황혼을 바라본다.

《…수령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사업소전체가 동원되었는데 어느 날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출근시간 나는 어느 한 무궤도정류소에 나가 전차들의 운행속도도 다그치고 줄 지어 선 손님들의 질서도 세우느라고 정신없이 돌아 치는데 한줄에 매달린 전차들이라 어떤 때는 무리지어 혼잡을 이루는가 하면 다른 때는 10분, 20분 한정없이 끊어져서 손님들은 이게 시내전차냐 철도열차냐 아우성소리, 업은 아이는 울고 손목 잡은 아이들은 춥다고 매달리고… 참으로 수라장이였지요.》

나는 전화통에 매달려 사업소 사령실에 육설을 퍼붓느라, 손님들을 달래느라 경황 없다 보니 길 건너 200m 나마 되는 곳에 보통 간부들이 타는 까만 승용차 한대가 와 서 있고 거기서 웬분이 내려 우리쪽을 살피는것도 몰랐습시다. <어느 간부동지가 오신것 같은데…> 내가 데리고 나온 사업소 일꾼 한사람이 귀땀해 주었으나 나는 말을 떼지 않았습시다. 아직 어스름속인데다가 멀어서 누군지 가늠할수 없었기때문이였지요. 그런데 또 한대가 먼저 와 있는 큰 차의 뒤에 대이더니 먼저 분과 잠시 마주 섰다가 성큼성큼 길을 건너 오시였습니다. 곧장 손님줄 맨앞에 와서 <아기어머니들은 날 따라 오십시오.> 하시고는 여러명의 애기어머니들을 데리고 가시더니 두 승용차에 분승시키고 차를 떠나보내엿습시다.

<수령님이시다!>, <지도자동지이시다!> 군중속

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 났습니다. 차는 떠나갔는데 두분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가 가버린 쪽으로 함께 걸어가 고 계시었습니다. 달려 가려던 나도, 손님들도 굳 어 진 돌처럼 말 한마디없이 어스름속으로 벌 어져 가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바라울뿐이었습니다. 오늘 <삼천리...>를 볼 때마다 그때의 일이 눈앞에 떠올라 그만 왈각...》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말았다. 정근이의 몸에 가는 두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다. 석양빛이 돼서 그런지 연한 피눈물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후에 한선에 매달린 정류소를 ①, ②, ③으로 가르는 대책이 나왔구만...》

얼마후에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그래요, 장군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었수다. 그 리고 오늘은 그이께서 단번에 수백대 <삼천리 금

수강산>을 도입함으로써 수령님의 유산인 무계도, 계도, 지하의 무공해 대중교통수단들의 기능을 배로 높임으로써 수백만 대도시의 교통망수준을 일시에 해결하시었수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진대 장군님께서야 얼마나 ... 수령님께서 잠시라도 저 <삼천리...>를 보아 주시기를...》

나는 목이 메여 말을 잊지 못하였다. 말 없는 두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소망, 남겨 놓으신 유훈과 유산은 계승되고 더높이, 더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비로소 현실적인 실감으로 안겨오고 있었다.

주체 90. 7. 15

메기공장 연구사

1

우리 집 어린 손자들은 동네 아이들에게 《우리 할아버진 뭐이나 다 아는 박사다.》라고 자랑한다. 《체-〈척척박사〉만 하니?》 아이들이 반박하면 《〈척척박사〉가 다 뭐야. 우리 할아버진 이런 책 데깅데깅 써내는데!》라고 으시대면서 작은 손가락을 한껏 퍼 책두께를 자랑한다. 책 한권을 가을 남새밭에서 무우 뽑듯 하는줄 아는 모양이라 나는 허허 어이 없는 웃음을 웃을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바로 그 손자들중 내가 가장 귀여워 하는 막내이손녀의 《도발》에 걸려 줄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박사로 굴러 떨어 지고 말았다.

손녀가 곁에 왔다.

《할아버지, 검열...》

봄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인민학교에 올라 갔는데 무슨 검열인지는 보지 않아도 안다. 숙제장을 보고 수표하라는것이다.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싶고...

《할아버지 바쁘다. 할머니한테 봐달라라.》

《싫어.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름만 있으면 보지도 았구 5점하구 줄 두개나 쪽쪽 거주는데 씨-》

할수 없다. 《할아버지 봤습니다.》하고 수표를 해서 돌려 주었다.

《그런데 요건 고쳐라. 양어장이 아니라 <공장>이라고 써야 하니라.》

《듬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짧은글짓기인데 점심때 학교에서 양어장 메기를 실어다 국을 끓여주어 맛 있게 듬뿍 잘 먹었다고 썼다.

《체, 공장? 선생님이 물고기 기르는덴 양어장이라고 했어.》

《아니다. 잉어랑 붕어는 양어장에서 기르지만

메기는 공장에서 기른다.》

《체, 할아버진 것두 모르나. 공장에선 프락푼을 만들어!》

단호하다. 이걸 어떻게 납득시킨단 말인가? 공업적설비로써 흐름선을 갖추고 계열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양어공장을... 나는 입을 못 벌리는데 부엌에서 제 할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 온다.

《연이야, 메기도 프락푼공장만큼 큰데서 프락푼처럼 많이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메기공장이 라고 하는거야.》

너무 단순하지만 명쾌한 명답이다.

《그렇겠구나! 엄마가 할아버진 뭐나 다 아시는 박사라고 했는데 가짜로구나. 할머니가 진짜박사...》

이리하여 나는 줄지에 가짜박사가 되고 말았다. 좀 가혹하고 억울하다.

허나 그날 밤 텔레비전 마지막프로 련속소실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을 때 《가짜박사》의 정체는 여지 없는 수자적자료로써 확증되었다. 새 품종 메기맛이 어떻드냐 하는 화제가 나와 저마끔 맛이 좋다는것은 의견일치지만 진미가 무엇이나 하는데선 논쟁이 붙어 갑론을박으로 마지막에는 나에게 결론권이 돌아 왔다. 하지만 나는 어찌랴. 먹어 보지 못했으니 머물거리는수밖에 없었다. 《론쟁》 자료를 종합해 보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6번이나 먹어 본 손녀가 최고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너번씩 되고 로친네까지도 동네로친들과 함께 메기탕집에 두번씩이나 다녀 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저기 참관을 가서 몇번 그림의 떡으로 구경한것이 고작이다. 가짜박사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에그, 진작 말씀하시지요. 그 전번 메기탕집

갔을때 한그릇 받아 가지고라도 올걸.》

그래도 내 로친이 로친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어 고맙다. 그런데 아들놈이 룡담 같지만 정색한 빛으로 한마디 보렸다.

《그래도 아버지 벌써 40년전에 수령님의 양어 사상을 받들고 좋은 소설 써서 호평을 받은 작가이고 기자인데 지금 온 세상에 메기바람 들쭉날쭉 때에 어서 잡썰도 보시고 취재도 하여서 글 한편 쯤 쓰셔야지...》 제법 엄숙한 훈계다.

나는 뼈꼭소리 한마디 못했다. 7명식구중에 먹어도 못 본것은 나 혼자뿐이 아니냐.

밤중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앙양불락, 어쩐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민물고기때문에 봉변을 당하다니... 메기 맛조차 모르는 가짜박사로... 그래도 마음은 흡족하여 잠꼬대처럼 허허 웃는다.

낚시질도 낚고이고 민물고기기도 좋아 한다. 실상 나는 땅우에서 사는 짐승고기보다 물에 사는 물고기류, 그중에서도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파워 담수어가 기호품이다. 더군다나 메기와는 내 한생에 류다른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정전되는 해 대학생시절 파피된 위장으로 하여 죽도 못 넘기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강서약수터에 가서 열흘 동안 약수와 함께 메기탕을 먹고 살아 난 사람이다. 때마침 가을철이라 개울 건너 기양장마당에 살찐 메기, 붕어 따위가 장마당아낙네들의 함박속에서 물장구치며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매일 그것을 사다가 끓여 먹었더니 위병은 푹 떨어지고 가족만 불어 있던 얼굴도 불깃불깃 살이 올랐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의 승리거리복구건설장에 동원되었던 동무들에게로 달려 가 흠이 묵직하게 실린 목도리를 메고 남 못지 않게 달릴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에 들어 온 새 품종 메기만은 못 먹어 보았다.

낚시질로 말한다면 14살적 두만강기슭에서 살 때 샅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실토리에서 실을 풀어 대어섯겹 굵은 오라기를 꼬아 대막대기끝에 늘이고 역시 어머니의 바늘을 훑쳐 휘이고 민지를 세워 《소든》한 다음 줄끝에 매고 두만강에 나가 드리운것이 시작이다. 흙탕인데다가 세차게 흐르는 물이어서 감부기도 세우지 못하고 대를 쥔 손집작으로 채는 낚시질이었으나 그런 물에서는 고기 역시 둔감인지 잘 물렸다. 뽕가웃이 되는 모래무치가 기본이다. 간혹 팔뚝같은 눈 먼 송어도 걸렸다. 모래무치맛은 누구나 다 안다. 꾸둑꾸둑 마를 때 구워 먹는 맛은 천하절미이다. 평양에서는 봄, 여름에는 붕어낚시질, 가을에는 하당, 보통강 줄기에 가서 메기낚시질이 전업이었다. 맥전나루 여울터에 가서는 무릎치는 물목에 채양 넓은 고깔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 쓰고 들어 서는데 손에는 얼레낚시대. 허리에는 긴 다래끼, 가슴에는 보리 삶은 미끼통, 지렁이 담은 미끼통 두개를 걸

고 수백미터 긴 줄을 여울을 따라 풀었다 당겼다 얼레질을 하다가 화닥닥 매달리는 누치, 마자를 끌어올리는 쾌감은 금도 온 몸에 짜릿짜릿 전류처럼 남아 있다. 선배 로작가 한분이 중병에 걸려 누웠을 때 문병을 갔더니 일요일날 우산장에서 우리들이 붕어, 메기 따위를 낚아다 쪼고추터쳐 넣고 끓여 준 어죽을 맛 있게 먹던 일을 회상하면서 《여보, 그걸 한사발 마시구 나면 입이 훌 날아 나는것 같더랑이!》라고 하였었다.

이렇게 담수어들과 남 다른 친분이 있었던 탓인지 전후 50년대 말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는 강하천도 많고 논도 많아 저수지와 수로가 그물처럼 덮였는데 도처에서 양어를 하여 인민들이 신선한 담수어를 많이 먹도록 하라는 교시가 계셨을 때 소설 한편을 써서 독자들의 과분한 호평도 받았었다. 하지만 그때 그 소설은 부업식, 말하자면 《중세기적》 양어수준이었다. 지금은 부업이 아니라 식생활주업의 하나로 세워 졌다.

40년이 지나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유훈을 이룩하고자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로고에 찬진두지휘로 대규모적인 현대화, 공업화의 양어선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뭘하고 앉아 있단 말인가!

몇해전 장군님께서 수백정보규모의 대양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다 여기에 작가들이 와보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하시어 참관한적이 있는데 10리 넘게 펼쳐진 긴 골짜기바닥에 바둑판같이 펼쳐진 양어장에는 찬물고기, 칠색송어로부터 붕어, 잉어, 메기 같은 더운물고기들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어종별로 나뉘여 알개우기, 어린 고기, 큰 고기, 비육서식장 등 양식단계를 갈라 말 그대로 공장처럼 흐름식공정으로 정연하게 전개되어 있었다.

1년에 500톤, 50만키로그램 물고기가 평양시락아소, 유치원에 공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맛 좋은 칠색송어 회갓과 튀기까지 먹고 와서 쓴것이 겨우 몇장 안되는 전설 한편이었다. 지금은 장군님께서 온천이며 화력발전소며 더운물이 많은 우리 나라에 맛 좋고 생산성 높은 최우량종 메기를 손수 구해 들이며 말 그대로 공업화, 컴퓨터화한 메기공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계시는데 이때야말로 일생일대를 걸고 우리 나라 현대양어공업창시에 대한 글 한편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워 있는 이불밑에 불이 달린 심정이다. 손녀한테 골탕 먹어도 짜지...

그런데 바로 이봄날에 런던아 메기《소동》이 벌어진것이다. 하기는 《소동》이 아니라 《행운》이지만...

2

창가에 저녁컨 엷어 진 해빛이 비껴 들고 자주

울던 전화종소리도 뜨음해 저 하루일이 끝나가는
조용한 사무실에 갑자기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
렸다.

《나 름운입니다.》

《હે. 뭘 그렇게 틀을 차립니까?》

챙챙한 정근이의 목소리다.

《아. 임잔가.》

《퇴근 안하시우? 7시가 넘었는데.》

《왜 그러나?》

《메사니 왔시요!》

《메사나라니, 누가?...》

《좀 가만 있으라요. 판매원동무, 갑니다. 가요.
...》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고 나서
계속 한다. 《메사니 급해 그러는데 하여튼 걸씨
퇴근하시우. 종점에서 기다리겠소. ...<수산물>있
는데서 말이웨다. 아, 갑니다. 가요!...》

몹시 덤빈다. 수화기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
는 소리도 들린다. 공중전화인지?...

《누가 왔다는거야?... 종점이라니 그건 또 어느
종점인지. 콩을 닭아 먹나, 덤비긴...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전화는 이미 끊
어졌다. 수화기를 든채 한동안 어안이 빙빙하였
다. 북청내기도 아니고 평양토배기, 그것도 룡라
도 채마농사군 아들인데 덤빌 때 보면 도무지 늘
어 진 농사군다운데라고는 꼬물도 없고 북청사람
울고 가겠다. 저런 성미에 평생 자동차는 어떻게
몰고 수도의 수천대 빠스를 거느리는 책임배차사
령은 도대체 어떻게 앉아서 해먹었는지? ... 누군
가 반가운 사람이 온것 같은데 월매가 감옥에 갇
힌 딸 춘향에게 거지된 리도령이 온것을 차마 찍
어 밝히지 못하고 그저 왔다, 왔어 하는 격이니
도대체 누가 왔는지 짐작도 안 가거니와 종점
에서 기다린다는것은 무엇이고 수산물이라는건 또
무슨 소린가? 암호풀이수자 같은 낱말들을 놓고
아무리 뒤집어 맞추어도 추리가 서지 않는다. 다
만 수산물이요, 뭘요 하는것이 어느 수산물상점
이나 그 근방에서 공중전화를 쓴 모양인데 그 역
시 무슨 까닭인지 묘연한 수수께끼뿐이다.

어쨌든 정류소에서 기다린다니 가야 했다. 그
런데 어느 정류소? 우리 동네 번두리에는 정류소
만해도 지하철도, 궤도, 무궤도 그리고 신실한
《삼천리 금수강산》까지 네댓개나 있지 않는다.
직장에서 나와 《삼천리-》정류소쪽으로 걸음을 떼
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지하철도역사근방에 있는
수산물상점이었다. 그렇지. 거기서 전화를 건 모
양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 또 의혹이 생겼다.
그 수산물상점이라는게 최근 몇해동안 문 닫겨
있는 날이 많았는데 거기서 무슨 전화를 건단 말
인가? ... 아까 내 차례요, 뭘요 하던걸 보면 물
고기든 뭐든 상점에서 물건 사는 모양 같기도 하
였는데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파는 수산물상점이

란 큰거리건너편직매점밖에 없지 않는가....

종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여서 더욱 조바심이
난다. 그 편리한 《삼천리...》도 탈 생각을 못하고
거리가 먼 지하철역으로 바빠 걸었다. 그 종
점에서 내려 지상에 오르니 지하철역앞에 사람들
이 오락가락 웅성거린다.

그것도 별일이다. 사람들이 분주히 상점문으로
나든다.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얀 반투명의 수
지구력을 들었다.

(혹시 물고기를 파는게 아니야. 명절날도 아닌
데?..)

나는 눈이 등그래 졌다.

맙시 있게 양장한 젊은 여자가 구력을 들고 마
주 온다. 구력안에 든것이 분명 물고기다. 누우런
팔뚝 같은것이 너덧마리 들어 있다.

《상점에서 샀는가요?》

《예, 메깁니다. 메기요.》

노래처럼 대답하고 춤 추듯 걸어 가는 여자의
매끈하게 생긴 다리와 걸음 맞추어 흔들거리는
구력을 나는 놀라게 바라본다.

이거야말로 사변이로군! ...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이 나갔다.

상점에서 저렇게 물고기 팔아 본지가 얼마나
되는가? 간혹 명절날에 공급 받았다는 명태나 가
재미 몇마리를 본적이 있으나 정작 저 상점에서
물고기 파는것을 본 기억은 삭막하다.

매대는 생선만 있으면 1년이라도 보관할만치
랭동장비가 잘된 현대적인것이지만 거의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다.

《메기가 상점에까지 나왔단 말인가!...》

어쩐지 마음속에 힘살 같은것이 뻗치는 느낌이
다. 볼만 하다. 살았는지 얼कु었는지 매대 유리
속에 더미더미 쌓여 있는 소담한 메기들은 저울대
위에 던져 질 때마다 펄떡펄떡 꼬리치며 뒤편이
는것같기만 하다. 이런 일이 있을라구 간밤에 손
녀한테 골탕을 먹었던가!

그런데 정근이는? ...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뒤
돌아 정류소쪽을 살펴 보았으나 그림자도 없다.
이상하다. 그렇게 다급하게 굴더니... 전화에서
메사니를 련발한게 그게 메사구라는 소리가 아니
였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던지지 턱을 쳐들고 상점을
살펴 보는데 누군가 코앞에서 소리친다.

《형님, 뭘 그렇게 왁새 여울목 넘겨다 보듯 하
시우?》

《영?》

바로 눈앞, 상점에서 나온 사람들속에서 체소
한 정근이 끼여 손에 든 수지구력을 흔들며 다가
온다.

《이거 어떻게?》

구력을 쳐들어 보인다. 소담하게 생긴 메기가
대여섯마리. 아까 녀인이 들고 가던 구력과 비슷

하다.

《종구만. ... 군데 아까 메사니 왔다는게 그제야?》

《메사니가 왔다고 했던가. 하하하. 맞았소. 맞아. 이거요. 바로 이거!...》

귀밀이 째여 지게 웃어 제낀다.

《메사구를 따라서 중대장이 왔수다!》

《뭐, 장운룡중대장이?!...》

나는 눈이 커졌다. 갈수록 수수께끼 같은 소리 뿐이다.

《성민아, 와서. 인사해라. 바로 림운선생님이시다!》

정근이 뒤를 돌아 보며 이런 소리를 한다. 체격이 후리후리한 20전후의 청년이 한결음 나서며 공손하게 허리를 깊숙이 숙인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장운룡중대장의 말손입니다.》

정근이 하는 소리에 나는 눈이 둥그래 졌다.

《아니 이런...》

어리둥절한 가운데 청년의 두손목을 잡은 나는 무슨 말을 할지, 가슴만 빠근하고 뜨거울뿐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선생님말씀을 하시고 저도 선생님의 글 나오면 좀 읽곤 하였습니다.》

《고맙다. 원 중대장에게 이런 끝끝한 손주가 있었구만...》

나는 뜻 없는 소리를 하면서 눈만 슴벅거리며 청년의 이목구비를 뜯어 본다. 실한 허우대는 할아버지를 닮았지만 가름한 얼굴은 외탁인지 친탁인지 낮 설다. 하지만 열기와 총기가 밝게 흐르는 쌍가풀진 큰 눈매만은 할아버지를 찍어 옮기였다.

《한데 할아버진 왜 보이지 않나?...》

상점쪽을 두리번거리는데 정근이가 사정을 말한다. 중대장은 과학기술통보사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도중에 내렸는데 인차 온다고 하면서 궁금한 사연이 많겠지만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중대장도 집으로 올것이라는것, 정근이 손에는 메기구력은 우리 집에 팔아 주는 뭇인데 자기가 대신 사왔다는것, 우리 집 로친네한테는 이미 전화로 모든걸 다 약속하였다는것... 이런 소리를 하며 우리는 중대장 손자를 따라 상점뒤길로 돌아 갔다. 뒤마당에 하얀 얼음산으로 깎은 공예품같이 아름다운 열톤짜리 대형랭동차가 서 있었다.

《어서 타십시오. 장군님께서 평양시민공급용으로 쓰라고 보내주신 선물차입니다.》

성민이가 운전칸문을 열며 자랑스럽게 하는 소리였다. 집은 비록 코앞이지만 정근이와 나는 이 멧쟁이 거창한 차에 오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전번에 얘기 들긴대는 중대장의 손자는 무슨 컴퓨터연구사라 하였는데 아직 운전사란 말인가? 또 중대장이 과학기

술통보사에 들렸다는건 무슨 소린가? 어쨌든 그 리운것은 장운룡중대장이었다. 그 모습이 선하다. 스물너댓 쪼디쪼디는 시절의 그의 모습, 종로인민 학교마당에서 200명을 중대로 편성하여 세워 놓고 자기를 소개하던 모습, 옛날 장수 아니면 씨름군같이 우람한 체구, 《입대를 축하합니다. 나는 913교도련대 문화부중대장 장운룡입니다. 동무들을 접수하여 모셔 갈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그 체모와 장운룡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나는 중국소설 《삼국연의》의 관우, 장비, 조자룡의 이름을 합쳐서 빚어 낸 옛 장수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아마도 그 소설을 갓 읽은 탓이었던지... 그리고 《모시고》라는 표현은 사민의 언어 같아 어색한 생각도 들었었다. 그런데 그 우람한 장수 같은 그가 군악대나팔수, 그것도 나팔중에서도 제일 죄꼬만 트럼베트수일줄이야!...

좁은 골목길을 우람찬 동체로 온통 뒤흔들며 달리는 랭동차우에서 정근이 몇마디 더 설명하였다.

오늘 실어 온 열톤은 우리 구역에 공급하는 메기인데 성민이 연구사업에서 걸린 《정보》도 해결할겸해서 오게 되었다는것, 현재 배합사료생산 체계컴퓨터화를 연구하고 있다는것 등 말그대로 나의 궁금한 수수께끼를 풀어 주는 《정보》를 몇가지 보태주었다.

《그렇듯구만!...》

랭동차는 어느덧 집앞에 당도하였다.

3

《할머니, 인사 받으십시오.》

성민이 뚫어 앉아 절을 하자 우리 로친은 당황하는 한편 흡족하고 부드러운 표정이다. 우리 집엔 아직 이렇게 큰 손자가 없을뿐더러 그나마 맨 손녀들이고 고추 단 놈은 외손이어서 대가 끊어진다고 내놓고 말할수 없는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아니, 뭐 이렇게... 에이구 총각이 끝끝도 해라!》

《저 베란다칸 문 활짝 열어 놓고 청량음료라도 차리우.》

나의 지시에 로친은 처녀같이 쉿쉿한 소리로 꼬리 긴 대답을 하면서 나갔다. 32층 높다란 우리 집 베란다는 한눈에 수도를 굽어 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을수 있어 호텔옥상의 전망대식당과 비길수 있다.

성민이 집을 알았으니 지하철역에 나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모셔 오겠다는것을 억지로 붙잡고 그대신 아들을 내보낸 다음 우리 셋은 시원한 바람 선들거리는 베란다칸에 둘러 앉았다. 두리반우에는 맥주안주용 까나리, 말린 조개살 두 접시가 놓여 있고 맥주는 들어 오지 않았다. 성

민이가 들고 온 두툼한 보꾸레미를 내놓았다.

《이건 뭐요?》

《말린 메깁니다. 안주감으로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기른걸 말려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기른단 말ियो?》

《예. 우리 농장에선 집집이 모두 새끼를 받아다가 기르는데 그 사업을 우리 할아버지가 말아서 극성스레 다그쳐 대서 집마다 사오십마리씩 기른답니다. 김장독 두세개면 되니까요.》

《그렇됐구만...》

궁금하던 수수께끼 한모서리가 풀리는것 같다. 정근이 꾸레미를 받아 들고 로친을 부르며 복도로 나갔다.

한동안 덤덤히 앉아 있었다. 50년 묵은 그리움이라 알고싶은 사연이 산갈이 쌓였지만 주인공이 없으니 어느 얘기를 꺼내야 할지? ... 그러는데 정근이 들어 와서 서슴없이 묻는다.

《메기공급은 언제부터 정상인가?》

《예. 글썸...》

《글썸라니?》

《이미 탁아소, 유치원과, 평양메기탕집, 새날메기탕집 등 전문메기식당들과 시내 큰 식당들에는 정상화되었는데 우리 공장에서 주민세대공급은 처음이지요. 오늘 열톤 싣고 들어 오다가 봉어 한톤과 메기 석톤은 유치원에 주고 나머지를 주민세대공급용으로 펼렸습니다.》

《봉어도 생산하나?》

《예.》

내가 묻는 소리에 긍정하는 성민이를 정근이는 의아스럽게 쳐다본다.

《건 왜? 이왕이면 맛 좋은 메기를 몽땅 기를게지.》

《어종을 다양하게 립체적, 흐름식으로 길러야 생산성이 높아 집니다. 메기못에서 나오는 퇴수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퇴수의 온도와 성분에 알맞는 다른 고기를 끼기르면 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은 퇴수에다 봉어, 색잉어따위 온수족물고기들을 기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할아버지를...》 일어 서려는 성민이를 내가 잡았다. 나이는 스무살이지만 보통 틀이 잡힌 전문가가 아니다. 오늘 밤 성민이를 붙잡고 양어제몽을 해야겠다.

《걱정 말고 계속하오. 내 손주 하나 더 내보낼테니...》

이리하여 성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공급정상화의 개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정한 량의 수요품을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 우리 공장의 실패와 전망을 말씀드리면 할아버님들이 스스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불쑥 튀어 나오는 할아버니라는 사투리와 함께

성민의 눈빛에 저으기 열기가 띈다.

《작년도 장군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공장은 현재 200톤 수준인데 래후년쯤이면 천톤으로 올라섭니다.》

《허 그렇게 빨리? 천톤이면 도대체 평양사람 일인당 몇톤인가?》

《여보게, 물고기를 톤으로 사다 먹나, 몇마리씩 사다 먹지.》

성급한 정근이에게 내가 톤을 주었다. 성민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계속 한다.

《아무래도 근본문제를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근본문제라니?》

성근이는 눈이 둥그래 진다. 성민은 너그럽게 웃으며 강의조로 넘어 간다.

《력사적으로 볼 때 양어사업에 대한 구상은 아버지수령님께서 1930년대 항일빨찌산때...》

우리는 놀란다. 나는 무슨 강의가 시작된다는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1930년대에로 뛰어올라 갈줄은 몰랐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원들에게 한몫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주시며 이제 왜놈들과 싸워 이기고 고향에 돌아 가면 평양의 이름난 국수랑 송어탕이랑 맛 있게 먹으며 오늘을 추억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민이의 감동적인 강의를 들을뿐이었다. 해방후 수령님의 구상에 따른 우리 나라 양어력사를 더듬어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아버이수령님의 서거와 더불어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입을 꼭 다물고 굵은 눈물을 툭툭 떨구던 성민은 손수건을 꺼내어 적당히 문지르고 나서 계속하였다.

《...1996년 2월에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메기도 양어한다는데 우린 아직 그런 기술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것 등 수령님의 생전유훈인 양어업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문제로부터 속성비육품종의 메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해 오라는 자세한 가르침을 주시였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 따라 3만마리를 구입하여 실어 오는 도중에 절반, 즉 1만 5천마리를 죽여 버리고 나머지 같은 수량의 메기를 과학원 양어 과학연구소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주어 시험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 나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듬해 1997년 10월에 그 메기 길러 본 정형을 보고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메기양어를 대중적으로 벌리는 투쟁을 힘 있게 벌리는 문제, 국가 과학원아래 동물학연구소와 양어과학연구소에서 종어체제, 엄지메기월동과 알깨우기 등 과학기술 문제를 풀도록 세세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데거!》

정근이의 감탄, 나는 묵묵히 뜨겁게 젖어 드는

망막속에 헤매다 날을 이어 가며 전국 각지 양어장을 돌아 보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떠올리었다.

《…그후 1999년에 주신 말씀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말씀에서 찬물에서는 칠색송어를 기르고 더운물이 있는데서는 메기를 기르는것이 좋다는것과 우리 나라는 온천도 많고 샘물원천도 많기때문에 더운물고기, 찬물고기, 칠색송어로부터 붕어, 잉어, 메기까지 얼마든지 기를수 있다는것, 양어장의 현대화, 공업화문제, 칠색송어, 잉어 등도 메기처럼 속성사육방법과 양어못의 립체적리용 등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어 98년도 장군님께서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신천메기본보기공장을 세세히 돌아 보시면서 이제는 신천의것을 표본으로 하여 대대적, 전면적으로 메기공장을, 비롯한 양어공장을 건설하되 새 종자메기를 들여오라는 가르침까지 주셨습니다.

장군님의 말씀 따라 온 나라가 양어장, 양어공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중요초점은 칠색송어, 잉어, 족속들의 속성사육종탐구와 그에 알맞는 국산배합사료 개발하는것입니다.》

묵묵히 쳐다보며 생각에만 잠겨 있던 정근이 한마디하였다.

《그렇다면 입자네 공장 메기마리수나 세여가지고는 도저히 그 엄청난 전망은 계산할수 없겠구만!》

스스로 내놓았던 질문을 되찾아 간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쳐들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묻는다.

《결국 메기 한가지뿐만아니라 양어전반에서 혁명이 일어 난다는건데 그럼 그렇게 볼 때 몇년후에 한사람당 얼마쯤이나 차례질것 같은가?》

다시 질문을 들이대는 정근이를 바라보며 나는 끈덕진 배차사령답다고 혀를 차는데 성민이는 널찍한 이마를 슬슬 문지르더니 씩 웃었다!

《건 좀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왜 군사비밀인가?》

《뭐 군사비밀이야, 몇년사이에 컴퓨터가 예견할수 없는 사정들이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허풍쟁이가 될가봐 그런다는젠가?》

성민이 대답없이 멋지게 웃는다.

《기껏해서 하루 한마리쯤은 차례지겠지?》

정근이 질문은 도발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했다. 성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 젓는다.

《두자리습니다.》

《뭐야! 두자리수라면 못해도 얼마리! 아이쿠나, 그럼 밥이구 찢개구 다 걸어 치우구 민물고기만 먹고 살아두 남아 돌아 가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웃나라 사람들도 먹어 보라고 팔아 줘야지요. 그리고 우리도 자연히 주식물과 부식물을 바꾸는 혁명을 하게 될것입니다.》

《주식물과 부식물을 바꾸다니?》

정근이 어리둥절하여 나를 쳐다본다.

《그렇네. 그건 우리 장군님께서 일찌기 공상하여 오신 식생활혁명이라는거야. 이제 일정에 오른셈이지.》

나는 홀린듯 취한듯 성민이를 바라보았다. 장운룡이 어떻게 이렇듯 총명하고 열정 있고 박식한 손자를 키워 냈을가! 더군다나 20청춘에 당이바라는 과학기술의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미덥고 대견하다. 이런 세대가 자라고 있다. … 나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앉아 3세대, 4세대 내려갈수록 앞날이 걱정된다고 입버릇, 덩불처럼 위우기만 하던 소경이었던 말인가! 성민이, 그는 4세대이다. 그의 말은 계속된다.

《할아버님, 지금 우리는 밥을 여섯손가락 먹는다면 찢개를 두손가락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자는것입니다.》

《고길 많이 먹어야 한다는건 알지만 그래두 밥을 한손가락 먹고야 어떻게 살겠나?》

《관습이지요. 그래서 버릇을 떼지 못하고 살지요. 그렇다고 빠다와 빵을 먹자는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물고기뿐입니까? 지금 장군님께서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에다 소목장, 염소목장, 저 아프리카의 타조까지 가져다 목장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확장개건현대화사업을 벌리고 계시지요. 그러니 그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 없어 못 먹지 싫어서 밥만 퍼먹습니까? 지금도 명절날 아침에 고기국 한그릇 푸짐하게 먹으면 온종일 밥은 몇손가락 먹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래.》

나는 열기와 충기가 번쩍거리는 성민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새 시대의 주인이다. 장군님의 뜻과 구상이 온몸에 속속들이 배여 있다. 그들에 의하여 장군님의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눈앞에서 일떠서고 전진하고 있다. 청년영웅도로도 그렇고… 눈굽이 다 찢릿하다.

《고기 먹는 문제뿐이 아니지요. 남새구조도 혁명해야지요. 우리 할바닌 장군님께서 외국방문시에 남새온실 참관하시는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지금 농장에다 사자고추채배를 시작했지요. 맛도 좋고 생산성도 높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자랑을 한다. 늙지 않았구나! 정열 넘치는 장운룡의 얼굴이 다시금 떠오른다.

《주식물알곡구조도 그래요. 지금은 흰쌀, 강냉이 일변돈데 이젠 영양구조도 일면적이지만 적지적작도 할수 없고 사람들의 구미도 못 돌구고…》

《그래 그래, 난 팔밥이랑 감자국수랑 록두지집이랑 먹고싶은데 이젠 밤낮 흰쌀밥 아니면 강냉이국수만 먹을라니…》

정근이도 이제는 성민이와 완전히 한동아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감자혁명을 일으키시고 적지적작으로 다양한 알곡을 생산하도록 방침

을 내놓으신것입니다.》

나는 성민이를 바라보며 아, 우리가 이제는 젊은것들에게 가르칠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것이 더 몇해안에 양어운동과 함께 현실화, 정상화되겠는데 그래 그때에도 지금처럼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도 할 말이 더는 없었다.

《가만 있자, 우리 할아바니 왜 안 오실가? 아무래도 제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성민이는 시계를 들여다 보며 일어 섰다. 우리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썸들어 보이는 그를 대견하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저 애가 글썽 한때 집을 떠나 돌아 다녔다누만...》

정근이가 출입문 닫기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었다.

《건 또 무슨 소린가?》

《접매 운룡중대장이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98년도 초 여름 어느 날엔가 갑자기 저 애한테서 전보 한장이 날아 들었다는겁니다. <모 위독 급래성민> 하고 말입니다.》

《모 위독? 성민이 에미 말인가?》

《예, 중대장 맡으며 아들은 평북 천마지구 지질조사대 책임기사로 나가 산답니다레. 중대장이 부라부라 달려 갔더니 폐허같이 행태그런한 집에 수염이 더부룩하고 불과 눈확이 폭 꺼진 아들이 혼자 누워서 잠박거릴 기운조차 없는지 켜진 눈으로 천정만 쳐다보고 있더라요. <중대장>을 보자 눈물 한줄금 주르르 흘러며 하는 소리가 자기는 <어머니해산>이라는 전보 받고 돌아와보니 이미 안해는 산후탈로 사망하고 갓난애기마저 에미를 따라 가버렸으며 텅 빈 집에는 할머니한테 간다는 성민이의 글썽한 한장이 남아 있더라는겁니다.

제각 입원시키고 그 길로 읍거리 체신소에서 빛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성민이는 오지 않았다는것이고 이곳저곳 수소문하여 행적을 더듬다가 서해안쪽에 그러루한 소년들이 조개를 잡아 먹고 돌아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지 않소.

중대장은 평북 룡천앞바다로부터 시작하여 바다가에서 움막살이를 하는 소년들을 살살이 찾아 헤맨것이 어느덧 평남도 해안선으로 넘어 섰으며 결국 달포가까이 500리길을 걸어서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 왔다나요. 혼자 남아 눈이 까매서 기다리던 로친은 손주 잃었다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정근이 목이 메여 눈을 습벅거리다.

《오죽했겠소.》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중대장령감도 <처음 본 손주라고 탁아소도 안 내보내고 올면 제 젖을 물리고 키운것인데... 로

친도 그날부턴 잠을 못 자더군.>라고 하두만요. 그런데 글썽 한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엔, 서해의 바다와 하늘이 빨갛게 타오르는 석양녘에 말이웨다. 문득 바깥에서 와룡와룡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나더니 망챙이대가리같이 생긴 큰 차가 우뚝 멈춰서더라요. 그리고 <할머니-> 하는 소리와 함께 요녀석이 뛰어 들어 오더라는거웨다.》

《그게 대체 어떻게 된거래?》

《기가 막혀서, 글썽 자기 또래 동무들 몇을 데리고 해일에 무너진 방조제 쌓는 공사장에 가서 돌격대에 들어 갔다누만. 그런데 그 녀석이 학교 실습차를 가지고 이미 면허증까지 받았겠다 제각 그곳 뱀장어양어장에서 동원되었던 망차운전수가 되었다지 않소.》

《원 저런 기특한 녀석이라구야!》

《부엌에서 동자질하던 할마니는 밥주걱을 든채 달려 나오고 근방 종묘장에서 김 매던 중대장령감은 호미를 던지고 달려 오고... 중대장이 달려 갔을 땐 성민이 그 녀석이 할머니를 닮은 안아 올리고 <할마니, 나때문에 가벼워 졌구나. 잉.> 하면서 큰 눈물덩어리를 툭툭 떨구고 할마니는 <이 녀석아! 어지럽다. 살아 있으면 있다구 전보나 한장 칠것이지.> 하며 손주의 가슴을 팡팡 두드리고... 그러다 중대장령감이 털썩거리며 달려 오자 <할아바지, 나 신거할수 있나?> 하구 묻더라누만. <예기 이 녀석, 넌 아직 장독 한개 더 먹어야 해.>중대장 대답이 더 걸작이지. 하하하.》

나도 함께 웃었다.

《그 녀석이 그때 몇살이게?》

《열일곱살이었다누만요. 그곳 양어장기사장이 중대장네 이웃동네인 온천리에 새로 건설하는 메기공장 기사장으로 이동되면서 <네가 콤퓨터에도 꽤 밝으니 나와 함께 가자. 차까지 가지고, 하기에 어제 온천리에 도착하였다는겁니다. 망차우에는 자갈, 모래가 듬뿍 실려 있고 말이요.》

나는 생각이 깊어 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마디 하였다.

《나이기도 그렇고, 사타구니에 납덩어리를 차고 동원부마당에 서 있던 임자 비슷한데가 있구만. ...》

《그러게 말이요.》

《울가을엔 꼭 우리 한번 장운룡중대장을 찾아가세나.》

《그럼시다레. 답례방문차로...》

베란다밖으로 열린 밤하늘에는 별무리가 유난히 여물게 빛나고 있다.

하늘가에 장운룡의 모습이 천연색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까만 머리카락 뒤모숨이 형클어진 널직한 이마밑에 류달리 정기 어글어글 빛나던 눈, 귀며 코, 입, 얼굴윤곽 모든것이 굵고 큼직한 모습... 열정 넘치던 스물네살의 새파랗게 젊던 그 모습이 그림구나! ... 그 모습우에 반

세기, 50년세월을 엮어 75살 할아버지를 덧그리며 해보나 도무지 그러 지지가 않는다.

《큉 늠었겠지...》

나는 한숨을 쉬며 애매한 소리를 한다.

나는 정근이를 돌아 본다. 정근이는 해죽거리고 있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언젠가 형님이 날 보구 신로심불로란 말 가르쳐 줬지만 중대장은 상기두 신로심불로더군요. 머리만 좀 하얗지 팔다리는 펄펄해요. 허허허.》

나도 유쾌하게 꺄꺄 웃었다. 그리고 정근이의 손목을 끄당겨 잡으며 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했대? 우리가 공로보조원으 들어 갔다는 기별 들은게 88년이던가 9년이던가?》

《88년도지요.》

《그러니 13년전, 예순두살이었겠는데 무슨 일루 그렇게 서둘렀대?》

정근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한다.

《저번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두 그렇게 물었수다. 자퇴했소? 쫓겨 났소?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자퇴했다구두 볼수 있고 쫓겨 났다구두 할수 있다는거웨다.》

《저 무슨 재담 같은 소리 하나?》

《재담이 아니라 심각한 사연이 있더군요. 벌거벗은 농장 뒤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비서자리 내 났다는거웨다.》

《뭐? 나무를 심기 위해서라구?...》

정근이는 끄덕이며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계속하였다.

《중대장은 <나 리당비서 30년간에 최대과오가...변변치 못한 우리 고향 뒤산을 빨강게 벗겨 버린것일세.>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무려면 중대장이 산을 벗겨 냈겠소? 벌방이다보니 부락민들이 나무를 베여다 불도 땔겠지.>라고 하였더니 아니야, 내가 농장원들에게 땔것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농장원들과 산림보호원들에게 법을 지키라, 단속을 강화해라, 나무를 많이 심어라 소리만 치고 앉아 있는 30년사이에 산은 발가벗고 말았지. 그런데 그해 도당전원회의에서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총화사업을 하였는데 제일 엄중하게 논의된것이 산림보호관리, 특히는 발가벗은 산들을 록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였다 누만요. 그날부터 중대장은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 버린 농장 뒤산이 눈앞에 섰어서 눈을 감고 잘래야 잘수 없었다는거웨다.》

정근이는 계속한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 장운룡은 농장마을로 들어 서는 언덕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56년도에 견장 없는 제대군복에 배낭을 진채

이 언덕우에 앉아 소년시절 떠나던 때 다름없이 쓸모없는 꼬부랑소나무만 들성들성한 뒤산을 바라보며 협동화나 끝낸 다음에는 집단화된 힘으로 저놈의 산을 《록화혁명》해야지, 기슭과 중턱에는 밤나무, 떡갈나무 각종 침엽수... 하는 식으로 머리속에 백운산의 구름같이 피어 오르는 구상을 하면서 힘 있게 고향마을로 들어 섰는데 정작 리당비서 30년간 코앞의 일에 쫓기다 보니 예전의 그 다박술마저 여기저기 몇더미 남지 않고 빨간 번대머리가 되었구나. 30년이면 저 백운산 꼭대기까지 청청한 숲으로 덮고 남을 세월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세월을 되돌려 세운단 말인가!

장운룡중대장은 그 이튿날부터 산림감독원과 중학교 생물교원을 데리고 농장변두리 야산줄기로부터 해발고 500이 넘는 백운산줄기까지 살살이 돌아 다니며 록화설계를 하였다는것이다.

변두리야산들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우로 올라 가면서 밤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그리고 백운산 높은 사발에는 잣나무와 전나무, 이갈나무 등 바늘잎나무를, 습한 골짜기들에는 평양뽕뽕라, 백양나무같이 빨리 자라는 섬유림... 과학적으로, 경제실용적으로 설계는 잘되었다.

하지만 산림감독원, 생물선생과 마주 앉아 설계를 완성한 날 밤 장운룡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종이상우에 그려 진 푸른색을 실제 고향땅 수백정보 산밭들우에 내 손으로 살아있는 숲으로 옮겨 놓기에는 너무도 세월이 모자라고 힘도 딸린다. 옛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사람과 나무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예순세살이 뽕뽕이다. 일흔세살까지 살수는 있다해도 리당을 책임지고서야 어떻게 대업을 이룩할수 있으랴. 군당책임비서를 세번 찾아 가서야 부비서에게 자리를 넘겨 주었다고 한다.

정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나의 충격은 너무도 큰것이어서 뭐이라고 물을 말도 할 말도 없었다. 정근이는 계속한다.

《...이제는 덕을 본대요. 야산에 무성한 아카시아, 밤나무, 상수리에서는 꽃계절에 꿀을 따고 가을에는 왕밤과 도토리를 거둬 들이며 마가을, 초겨울에는 뽕나무를 해운답니다. 그리고 백운산에 잣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써꾸기, 꾀꼬리, 소쩍새들이 날아 와 울고 가을에는 메뚜지가 고구마밭을 뜯지러 내려 온다고 하면서 아이들처럼 웃으며 좋아 하더군요. 써꾸기, 꾀꼬리소리를 어떻게 그리두 신통하게 흉내내는지...》

《그야 음악가가 아니요. 아, 우리 중대장 왜 아직도 오지 않을가? 여보- 저 누구 또 내보내우. 어디서 모두 길을 헛갈리게 아니우?》

나는 부엌에다 대고 소리쳤다. 보고 싶다! 의로운 사람, 나의 전우여...

주제 90. 7. 20.

래일과 약속한다

1

장운룡중대장은 9시가 다 되어서야 왔다.

마중 갔던 손주녀석이 숨을 헐떡거리며 먼저 들어 왔다.

《하마트면 못 만날뻔 했어요. 같은 차에서 머리가 하얗고 허우대 실한 로인이 두분 내렸거든요. 옷도 꼭 같은 반소매잠바, 붐비는통에 다가가서 물어 볼수도 없고… 하여튼 앞사람부터 따라가보자. 결단을 내리고 승강기에 뛰여 올라 밖으로 나와 한참 달려 가서야 만나서 물었더니 왕청같은 로인이더군요. 되돌아 달음박질쳐 지하철역 앞에 와보니 텅 비어 있잖아요. 야단났나 하는데 웬 사람이 다가와서 40층아파트가 어디냐고 묻는데 마침 성민이도 오고 해서…》

《촌사람 다 됐군요. 하늘을 쳐다보면 우뚝 솟아있는걸 가지고…》

정근이 웃는 소리다. 누군가 장운룡을 두둔하였다.

《이삼십층 고층건물이 숲처럼 솟아 있는데 어느게 40층인지 분간할수 있겠소? 더군다나 한밤중에…》

《하긴 그래.… 그런데 중대장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나?》

《이제 성민이가 모시고 올라 올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귀등으로 넘기며 나는 출입문앞에 놓인 편리화를 발가락끝에 끼고 복도로 달려나갔다. 장운룡이 탄 고속승강기는 한층위에 서게되어 있다. 발끝에만 걸려 있는 신발을 철철글며 달려 가는데 내려 오는 계단 마지막층계를 질으며 머리 허연 허우대 큰 령감이 내려 선다. 그도 나도 우뚝 마주 섰다. 밝지 않은 복도불빛에도 여전한 그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 번쩍거리는 큰 눈으로 말없이 서 있는 장운룡의 그림던 얼굴을 알아 볼수 있었다. 나 역시 말도 나가지 않고 가슴속에 무엇인가 세찬 파도 같은것이 팍차서 들먹거릴뿐이었다. 실마리를 더듬기에는 너무도 아득한 50년세월이다. 머리에 얹힌 백발이 다만 격세감을 자아 낸다. 10년이면 광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50년이면 반세기, 강산이 다섯번이나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서 만나 재진공의 길에서 헤어진 전우인데… 그것이 엇그제일 같은데…

집안에서 모두 나와 뒤에 둘러 선것도 모르고 아마도 좋이 1분간 말없이 서 있었다. 장운룡이 먼저 한걸음을 뻗다. 기계처럼 내 발도 따라 움직인다. 여전히 씨름군같이 우람찬 그 큰 몸을 벌리며 다가온다. 나도 두팔을 벌리었다. 우리는 말없이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 얼굴을 익힌다. 은실 같은 백발에 주름 깊은 얼굴이

지만 그 쌍까풀진 큰 눈의 정기와 혈색 좋은 큰 얼굴은 도무지 늙지 않았다. 숨떡거리는 눈에 눈물이 고여 보였다.

《…변하지 않았구만!》

《중대장동문 나보다 더…》

두서 없는 소리가 두사람의 50년만의 첫 인사였다.

《아니 무슨 인사들이 그렇소? 허허허… 자, 어서 들어 갑시다.》

꺅꺅거리는 정근이도 주먹으로는 눈굽을 닦는다.

우리 집의 제일 큰 자랑거리인 평양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베란다 달린 큰 방, 서재의 열려진 창가에 나의 《작업대》인 널직한 원탁을 옮기고 그두리에 나무결상 너댓개를 돌려 놓았다. 성민이가 보이지 않아 찾았더니 안해의 말이 벌써 우리 만이녀석과 통하여 재미 있게 얘기들을 한다 는것이다.

장운룡은 후래삼배라고 거품 넘치게 부은 맥주를 들이켰다. 묻고싶은것이 머리속에 가득 차 있지만 무더기로 쌓인것이여서 무엇부터 끄집어 낼지 갈피를 잡을수 없거니와 숨도 쉬지 않고 큰 맥주잔 한조끼를 단숨에 마시고 있는 중대장에게 무슨 소리를 하라? 실한 목젓이 꿀떡거리는것을 바라보며 묻는 소리도 아니고 인사처럼 한마디하였다.

《통보사에 가셨다면서요?》

마시면서 장운룡은 머리를 끄덕인다.

《일이 잘 안된게지요. 늦어 졌을 땐? … 손자 조수노릇 하느라고 수고가 많수다레.》

정근이 끼여 든다. 운룡은 또 고개를 끄덕이며 한병들이 맥주잔을 텅 소리나게 내려 놓는다.

《에이 시원하다! 200프로야. 그래서 늦었지.》

우뢰를 둘러 보는 운룡의 큰 눈이 흡족한 빛이다. 나는 새 《룡성》병을 따고 빈 잔위에 거꾸로 세웠다.

《200프로라니, 퇴짜요?…》

정근이 묻는 소리에 운룡은 통쾌하게 대답한다.

《아니, 임잔 왜 내가 퇴짜를 맞는다고만 생각해? 프로그램 한개 얻으러 갔다가 아예 통채로 봉사망에다 우리 컴퓨터를 런결시켜 주기로 <조약>을 맺었네. 통보사와 말이야. 70년대에 고급당 학교 한반 친구가 비서노릇 하더구만. <야, 좀 해주라마.> 했지 뭐. 허허허…》

《농장에 망체계를 런결시키다니? 농장에도 컴퓨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나는 갑자기 50년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농민출신의 트럼베트수가 컴퓨터라는 이름만이 아닌 봉사망이요, 프로그램이요, 련결이요 하는 최첨단전문가들이 쓰는 말을 일상용어처럼 쓰고 있으니 이게 어디 장운룡인가?

《있네. 이제 겨우 중세기물림쯤 되는 펜톱 한대 써버로 하고 거기에다 말단 너댓대 늘였소. 뭐 그걸 가지고 망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써버》라는것은 망의 주 기대, 봉사컴퓨터를 말한다. 이거야 전문가지 어디 당일군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빗전화도 들어 가고?》

정근이 역시 최근 사업소 사령실이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다니까 가끔 구경쯤은 했을것이다.

《그야 물론 이미 들어 왔네. 이젠 앉아서 통보사, 종합대학, 농업성, 수산성, 대학습당, 과학원 어디 있는 자료나 손금 들여다 보듯 뒤져 볼수 있게 되었던 말이야!》

《성민이레 쟁충쟁충 뛰겠수다레!》

《그래그래. 나를 막 안아 올리구. 허허허.》

통쾌하게 웃어 제낀다. 나는 엄청나게 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목소리, 그 성품 틀림 없는 50년전의 문화부중대장 장운룡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함께 웃었다.

《자, 저희들은 실컷 먼저 마시고 나서 나한테 말만 시켜?》

그가 잔을 든다. 우리도 들고 짱 소리가 나게 짱었다.

《그래. 철 없는 내 손주녀석을 붙잡아 놓고 앉아 무슨 흥들을 봤나?》

나는 갈수록 50년간 장운룡의 걸어 온 길을 알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선손을 떼웠다.

《성민이가 할아버지들 꼭 닮았군요. 겉보다 속에 온 집안식구가 훌쩍 반했지요. 우리 로친넌 손녀사위 삼겠다고 버르지요.》

《손녀가 몇살이게?》

《열한살입니다. 외손녀는 좀 크게 있지만...》

《너무 어리구만. 우리 아이가 열살이나 우인데.》

《내가 그런소릴 하니까 우리 로친넌 <여보, 당신은 나보다 여덟살 우가 아니요.>라고 공박하더군요.》

《그럼 한 십여년 기다려서 그렇게 하지.》

또 한바탕 웃는다.

《나는 성민이를 보면서 50년 가을 후퇴하던 날 <동무들을 모시러 왔소.> 하고 연설하던 중대장 동무생각을 하였습시다. 손주 하나만 봐도 50년 세월 중대장동무가 걸어 온 길이 훤히 보이는것 같은게...》

《고맙소. 헌데 왜 자꾸 중대장, 중대장 하우? 이제는 우리 나이도 같은 70고개 넘어 서고 지체로 말하면 입잔 큰 일하는 중앙의 적지 않은 일

군인데 그저 동무라고 하우. 그리구 사실은 그때 중대장이 없는 부중대장인데 말마디가 길어서 불편하니까 그렇게들 불러 준게 아니었소.》

《중대장동무, 왜 남보고 선생이라고 합니까?》

《아, 아. 이러다간 싸우겠시다. 내가 재판하지요. 오늘 밤은 우리가 후퇴할 때 지어 준 별명으로 부르는게 어떻소? <말강사>, <글강사> 말이요.》

《어, 그게 참 좋구나. <잠뱅이>신대원들이 별명도 잘 지었지. 특히 연극배우든가 그 박 무엇이 라는...》

장운룡이 이름을 더듬는데 정근이 제격 텅겨 준다.

《상룡이, 그치가 림운이는 제강만 짜는 글강사고 중대장은 제강을 배낭속에 접어 넣고 말로만 하는 말강사라고 했지요...》

홍소가 터졌다. 그러나 나는 이때 웬일인지 전후 54년인가 55년도였던가 그가 헤어질 때 적어주던 집주소생각이 나서 평양특별시 대찰리 17번지를 찾아 간 일이 떠올랐다. 아직은 폐허우에 움막집과 단층집이 다문다문할뿐인데 며칠을 토티다닌 끝에 알아 낸것은 52년도 6월의 어느 날 밤새운 B29파상공격때 가족은 적탄을 맞았고 살아 남은것은 젓먹이와 할머니뿐, 그나마 며칠후에 할머니는 젓 잃고 우는 아이를 업은채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는 기막힌 사연이었다.

2

《아이유, 늦어 저서 죄송합니다.》

제법 새각시시절 같은 억양으로 로친네가 량손에 《룡성》 병을 들고 들어 왔고 머느리가 김 오르는 그릇이 담긴 소반을 들고 따라 들어 선다. 나는 머리에 떠올랐던 아픈 추억을 털어 버리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성큼 일어 섰다. 메기탕냄새가 온 방안을 채운다.

오래간만에 말아 보는 그 냄새가 코가 아니라 배가 먼저 말았는지 꼬르륵소리도 나는것 같다.

메기는 달고 구수한 맛과 함께 박하 비슷한 독특한 향기가 풍긴다. 하지만 지금 풍기는 새 품종메기는 좀 다른 냄새도 풍기는것 같다.

흰김 서리는 그릇들이 나의 큰 원탁우에 차례 차례 옮겨 진다.

《여보, 이것 가지군 안되겠어.》

나는 《룡성》 병을 들고 안해에게 소리쳤다.

《거 쟁한거 한병 있지. 40%짜리!》

《알았어요-》

대답도 건드려지다. 오이나 풋고추, 김치 같은 담새를 내놓고는 메기탕, 메기회 등 메기일색이다.

《거저 마시겠소?》

첫잔을 붓자 정근이 하는 소리다. 축배가를 부

르자는것이다.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 축배, 축배...

잔을 쳐들고 노래를 부른다. 예전에는 우리것이 없어서 《만약 전선...》을 불렀지만 지금은 우리와 흥쾌한 축배가가 있어서 약속 없이도 다 늙어 빠져 석식한 목소리들이긴 했지만 일제히 터져 나왔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안해에게 말했다.

《맥주와 마른 안주 한접시만 두고 다 걸어 가오.》

그리고 우리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여보시, 작가선생.》

《이거 왜 취하셨소? 글장사라 부르기로 하구신.》

《그랬던가. 저기 베란다 나가지 않겠소.》

《예, 그게 좋겠시다!》

정근이 제가 대답하고 앉았던 결상 하나를 먼저 쳐든다. 우리 셋은 베란다가 나란히 앉아 푸른 담배연기를 뿜으며 바다처럼 펼쳐진 불빛으로 하여 더 넓고 웅장화려해 보이는 평양을 굽어 보았다.

《종구나- 두번째 대전승을 이렇게 맞다니...》

흥에 겨운 장운룡이 푸른 담배연기를 한껏 빨아 내뿜는다. 그리고 느닷없이 소리를 한마디 던졌다.

《내- 사실 요즈음은 가끔 생각키는것이 있는데 뭐고 하니 다시한번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야. 진짜배기로 살아 보는건데...》

어쩐지 그 말이 심금을 울리며 공감된다.

《욕심도 사납수나. 그럼 150년을 살겠수?》

정근이도 싱글거리지만 역시 공감하는 표정... 장운룡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계속한다.

《특히 비서자리를 내놓고 돌이켜 보니 곰보딱지 제 물골을 처음 보는데 30년동안 무사분주 뛰여다닌, 자취없이 흘러 보낸 세월이 허방하더라 말일세.》

《정말 그렇긴 해요. 나두 요즈음 그런 생각이 듭네다.》

《그래서 시작한것이 뒤산에 밤나무도 심고 말 그대로 터발 같은 시험포전도 꾸렸지만... 너무 늦었던 말이야. 이제 몇년 더 오류를 돌려 보겠나? 설사 살아 있다 해도 말이야...》

서글프고 간절한 웃음.

《비서동무, 아침에 뜻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옛 사람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에 고개를 돌리는 장운룡의 눈에 생기가 살아 난다.

《거참 좋은 말일세 그래. 난 아직 저녁에 죽을 형편은 아니니까. 한번 더 기운을 부쩍 내서 배

합사료를 국내산으로 풀어 볼 생각일세.》

《건 또 무슨 말씀이요. 사료문제야 성민이가 푼다고 하던데요.》

《그건 현재 공장에서 쓰는 사료공급체계를 컴퓨터화하는 문제고 기본은 단백질기를 국내산으로 푸는 문제야.》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메기는 속성으로 키워 낼수 있는데다가 물고기인 까닭에 돼지와 닭배설물, 지어 사람의 배설물까지 가리지 않고 20도이상의 온도만 보장되면 어떤 물에서나 기를수 있는 아주 기르기 쉬운 영양가 높고 생산성 높은 물고기지만 그것을 속성으로 기르자면 반드시 단백질함량을 위주로 물고기 자체로는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기름산, 필수미량원소, 다량원소, 성장촉진제, 비타민, 첨가제등이 잘 배합된 고급사료가 필요해. 그런데 그런 사료를 지금은 장군님께서 귀중한 자금으로 사들이고계시거든...》

장운룡이 입을 꼭 다물고 격해 지는 표정을 받거리쪽으로 돌린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지금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중대장의 눈도 혹시 당중앙청사쪽을 살피는것 아닌지, 생각 깊은 그속한 빛이다.

《우리 산골에도 수령님뜻으로 건설했던 양어장이 있는데 사료가 걸려 대가리만 큰 봉어, 잉어 몇마리만 남고 지어 당시로서는 현대화되었던 닭공장도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흉년으로 폐사되었지. 한테...》

말을 못 마치는 물기어린 눈만 슬벅거리다.

《우리 할아버님...》 하고 말을 이은것은 뒤에 서있던 성민이었다. 웬일인지 장운룡이 막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부를 때만 의례 평안도사투리가들어 간다.

《종자닭 몇마리 남겨 놓고 폐사하는 날 닭공장 문지방을 타고 주저앉아 <야, 이놈들아, 나를 잡아 사료를 해라! 닭은 못 죽인다. 수령님 남긴 유산이다. 이놈들아, 못 들어 간다. 못 들어 간다.> 하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이들처럼 발버둥까지 치면서... 제례 폐사명령을 내리구 말아요.》

나도 정근이도 말을 못했다. 가슴이 찡하게 울리고 눈곱이 저리었다. 아 사랑스러운 전우, 후퇴할 때 줄곧 선두에 서서 김장군의 노래 나팔 불던 중대장! 나의 옛 상관이며 오늘도 변함없이 자랑스러운 당의 전사여! 아무리 말을 끌라도 저런 충신을 표현할 말은 찾을수 없구나.

《그래서 배합사료연구에 달라붙었나요?》

성근이의 물음에 장운룡은 눈곱이 젖은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우리를 <포위>한 원수들은 여전히 목조르기전략이요, 동정하는 벼들조차 강 건너 불보듯 걱정이나 해주는 정도이니 언제 다시 더 준엄한 시련이 닥쳐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다. 그때도 또 <폐사>하겠나? 사료만 있으면야 장군님께서 나라의 자금을 떼여 내지 않고도 메기공장도 닭공장도 지켜 낼수가 있지.》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있지. 저기 대동강바닥에 자갈처럼 깔려 있네.》

《예에?》

정근이의 눈이 동그래 졌다.

《가막조개 말입니까?》

나의 물음에 머리를 가로 저으며 대답한다.

《아, 아 꼴뱅이지요?》

정근이 자신 있게 묻는다.

《그래. 꼴뱅이라고도 할수 있지.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조롱박우렁이일세. 그게 대동강바닥에는 정보당 15톤은 깔려 있네.》

《15톤이라니요. 맨날 사람들이 쇠그물, 어랭이 같은것으로 굶어 내여 먹기도 하고 닭먹이로도 쓰고 식량보탬에 큰 몫을 하는데요.》

《거야 기슭이나 퍼내지 강심에야 손이 미치나?》

《저 무슨 우렁이라는게 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가요? 예전에 매생이군들이 바가지로 물 푸듯이 가막조개만 굶어 내뒀는데, 한바가지에 5천짜리...》

《하늘에서 떨어 진제 아니야. 86년도에 장군님께서 대동강바닥에다 퍼뜨려 동물질사료로 번식시켜 보라고 외국에서 들여다 주신것인데.》

《그랬던군요. 조롱박 무어더라... 아, 우렁이. 조롱박우렁이레 별루 낯선 이름이라 했더니.》

두사람의 일문일답을 흥미 있게 듣고 있던 나는 물었다.

《그 우렁이가 지금 얼마나 퍼졌는가요?》

《우리게 강, 저수지, 간석지물길에도 할아버지레 짹 들어 왔어요.》

성민이 곁들리는 대답에 장운룡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일종의 먹이사슬 비슷한것이군요. 닭의 배설물로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 대가리 같은것을 바스어서 닭을 먹이고!》

방안이 흥성거린다. 두리를 예워 싸고 서 있는 아들과 손자, 손녀들도 모두 감탄하여 웅성거린다. 장운룡은 무엇인가 깊어 진 표정으로 밤거리를 굶어 보며 생각에 잠겨 한마디 하였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 살게 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이고 그것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지. 저 백두산의 험한 밀림에서부터 돌아 가시는 마지막날까지...》

모두 일시에 가라앉은듯 조용해 졌다. 나는 불시에 가슴을 지지는 뜨거운것을 느끼며 한마디 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생의 목표로 살고 그 뜻을 이루셨지요. 3천리 강산이 통채로 무너져 내리는

듯하던 7월 8일, 올해에도 한밤중 0시 수령님령전에 인사 드리고 그 길로 떠나시여 조찬 점심 잊으시고 돌아 보신것은 어린이식료품공장, 닭배공장, 사이다공장...》

《식의주 모든것이 그저 계승복구가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말 그대로 속도전으로 새로운 높은 수준, 세계적수준에서 일떠서고 있거든.》

《그렇지요. <기와집>은 혁명의 고향땅에 일떠서는 삼지연의 별장 같은 집 수준에서.》

《남아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 먹는 문제일세. 흰쌀밥에 고기국!》

《할아버지, 고기국에 흰쌀밥이라고. 하세요!》

《그래그래!》

손자 성민이 불쑥 끼여 드는 소리에 장운룡도 나도 정근이도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말은 고기를 많이 먹게 하자는 장군님의 뜻을 의미한다.

《컴퓨터로 추산한데 의하면 몇년어간에 우리나라 양어장에서만도 5만톤, 말하자면 5천만키로 그람의 민물고기가 나와요!》

《컴퓨터 그렇게지만 장군님 구상하시는게 뭘지는 누가 안다더냐?》

《그런 까닭에 아까 성민이 말하듯이 몇해 어간에 식생활구조가 거꾸로 뒤집혀 고기를 다섯개 먹고 난알을 두개 먹는 식으로 뒤집힌다는것이 곧 현실로, 상상할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하지요!》

《아, 고기국에 흰쌀밥이라, 희한한걸. 그것도 몇해어간에!...》

정근이 올리는 환성에 장운룡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컴퓨터나 우리들의 예측일 따름이고 실지 식생활에서 언제 어떤 전환이 이루어 질지 누가 짐작할수 있느냐? 더군다나 장군님께서 메기뿐만아니라 속성비육종들인 칠색송어, 붕어, 잉어종자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양어공업전반을 첨단현대화하고 있는 때에 게다가 염소, 소, 토끼, 타조, 닭, 돼지 등 기르기에서도 전환을 일으키시는것을 보면 언제 어떤 수준에서 고기국에 흰쌀밥먹는 시대가 이루어 질지는 우리도 컴퓨터자차도 예상할수 없는기야!》

나는 한마디 보태었다.

《웁습니다. 장군님께서 어떤 생각과 구상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이 말쑥에 빈 말이 없으시다는것은 적들도 우리도 온 세상이 다 알고있지요. 구린까닭에 적들은 장군님 존함만 들어도 부들부들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이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가는거지요. 웃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50년전에도 우리 200명 신입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의 연설 한장 믿고 후퇴가 아니라 승리의 진격인듯 웃으며 달려 갈수 있었

지요. 핫핫핫…》

정근이의 귀밑까지 찌지는 통쾌한 웃음에 우리로병 세 전우와 가족들이 모두 웃음과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이윽도록 침묵속에 눈앞에 가없이 펼쳐진 수도의 밤거리를 새삼스런 감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종로인민학교가 어디 바루더라?》

운룡이 불쑥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린다.

《저기 장대재 보석덩어리같이 환한 대학습당아래쯤입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옳아!…》

《지금은 소년궁전이 있지요.》

장운룡은 고개만 끄덕인다.

《참 세월두… 후퇴하는줄도 모르고 신대원접수하러 갔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그때는 《접수》가 아니라 《모시러》왔노라고 연설하던 그의 목소리를 회상하였다. 그는 계속한다.

《그래서 동무들이 날 따라 압록강까지 가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그때 동무가 써주는 제강이 아니었더라면…》 입을 다문다. 추억을 더듬는것 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그저 최고사령관동지의 방송연설이 실린 도일보 한장을 가지고 그것을 옮겨 놓았을뿐인데…》

나는 낮이 붉어 졌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정근이 말했듯이 200명 <잠뱅이>중대를 한달동안 불길을 헤치고 압록강까지 이끌어 준 유일한 불빛이었지.》 우리는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다.

《그러나 또 한가지 있었지요.》

정근이가 하는 말에 중대장은 고개를 돌리었다.

《건 무슨 소리요?》

《나팔소리 있지 않습니까?…》

《나팔소리?…》

《천리 후퇴길을 내내 중대장동지가 선두에 서서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불러 주셨지요. 마음속의 신념은 수령님의 연설에서 얻고 한달동안 강행군의 초인간적인 힘은 나팔소리가 불러 주었지요.》

《맞아요. 우리 작가형님, 정말 신통하겐 말하거든. 이번 <고난의 행군>때 내레 그 나팔소리를 귀에서 잊은적 없체다.》

《나팔소리보다 임자 그 쟁쟁한 선창소리가 더 좋았는걸. 허허허, 그런데 이보라구. 작가선생…》 중대장은 화제를 돌린다.

《그해 50년 12월 27일날 말이야. 임자들 150명이 먼저 뿔쳐 전선에 나가는 군수열차에 편승하고 떠날 때 런대 3천명이 환송하던 밤 말이야. 그 밤도 잊혀 지지가 않누만. …그때 전선까지

모두 무사히들 갔었나?》

《가지 않구요. 선천에서 폭격 맞고 굴간에 대피했다가 랏천에서 양력설을 쇠고 한주일동안 강행군으로 배치된 운수런대에 당도하여 형님이랑 함께 서부와 중부, 서울과 시벌리계선 전선수송을 하였어요.》

《그래? 참 장해. 그런데 작가선생.》 하고 무엇인가 더듬는듯 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 헤어지면서 우리가 전선으로 나가는 임자에게 기념으로 뭔가 써준 생각하는데?… 싸인이라고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중대장동무랑 전우들이 작별 기념으로 수표를 남기고 싶다가에…》

《그닥 크지 않은 멋쟁이 수첩 같았는데…》

감개무량하지만 어쩐지 웅송그러 지는 심정이다.

《쁘라가축전에 갔다 온 동무가 수첩 두개 준것을 배낭에 넣고 떠났습니다.》

《그게 이젠 없겠지… 50년이 지났으니까?》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걸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던것이다. 지금 보기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때 저마끔 수표하자고 손 내미는 바람에 열결에 배낭속에서 수첩을 꺼내여 이미 다 쓰고 여라문장 여백이 남은것을 내주었었다.

《가지고 있지요.》

《뭐?…》

《내가 가져 와!》 막내가손녀가 빠르르 달려간다.

중대장과 정근이 동시에 환성을 올린다. 나는 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일기는 안 볼테니 적정마우… 가만 있자. 이거구만? 맨 첫대加里. 원 이런 번이라구야. 뭐이라구 갈겨 왔다. 글씨도 더럽다…》

말은 그렇게 해도 50년전의 젊은 얼굴처럼 불깃불깃 피여 나면 돋보기를 끄집어 냈다. 그러는 사이 정근가 수첩을 집었다.

《제길, 그때 나두 한자 적어 넣는건데. 아 이렇게 썼군요.》

1950년 10월 11일.

밤, 동원부(종로인민학교)앞마당에서 200명이 중대로 편성되어 개천을 향해 떠났다.

곧장 땅크 타고 남침할줄 알았는데 남쪽전선을 등지고 북으로 행군하다니? 도망치고 싶다. 접수하여 데리고 가는 군관에게 항의하니 웃으며 이제 개천에 있는 본부대에 가서 훈련해 가지고 전선으로 간다. 맹랑하지만 별수가 없다. 그몸이가까운 달이지만 아직 일러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거리는 칠칠어둠속에 잠기였다. 대렬 지어 죽은듯이 고요한 이 거리, 넓고 긴 아스팔트대통로를 우리는 저벅저벅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 갔다.

밤이면 밤마다 얼마나 밝고 호화로운 생활이 뒤쫓던 이 거리인가! 그러나 오늘은 이 거리가

불기미한 침묵속에 잠기었다. 이따금 나는 공습 경보사이렌소리와 앵앵거리는 비행기발동소리가 더욱 오싹하게 소름을 끼쳤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전과 못지 않게 더욱 심중한 전투적인 생활이 역세계 숨 쉰다. 모든것이 더욱 세차게 살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잘 있거라, 사랑스러운 수도여! 이 거리 바닥에 피투성이 알몸으로 산산 찢기여 쓰러 졌던 시체들을 잊지 않오마. 강도놈들을 소탕하고 내게 있는 모든것과 그리고 그 이상의것을 가지고 개선의 월계관도 높이 내 네 품으로 돌아 오리라. 잘 있거라 수도여! 영광이 있으라! 대렬은 앞으로, 앞으로, 흰하게 트인 신작로로 움직이고 있다. 가루개고개에서…》

《이거 뭐요. 수표를 보겠다구서는 남의 일기를?》 나는 당황하여 손을 저었으나 별수가 없다.

《뻔뻔네까? 형님, 이 일기장 좀 다 봅시다래. 도대체 어느 때거요. 아, 맨 앞장이 1949년 7월 5일이라.》

《안돼. 그 졸렬한거를 어떻게.》

《별말씀, 50년이나 됐는데 무슨 비밀 있겠다구. 처녀하구 뽀뽀한것 있대두 이젠 다 시효 풀렸시다.》

나는 낮이 뜨거워 졌다. 철자법은 엉망진창, 《대통노》, 《대열》은 뭐이노? 꼭 광복전 철자법 같군… 《모든것과 그 이상의것》, 소학생작문 같은 구절은 또… 수첩의 마지막장, 일기였다. 이 수첩은 1949년에 시작하여 방금 읽은 50년 10월 11일 입대하는 날로 끝나는 일기장이고 그 다음 후퇴과정에서 시작하여 52년 여름 제대하고 대학에 가는 날까지의 일기는 똑같이 생긴 다른 수첩에 계속되었으나 그것은 잃어 졌다.

《허허. 그만 하라구. 나두 부쩍 흥민 돋구지만 남의 일긴데 함부로 보면 안돼.》

장운룡이 편들어 주었다.

《예예, 알았수다. 그럼… 아, 여기 있군.》 하고 정근이 읽는다,

1950년 12월 27일

913교도 박창제

나는 림운동무를 조립시키며~ 나의 가장 믿고 사랑하던 동무, 조립과 동시에 전선으로 출동시키는 나의 감상~

동무에게 성공을 바라며~

2개월동안 한자리에서 주침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자고 맹세하던 동무~ 나에 가라침을 잊지 말고 그대로나에 기술을 리용하여 주시오.

~타동지를 협조하여 사고 없이 운행사업 보장함을 부탁.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여~

~헤지는 슬픔은 기쁘므로

~림동무 믿고 또다시 믿는 동무

1950년 12월 27일 오후 7시

구련성 벽돌가메에서 작별

신의주시 평화리 257번지

박창제(수표)

눈앞에 선하다. 키는 작고 가무잡잡해도 차근 차근 가르치고 돌봐 주면서도 요구성 높은 형님 같던 나의 소대장!

가슴 저리게 안겨 오는 그 모습.

《박창제라니 3소대장이구만!》 장운룡이 소리친다.

《예.》

《개고개비행기라고 했지. 우리 부대 일등운전사! 주소랑 있으니까 소식 알겠구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사했습니다.》

《뭐라구, 한돌만 잡으면 정말 비행기처럼 펄펄 날던 사람이!》

《석달만에 우리 편대에 와서 중대장을 하냈는데 철령고개에서 적 나팔탄 맞아 불 타는 차를 치워주느라고 뛰어 올랐다가 폭발하여 그만…》

나는 목이 메인다.

《살았으면… 임자보다 두 세살밖에 더… 안됐겠는데…》

장운룡은 눈을 습벅거린다. 동부전선으로 가는 길 철령의 집중목격구역과 문천의 해안도로 적합 포쏘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전우들을 잃었던가! 아, 그리운 박창제소대장동지여!…

무겁게 가라앉는 공기를 깨치며 정근이 놀란듯 소리친다.

《이건 뭘니까!》

장운룡이 돌보기를 기웃한다.

《빨간 오각별복판에 한문자로 <승리>를 새기고 동그랗게 돌아 가며… 가만 있자, 명필인걸.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1950년 12월 27일 이날을 잊찌 말고 싸우자! 김상철…> 대가리, 꿈명이 없이 자동차바퀴같이 돌아 갔으니 어느 글자를 먼저 읽어야 하나? 수수께끼 같군…》

《아무렇게 읽어두 돼. 떠나는 군수렬차앞에서 몇호씩 갈겨 쓴 글이니까 그렇지워. 7시라고 썼지 않아. 렬차가 7시 30분엔가 떠났는데.》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동지들을 변호하였다. 특히 김상철은 나를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사랑해주던 아버지벌 가까운 특무장이었다. 중대장이 한마디 하였다.

《아바이특무장… 한번 보고 싶구만. 편지를 받았지. 고문관리위원장 하는데 위암 걸렸다는만. 글썄… 그게 마지막편지였지…》

정근이는 계속 읽는다.

사랑하는 림운동무여!

동무는 평양서부터 개천, 개천서 천동, 천동서 영산, 영산서 수구, 수구리에서부터 구련성까지… 비록 지금 중대서기라도 나도 스빠야를 갈아 넣고 나간다는것을 잊지 말고 몸 건강하여 전선에서 만나자! 만나서 축배의 노래를! …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부소대장의것, 또 누구 누구… 줄렬하고 착오투성이문장이지만 그속에 넘쳐 흐르는 조국애, 전우애, 여유작작한 락관의 정서여! 중대서기는 지금 촬영소에서 아직도 예순아홉살의 당당한 현역촬영가!… 모두가 한목숨바쳐 위기를 겪는 조국을 구원할 한마음뿐이었지!

《아, 이제야 나타났구만. 역시 중대장이 총 결론을 했구만!》

정근이 환성을 올린다. 장운룡이 몸을 일으켜 돋보기 건 눈으로 기웃이 결눈질한다.

12월 27일 장운룡, 난 먼츄…

《헤헤, 이게 뭐요. 날자, 이름부터 쓰고 또 먼츄이라는건?…》

정근이 운을 떼자마자 시비에 걸린 장운룡은 낯을 찡그리며 허허 웃는다.

《그래서 나발쟁이출신이 아닌가?》

중대장은 그래도 기분이 좋다.

정근이 계속한다.

조립을 맞치고 조국과 수령, 인민을 위하여 싸움에 나아가는 《글강사》 동무의 건강을 바랍니다.

1950년 11월 6일부터, 또는 평양종로학교에서 입대하는 첫날부터 같이 한 여러가지 재미 있는 장면들 항상 생각하여 주면서 반드시 통일독립을 쟁취하고야 말리라는것을… 원썬놈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우리 어서 서울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평특시 대찰리 12번지, 장운룡.

《하아, 하아, 잘 썼수다래, 막 실감나게! 글씨가 너무 망태기 돼서 신문엔 못 내겠지만 정말 이렇게 잘 쓰다니! …제길, 난 그때 이런거 한장 받아 두지 않았을가?》

《글씨가 아니라 표현이 망태기지. 조립은 뭐이고 재미 있는 장면이란건 도대체 무슨 똥판지…기가 막혀서, 후퇴를 재미 있게 했다는거야? 정말 그렇게 썼나? 제길, 내 글씨 틀림 없군,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장운룡은 수첩을 거듭거듭 들여다 보며 이마를 찌프렸다.

《주게!》

장운룡이 수첩을 받아 들고 낮이나 익히는듯이익도록 들여다 본다. 나보다도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 훨씬 격이 높은 글이지만 정근이 말

하듯이 중대장의 글 역시 모두 오늘의 세련된 표현과 문장들과는 대비도 안되게 유치하고 조잡하다. 그러나 우리 체험한 로병자신들로서는 심장속 굵이굵이를 달고 저려 내면서 온몸으로 격류하는것같은 절절함과 그리움을 자아내는, 전쟁 3년의 모든 회상이 울려 나오는 다섯줄의 글이었다.

푸푸- 증기를 뿜으며 잦은 기적소리로 출발을 재촉하는 전선행렬차결에서 단 몇십초동안에 쓴 글이다.

오늘에 와서 볼 때 《전선전우들의 요구》며 《여러가지 재미 있는 장면들 항상 생각하면서》하는 따위, 의미도 문법도 맞지 않는 똥판지 같은 다섯줄의 소박한 글에 수령님을 모시고 세계 최강적을 때려 눕힌 우리 로병들과 당대 인민들의 랑만적풍모와 인간적면모가 웅심 깊게 압축되었다. 여기 어디에 한달동안 사선을 뚫고 후퇴한 인간들, 한달동안 《잠뱅이부대》가 하루 24시간 혼련으로 운전기술을 통달함으로써 미국놈과 결판내려 전선으로 떠나가는 심정을 표현하는 요란란수식어 한마디가 있는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혼련 한달동안 겪은 그 엄혹한 시련을 《여러가지 재미 있는 장면》이라는 룡담 같은 한마디로 감아버렸다.

그들에게 수령만 따르면 전쟁을 이긴다는 표현은 못 가졌어도 온몸 수십억개의 세포와 숨 쉬는 숨결이 그대로 신념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계산하고 선택한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수령과 조국, 혁명과 함께 있었다.

《아아, 사랑하는 우리의 문화부중대장! 당신이 선두에 서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천리 후퇴길을 한순간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여러가지 재미 있는 장면>으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50년만에 새삼 이런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대신 한마디 하였다.

《중대장동무, 바로 그게 제일 잘된 표현입니다!》

《뭐? 어느거? 조립말인가?》

《아니, 그 즐거운 장면말입니다.》

《여보, 그건 룡이야, 진담이야?》

《아니, 눈물겹습니다. 그 말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오늘의 구호와 꼭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뭐?!》 둘다 깜짝 놀라 눈만 휘둥그레 졌다. 방안이 쨍하게 울리는 침묵…

《할아버지, 작가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손자 성민이의 흥분한 목소리다.

《그으래… 춘향이처럼 꿈보다 해몽이 낫다더니…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장운룡의 굵직한 쌍까풀눈이 습벅거린다.

《무식해서 똥판지 같은 말을 썼겠지요. 딱 맞

군요. <웃으며 가자!> 말 그대로 후퇴 한달 천리 길을 웃으며 갔지요!》

정근이의 말에 방안에는 박수가 터졌다.

《그런데 여보시. 작가선생, 내 한가지 고백할게 있네. 이거 또 <즐거운 장면>같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수수께끼 같은 소리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용서를 바라듯 한 어쭈름 눈빛이 피이췌다.

《자네 일기장에 도망이 어찌고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하구만.》

《예에?》

나보다 놀란것은 정근이었다.

《내가 그날 밤 가루개고개를 넘어 첫 휴식나팔을 불었던 장소에서 임자가 그 일기 쓰는거 봤지. 그땐 일긴지 뭇지 몰랐지만...》

나는 놀랐다. 그가 어떻게 봤단 말인가? 10리남짓 걷고 휴식나팔소리가 났을 때 지금 생각하면 중대장자신도 그렇고 대원들전체도 수도를 두고 떠나는 무거운 심정을 헤아려 심리도 못 가서 분나팔이였겠지만 나는 혼자 길가에서 얼마쯤 떨어진 불빛 새는 집 창문을 찾아 가 굵썩거렸었는데...

《대원들을 헤어 보니 한사람 모자라더군. 좀 떨어진 토굴집마당에 비치는 불빛에 가서 글을 쓰는게 아니겠나? 수상하게 생각했지. 행군 시작했을 때 중대의 유일한 무기 아식보총 댜 부소대장에게 귀땀했지. 3소대 아무개가 지식인 같으니 경계하라고 말이요. 차마 무슨 꿍꿍이 하는것 같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런데 개천에서 본부대를 못만나고 나서 어느 산골 마을에 묵은 이튿날 저녁시간 출발을 앞두었는데 부소대장이 혈떡거리며 달려 와서 하는 소리가 촬영소 배우출신의 아무개와 그 <지식인>가 없어 졌다는게요. 도주병! 깜짝 놀라 나는 땀을 흘리며 찾아 돌아 다니었으나 허탕치고 휘적휘적 맥 빠져 돌아 오는데 글썽 부소대장이 강변 외판데 나가서 붙잡아 왔다면서 <뻬야 버룩이지. 썩 제끼자요!> 울러메며 임자네들을 돌아 보며 탄알을 질걱 재우는게 아니겠소. 도망칠 계획이었던가? 피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행군나팔부터 불어 놓고 뒤에서 배우를 데리고 따라 가며 알아 보니 글썽 80키로짜리 배우가 하는소리데 <내가 하도 배고 파 못 견뎌다니카림운동무가 어디가서 닭을 구해 튀여다 먹으라고 주기에... 그 동문 한토막도 먹지 않았습시다...> 이러지 않소. 허어 허어 허어... 그래서 부교원으루 임명한거야. 편제 없는 하아 하아 하아.》

《그렇게 됐구만요.》

《원 큰 일 날번 했군요. 하마트면 총살 맞을번

했구만. 암둔한 중대장덕에 아까운 작가 한사람 잡을번 했군.》

《그러게 사실 12월 27일 헤어질 때에 고백하고 싶었지만 틈이 있어야지말야. 이젠 용서해 주겠지?》

《원 별말씀 다... 자유주의 했으니 총살두 싸지요. 허허허.》

우리는 통쾌하게 웃었다.

《여보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운룡은 잠시 밤거리를 내려다 보다가 말을 떼었다.

《대전쟁은 두번이 아니라 세번 치른 셈이구만.》

느닷없는 소리지만 어쩐지 오늘 밤의 모든 일, 모든 이야기에 대한 총결론 같은 느낌이 들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32년도부터 오늘까지 매번 우리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이겼단 말이요.》

《그래요. 근한세기 길러 온 우리의 총대 아니라면 어떻게 력량대비라는 말조차 붙이지 못할 전쟁에서 세계제국주의<강국>들을 매번 박살탕 먹였겠습니까!》

정근이의 흥분한 목소리다.

《기적이야, 기적. 포성은 없어도 가장 간고했던 이번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뿐아니라 닝큼 비약적번성의 길로 날아 오른것은... 선-군-정-치의 덕이란 말이요!》

《신통하다! 중대장동진 작가형님과 직업 바뀌야겠시다!》

정근이 무릎을 친다. 나는 깊어 지는 생각을 더듬이 가며 입을 열었다.

《외람된 소리지만 나는 그저 처음에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정식화 하셨을 때 종전의 <군사제일주의>와 비슷한 말로써 그저 적들의 극악해 진 포위압살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용어 정도로 철없는 해석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작가선생님뿐이겠소? 당일군인 나는 더 한심했지. 나라형편전반을 깊이 분석해 볼 생각조차 못하고 눈앞에서 굶주리고 기울어 지는 농사형편에만 매달려 있었지... 우리 장군님의 선군이 5~6년간 조국을 지켜 내는 방어가 아니라 고립압살의 역경을 거꾸로 뒤집는 반돌격으로 뵈출이야. 그리하여 인민은 웃으며 <고난의 행군>고개를 단숨에 훌쩍 넘고 그 걸음 그대로 강성대국대공으로 날아 오르고 있지.》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비행장활주로 같

은거구만요!》 정근이 또 한마디 《명창》이다.

《뒤편 활주로 맞받아 달려 가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말이지. 정근아! 너 작가하구 50년 동안 함께 지내더니 작가 잡아서 단지곰 해먹게 되었구나. <고난의 행군>이 강성대국으로 날아오르는 활주로나! 나는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고급당학교 박사선생들한테서도 그렇게 머리에 쑥 들어 오는 표현은 못 들었다!》

장운룡이 큰 몸통이를 어떻게 건사할지 몰라 좌우로 흔들며 웃어 댔다. 말투까지 50년전으로 돌아 갔다. 만장의 웃음과 갈채... 운은 내가 뻗는데 박수는 정근이 받지만 나도 열광적인 박수를 쳤다.

《머칠전에 난 중앙당 어떤 모임에서 최근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가 한 말은 빈말이 없다는 뜻의 간곡한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말에 먼저 표정이 정색해 진것은 장운룡이다.

《아니 그런 말씀이 계셨소?》

《나는 그 말씀 마디마디에 큰 충격을 느끼며 더다른 말은 귀에 들어 오지도 않았지요. ... 모두 일어 서기에 비로소 모임이 끝난줄 알고 여느 때처럼 백살구 무르익는 가로수를 감상할 겨를도 없이 큰길에 나서고 보니 웬 일인지 소경이 눈뜬듯 거리의 모든것이 처음 보는 세상처럼 안겨 와 있습니다! 대통로를 메우고 오고 가는 <삼천리 금수강산> 등 갖가지 시구절을 새기고 달리는 새빠스들, 몇해째 명절에나 상품이 나오던 거리, 간 이때대의 얼음물이 부글거리는 청량음료통과 노란 우유빛의 <에스키모>, 령천사이다, 잡화상점에 <신혼신부에게 <봄향기> 세트 공급합니다.>라는 상품광고. 등등... 그리고 갑자기 선히 떠오르는 나의 출근빠스종점에 있는, 얼마전까지 <송어국집> 간판대신에 새로 걸린 <메기탕집>간판도 이것저것 모든것이 빈말이 없다는 장군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살, 내 피줄에로 툭툭이 이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그렇구만!》 운룡의 공감.

《그런 철학도 모르구 빠스만 몰아 댔구만.》

정근이의 한탄, 나는 계속하였다.

《제가 이 몇해동안 당의 배려로 장군님 창조하신 전설 같은 창조물들을 참관하러 백두산끝에서 립진강분계선까지 토지정리장, 동해소금밭, 대홍단의 감자밭, 중소형발전소, 금진강 산악언제, 염소목장, 타조목장, 개건하는 닭공장과 맥주공장, 대규모 양어장들, 어딘들 안 가봤겠습니까! 보고

온 모든것이 갑자기 빈말 없다는 장군님의 말씀과 힘 있게 솟구치며 끝없이 전개되는 내 조국의 새모습으로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어! 정말 이런 변이라구야! 나두 심봉사 눈뜨는것 같구만! 여보게, 그리고 보니 우리는 장군님의 속마음은 고사하고 내놓으신 말씀과 구상조차 그 깊고 원대하고 폭 넓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그러니 대체 그이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고 날마다 밤새우며 사색하시는 마음속에 있는 구상은 어떤것인지 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겠나, 영!》

장운룡의 한탄조의 말이다.

우리의 격한 담론에 열광적으로 호응한것은 믿음직한 우리의 3세, 4세 계승자들인 성민이와 나의 아들, 손녀들이였다.

《우리의 청년영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만 따르면 승리합니다! 세번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배는 취소합니다. 우리가 끝장난담에 축배 드리겠어요!》

성민이 주먹을 흔들며 웅변을 토하자 《옳-소오-》

방안의 3세, 4세들이 우뢰 같은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른다.

《자, 이거 중대장 나팔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집엔 그런게 없겠지?》

정근이 아쉬운듯 두리번거린다.

《있시요-》

뜻밖에도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함께 우리 큰 손녀가 작은 손에 쳐든 황금빛 번쩍거리는 트럼베트를 내민다.

《아니 어디서?》

정근이 놀란다.

《네, 이웃집에서 좀 빌렸습니다.》

내 아들녀석이 혜식게 웃으며 정근이와 눈을 껌벅린다. 둘이 짜고 든 모양이다.

《고맙다!》

냉큼 나팔을 받아 쥐고 베란다에 나선 장운룡은 《소개》도 없이 선채로 평양상공에 나팔통을 쳐들어 큰 입에 삼키듯 꼭지를 물고 두볼에 숨을 모아 축구뿔마냥 부풀렸다.

《데거, 큰할아버지 나팔 불줄 아나?》

막내가손녀의 걱정에도 장운룡은 두입이 없어 대답 못하고 그대신 요란한 나팔소리를 내뿜었다. 거의 동시에 정근이의 예전과 조금도 변색 없는 목소리가 쉼 없이 울린다.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혼성대합창으로 번진다. 장운룡은 입에서 꼭지를 떼지 않은채 다음으로 넘어 간다. 전혀 색조가 다른 조용한 서정적인 선율.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 가득가득 흘러서

찾아 드는 선물을 들으며 깊은 정어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북두칠성은 보이지 않아도 땅위의 불바다와 화답하는듯 은하수무리가 하늘 가득가로 질러 흐른다.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하는 대목에서 우리 두 손녀의 애된 목소리와 그들옆에서 성민이의 목소리가 힘 있고 아름답게 앞서 간다.

중대장의 《피스톤》을 누르는 손가락은 갈구리같이 번했어도 예전의 처녀 같던 손가락놀림 그대로 날렵하게도 곡조를 따라 춤 추듯 한다. 나팔통이 통채로 터져 가는듯 한 통소리지만 그것으로 발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 표현할길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세 전우와 그 후손들의 마음을 풍만하게 그리고 섬세한 색깔까지도 남김없이 울려 주고 있다.

나팔소리가 멎었으나 음악이 끝난것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팔수자신은 나팔을 쳐든채 하늘에선지 땅우에선지 무엇을 찾듯 눈길을 더듬고 있다.

《저-기오다. 저 큰 별, 새별아래에...》

최고사령부 당중앙을 찾는것이다.

《새별이 벌써 그렇게 기울었나? 밤이 깊었구만...》

장운룡이 하는 소리다.

《이 베란다의 결합은 남향이 돼서 북두칠성이 안 보이는데지요.》

내가 변명을 한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 이처럼 궁지 높고 보람 있는 행복을 맛 볼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입만 열면 그 행복을 흘려버릴것만 같아 확 다물고 가슴속에 다지고 또 다져 넣고 있는것이다. 아, 그날에 전사한 전우들이 함께 살아서 **김정일**세기로 시작되는 오늘 현실을 잠시라도 볼수 있다면 내 목숨과 바꾸어 주고싶은 절절한 심정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나팔 불고 노래 부르던 그날에는 평양이 아니라 모스크바행의 열차우에 계신줄은, 더구나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니시던 로정을 그대로 밟아 그리고 그 로정우에 뜻 깊은,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던 수령님의 잊지못할 추억의 《B 야영구》가 있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장군님의 이 로정은 동시에 1년간 대외활동으로 아시아 유럽, 유라시아대륙을 한손에 장악함

으로써 우리를 포위고립시키려던 미제를 도리어 역포위고립시키고 거기에 매달렸던 조롱박 같은 일본군국주의를 끈 떨어 진 바가지 깨치듯 산산히 쳐부셔 내린 인류력사와 5천년 민족사의 대전환을 열어 놓은 세계사적, 민족사적대승리를 확인하는 길이었다.

그런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날 밤 나팔을 더 높이 쳐들고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불렀을것이다.

국경역 하판에서 멋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대를 이어 혁명의 유서 깃들여 풍만하고 세차고 망망하게 흐르는 두만강을 건너 오시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나의 벅찬 마음속에는 문득 1946년 4월 **김일성**장군 환영모임에서 읊었던 혁명시인 리찬의 즉흥시가 줄줄이 살아 떠올랐다. 거기에서 나의 절절한 심정 몇구절을 보태어 《합작시》를 만들어 보았다. 50년대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선배, 스승으로서, 동지로서 나를 아껴 주었던 리찬이 이 《합작》을 쾌히 승낙하여 줄것이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의 선군정치는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빈말 없음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태양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장군은 바쁘다 너무도 바쁘시다

기억하자 장문은 우리의 장군만이 아님을

아아, 3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후손들이며

21세기 인류사전환이 큰 대문

활짝 열고 돌아 오시는 장군님의 길

저 두만강 푸른 기슭에 개선문을 세우자!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개선문을 세우자!

주체 90(2001)년 8월 10일

노래의 여운에 대한 생각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를 들으며-

최연경

새해의 첫 출근길에 오른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졌다. 요즈음 언제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노래 《더 높이 더 빨리》(작사, 작곡 황진영)였다.

노래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학교로 가는 남녀학생들의 대렬이 나타났다. 언제나 씩씩한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따라 더더욱 흥에 겹고 신바람이 나 하는듯 했다.

신심에 넘쳐 막 달려 가듯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흥에 끌려 어느새 나도 코노래로 따라 불렀다. 나이 많은 녀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속으로 민망한 생각조차 없지 않았다.

불현듯 궤도전차가 눈앞에 와 멎어 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박두한 출근시간마저 잊어 버렸을것이다.

전차는 달리고 시야에서 멀어 저 가는 대렬과 함께 노래소리도 아득히 저 멀리로 사라져 갔다.

초만원으로 붐비던 전차안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자리가 정돈되자 나의 생각은 다시 방금 귀전에 울리던 그 노래에로, 노래에로 이어져 갔다.

노래의 메아리는 사라졌어도 그것은 심장의 메아리되어 끝없이 내 가슴을 울려 주는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좋은 노래가 사람들의 심장속에 남겨 주는 사상정서적여운일것이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노래가 명가사, 명곡이며 이런 명곡은 반드시 여운을 주기 마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명곡이란 들을수록 좋고 새길수록 뜻이 깊어지며 부를수록 더 부르고싶은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여 명곡이란 생활이 있고 사상이 깊으며 정서가 풍부한 노래, 선율이 아름답고 유순하여 들을수록 좋고 부를수록 더 부르고싶은 노래입니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것이 노래의 여운이다.

하다면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 《군민아리랑》(최준경 작사, 엄하진 작곡)과 함께 《더 높이 더 빨리》(황진영 작사, 작곡)가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사상정서적여운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덧 나의 사색은 오래동안 몸에 배인 평론가의 감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데로

보아 졌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용솟음치는 혁명의 열정과 용기를 주고 꺼질줄 모르는 생의 활력을 안겨 주는것은 바로 그 노래에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선 위대한 김정일시대 인간들의 시대정신, 혁명적기상과 기백이 힘 있게 나래치고 있기 때문이라.

노래 《더 높이 더 빨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붉은기 추켜 들고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조선의 혁명정신, 조선의 혁명적기백이 힘차게 차넘친다.

그것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백절불굴의 정신, 필승불패의 정신이며 군민이 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조선의 영웅적기상이고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그것은 노래의 1절에서 특히 선명하게 느껴지는것처럼 마치 희망찬 리상봉을 향해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기세 좋게 만속으로 달리는 기관차의 통쾌한 동음과도 같이 박력 있고 빠른 선율과 잘 어울려 참으로 흥취가 나고 신바람이 난다.

나의 심장이 이처럼 세차게 설레이니 하물며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 시대를 앞장에서 떠밀고 나가는 당사자들인 우리 청년들이 이 노래를 그리도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아니겠는가.

신심드높이 희망에 넘쳐 앞으로 앞으로만 내달리는듯 한 노래의 이 기상, 이 기백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창작가에게 준것이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 준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늘같이 밋고 살던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의 바다를 헤쳐야 했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서 시여 만가지 시련과 세상풍파를 한몸으로 헤치시며 승리를 이룩하시여 강성대국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였다.

《고난의 행군》과 강성대국!

그 누가 꿈이나 꿀수 있었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이 놀라운 현실앞에 세상이 놀라고 적들이 전를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를 향해 치달아 올랐다.

강성대국이 빈말이 아니라 현실임을 만천하에 선언한것이다.

신바람이 난것은 우리 인민이다. 그들의 어깨엔 비약의 나래가 돋아났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세상사람들이 본적 없는 무릉도원인 강성대국건설에로의 비약, 참으로 조선은 지금 수천년 자기 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들어 섰다.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는 강성대국으로 높이 손들어 부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과 의지, 그것을 피 뚫는 가슴에 받아 안고 천만이 하나되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이 벅찬 현실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격동적인 시구와 선률속에 그대로 잘 담음으로써 시대정신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 시대의 명가사, 명곡으로, 강성대국으로 시대를 이끄는 힘 있는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싶고 듣고 나서도 심장의 메아리되어 울려 퍼지는 노래의 여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는 위인의 심장속에 간직되어 있는 애국, 애민, 애족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혈전의 군복도 벗으실새 없이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신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이 세상 만복을 누리게 될 강성대국을 건설할 일념으로 위대한 심장을 불 태우시였으며 형언할수 없는 력사의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강성대국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이민위천**》으로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현실로 꽃 피우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최상의 념원이고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인의 심장속에 사무치게 간직되어 있는 애국, 애민, 애족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받아 안았기에 우리의 노래들은 애국충정으로 것처럼 뜨겁고 민족존엄으로 그토록 강한것이다. 그 사랑, 그 존엄, 그 긍지가 시줄마다 선률마다 그토록 세차게 맥박치기에 노래는 부를수록 정에 끌리고 신바람이 나는것이다.

우리의 노래들에는 태양조국,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이 일관하여 줄기차게 굽이쳐 흐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태양조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긍지와 민족제일주의정신은 노래 《더높이 더 빨리》에서 강성대국건설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일관한 서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잘 부각되고 있다.

노래는 공장을 건설해도 토지를 정리해도 우리 식으로, 이 땅에 발 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강

성대국건설도 우리 식으로 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주체성과 민족자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으로 그리고 강성대국건설도 우리의 식으로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로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웨칠수 있는 토로이다.

총면적 22만여km²의 크지 않은 나라, 그것도 외세에 의하여 민족과 령도가 둘로 갈라져 있는 세계의 마지막분렬국, 세계제국주의의 아성인 미제와 충구를 맞대고서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고 있는 조선이 오로지 자기의 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결심을 가지고 총 돌격전에 나선것이다.

세상형편을 둘러 보면 지구의 동서남북 어디라 없이 소란스럽고 악착하고 검질긴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이 걸음마다 시각마다 목을 조이고 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대국건설하는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것도 오직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 식대로 한다는것은 다른 그 어떤 민족도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여기서 특히 《과학과 기술의 목표를 점령해도 최첨단수준으로》라고 한 노래가사에는 세계최상의 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이 뜨겁게 구현되어 있다.

자기의 심장속에 언제나 품고 사는 애국, 애족, 애민의 마음,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그 품에 청춘도 미래도 운명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존엄을 그대로 뜨겁고 절절하게 담은 노래를 우리 청년들이 그리도 사랑함은 너무도 자연스러운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인민이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를 그리도 즐기며 사랑하며 부르고 또 부르는것은 거기에 그것 없이는 못살 우리 시대의 혁명적량만, 조선식락관주의가 맥맥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은 무한하며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또다시 비약하면 반드시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주의로 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혁명적락관주의,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일관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천품과도 같이 체현하고 계시는 숭고한 혁명가적 기질이며 그것을 그대로 닮은 **김일성**민족의 정신이며 기상이고 기백이다.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정치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더 높이, 더 빨리 달려 나갈수 있는 비약의 나래를 우리 인민에게 펼쳐 주었다.

위대한 선군정치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일심단

결의 힘은 무한하다.

세상을 들었다 놓으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전복시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인민의 담과 배짱은 커질대로 커지고 강해질대로 강해 졌다.

우리 힘 당할자 있다면 맞서 보자, 우리는 너 죽고 나 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 이것이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우리 인민에게 안겨 준 조선의 담이고 배심이며 배짱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이 든든한 배심과 배짱을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에 나섰다. 우리 인민은 오직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길, 우리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주체강국건설의 길로 자신만만하게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것이다.

조선고유 의 이 특유한 혁명적락관주의는 노래 《더 높이 더 빨리》에 특별히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특히 앞소절들과 선률적대조를 이루면서 노래의 고조를 이루고 있는 후렴에서 최절정을 이루고 있다.

...

더 높이 오르자 더 빨리 달리자

장군님의 령도 따라 부강조국건설으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여기서 우리는 강성대국을 향해 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질풍같이 만속으로 달려 온 강성대국의 건설자들이 이제는 멀지 않게 다가오는 희망의 그 리상봉을 확신에 넘쳐 바라보며 자신도 만만하고 여유도 작작하게 희열과 기쁨에 넘쳐 차창마다로 승리의 상징인 붉은 기발을 한껏 흔들어대는듯 한 감정으로 하여 걱정을 누를수 없는것이다.

노래 《더 높이 더 빨리》는 오늘의 약동하는 시대와 생활이 방불하게 펼쳐 저 있어 노래는 친근하게 안겨 온다. 그래서 부르고 부를수록 뜻이 깊어 더 부르고 싶고 흥취가 나며 부르고 나면 깊은뜻과 넘치는 정서로 하여 더욱더 새힘이 솟아 마음속에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선군시대의 명가사, 명곡이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전차방송에서 노래 《더 높이 더 빨리》가 울려 왔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노래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했듯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땅우에 일떠세울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 본다.

운명

김재원

땅을 분여 받은 그해 봄
봄같이 웃으시던 나의 할아버지
발머리에 펄펄 박아 놓은 그 말쑥한 표말뚝
마치 가문의 운명이거나 한듯
누가 뽑을가봐 꼭 그러 안으시고
아예 그옆에 풀막치고 사시었네

양푼을 두드리며 덩기덩기 굽새춤 추며
이웃들과 함께 밀려 가던 마을 선거장
그 아침선거장 그 푸른 솔대문이
마치 난생 처음 인간세상으로 들어 서는
운명의 대문이거나 한듯
그리도 신비롭게 쳐다보던 파란 하늘이어

그 시절 인민의 운명은
분여지의 그 하얀 표말뚝에 놓여 있었고
선거장의 그 푸른 솔대문에 실려 있었네
허나... 침략의 검은 무한궤도 굴러 들던 그 밤
수호신인양 나의 할아버지
총대를 거머 잡고 동구밖에 나섰으니

오오, 판가리 결전장에
할아버진 온몸의 붉은 피로 도장 찍듯
증명했어라
삶의 표말뚝도 운명의 솔대문도
땅이 아닌 총대우에 뿌리 내려 있음을
저 파란 하늘도 총대우에 열려 있고
우리 사는 이 땅도 총대우에 놓여 있음을!

마음의 기동

지난 세기 60년대 초 어느 날이었다.

중낮에 한설야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정원길을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급한 일때문에 달려 왔던 서기도 선생의 사색에 방해될가봐 주춤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몇시간전부터 작가동맹과 영화인동맹에서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

한설야는 대답을 해놓고는 왼손을 들어 흔들며 《지금은 나를 방해하지 마오.》라고 하며 서기의 말을 밀막았다. 서기가 영문을 몰라 선생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한설야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서기동무, 나는 오늘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우 중요한 가르치심을 받았소.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에게 복무할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강령적인 교시를 받았단 말이지요.》

한설야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이 영예로운 과업을 어떻게 관철하겠는가 하는 방도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 안으면 어떤 문제를 핵으로 하여 어떤 주제의 문학을 창작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침식을 잇고 사색하는 성미였다.

그후 그는 여러차례나 작가들의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신통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하투쟁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을 써야 한다는것, 유격전을 비롯한 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글을 써야 한다는것, 항일무장투쟁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써야 한다는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출판된 국내의 문학작품들중에서 이 부문에 맞는 작품을 골라 재판하는데 힘을 돌려야 한다는 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어느것이나 적중한 안이 못되었다.

한설야는 조국통일부문 일군들을 만나 토론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그는 이 부문 일군과 마주 앉아 이렇게 물었다.

《부장동무,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자면 어떤 내용의 문학작품들이 요구되니까?》

오스트롭스끼가 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철의 흐름>, <고난의 길>과 같은 작품입니까? 아니면 장광자가 쓴 <압록강가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깨닫고 혁명의

길로 나서게 되는 작품이어야겠습니까?》

《선생, 내 생각에는 우리 통일혁명에 당장 필요한 글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승만피뢰들은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속에 반공, 숭미사대주의를 주입시키면서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봉쇄해 놓고는 거짓선전공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는 복을 바로 알기운동까지 벌어 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야겠습니까?》

한설야는 실머리나 잡은듯 흥분한 눈빛으로 부장을 바라보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정신을 바로 가지고 마음의 대를 똑바로 가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장은 자기의 말에 크게 흥분하는 한설야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거야 사람들에게 신념을 심어 주는것이지요.》

《신념?!》

한설야는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 섰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벌써 깨달아야 했을것이다.》

우리 수령님을 잘 알게 해야 한다. 만경대의 혁명일가를 잘 알게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수령에 대하여 잘 알게 하여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동을 바로세워 주어야 한다.)

한설야는 확신성 있게 말하였다.

《우리 문학이 바로 전설적영웅, 민족의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더 높이 형상하여야 합니다.》

한설야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펜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부터 소설 《만경대》를 비롯한 여러편의 글을 써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업을 작가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의 창조적힘을 불러 일으킬 생각을 못하였다.

이 력사적과업은 70년대에 들어 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박승록

내 고향도시

전찬기

거룩한 자욱

오시였던 수령님께선 떠나시었으나
어제런듯 남아있는 그이의 자욱
내 고향 이 바다기슭에 뚜렷한
거룩하고 숭엄한 그이의 자욱자욱...

항일의 포연내 가시지 않은
백두산군복을 그냥 입으신채
조국광복의 감격어린 그 가을날
이 기슭을 거니시던 은정의 자욱자욱...

온몸에 습배인
그 포연내, 풀내, 땀내를 가서 드리려는
조선의 마음인양 그이가슴에 안기는
시원한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던 수령님

어머니의 자애로운 쓰다듬과도 같은
아기의 철 없는 응석과도 같고
살뜰한 련인의 애무와도 같은 해풍에
감회 깊으신 미소를 지으시며 걸으시던 수령님

추억도 많아 감개무량하시었던만
고생도 많았던 투사들에게 휴식도 못 시키고
또 먼 길을 보내야했다시며
나라를 보란듯이 일으키고 폭 쉬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수령님

무거운 중책을 지니고 떠나는 그들

한사람 한사람
백두산사령부에서처럼
전우들을 떠나보내신 그날의 자욱자욱-

그 거룩하신 자욱에서 움 텴다
이 땅을 지킨 영웅들의 위훈은
그 거룩하신 자욱에서 꽃 피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내 고향도시의 행복은

오, 자신을 깡그리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에서 꽃 피난 내 고향 내 조국이기에
준엄한 전화의 줄폭탄들도
거리와 마을은 무너뜨렸어도
인민의 마음은 허물지 못했거니

흘러 간 20세기 50년대
미체를 때려 눕히던 날에도
이 바다기슭에 새겨 진
수령님의 그 자욱 가슴에 안고
천만배의 용맹 펼쳐 놔들을 이겼더라

오, 고향도시의 이 기슭을 거닐 때면
내 심장에 되새겨 주는
동해의 끝 없는 속삭임소리 속삭임소리-
수령님께선 그날에 이 기슭을 거니시었다!
그날에 만년초석을 닦으시었다!

영웅들의 노래

송도원 백사장을 걸으며
내 고향 푸른 바다, 푸른 숲, 흰 모래...
이 아름다움을 지켜 피 흘린 영웅들을
소리높이 내 노래하려 했던만

묵묵히
생각에 잠겨
희디흰 모래불을
걸고 또 걷는다

나는 모른다
그날의 그 처절한 결사전에 피 흘린

수많은 영웅들의
그 누구 하나 이름도 얼굴도-

기슭을 치는 저 파도소리에선
지휘관의 그 힘찬 돌격웨침소리 들려 오고
술숲의 굽이치는 설레임에선
백병전에 나아가던 그 함성을 듣는 여기

있었으리 정다운 어머니결을 떠나온 젊은이도
사랑하는 처녀와 작별하고 온 전사도
머슴명에 벗어 치고 주인이 된 고향땅에
귀여운 자식들을 두고 온 아바이병사도

그들이 발휘한
그 용맹, 그 신념, 그 아름다움
정의롭고 억세인 그 마음을
어떤 가락이면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날의 준엄한 격전을 치르고
지금도 풀숲에 묻혀 있는 화점이며 말해 다오
그날의 영웅들이 지켜 낸
파편자리 뚜렷한 소나무들아 이야기해 다오

그 영웅전사들
애 써 그려 보며 생각할수록
내 가슴은 저 파도마냥 일렁이고
내 귀가에는 술바람 타고 들리어 온다

아, 그들이 틀어 쥐었던 그 총창의 부딪침소리
원췌 향해 날린 그 총알 그 웨침!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 안는
이 세상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조국애의 노래 아니랴!

누나의 묘소에서

열아홉살이던 우리 누나
우리 누나가 묻힌 이 묘소에
잔디만 파랗다

어린 동생들 셋
우리 셋이 어찌 살가 걱정이 돼서
여기에 자리 잡았던가

총을 메고 집을 나선 아버지가
원췌를 이기고 오는걸
기어이 보고야 말 그 마음이던가

줄폭탄에 어머니마저 가신
손아래 동생 셋을 잊지 못해서
집 가까이 이 언덕에 있는 누나

아, 밤마다 복구대일 하다가
함포탄에 가신
숨 저서도 우리 생각에 못 감던 누나의 그 두눈

잔디 파란 묘소가 지금 그 눈처럼 나를 보네
말은 일 다했는가 물을 때처럼
오늘도 일 잘하는가 묻는것처럼

나팔산

나팔산!
난공불락의 진지로
네 이름을 떨쳐 놓고
갔다 영웅들은
청춘을 바쳐

원췌의 함선에
멸적의 포탄을 날리고 날리며
아침 저녁 나팔소리 울리던 그 해안포병들
그들에게 포탄을 섬기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랑스럽게 불러 력사에 새긴 이름 나팔산!

적함포탄에 기울어 졌다가도
받침목을 딛고 어깨들에 받들리며
포는 포마다 복수의 불을 뿜었고
기여 드는 마지막놈들까지
군민이 한몸 한마음되어 막아 낸 격전의 고지

어린 시절 내 에서 뛰놀다가 죽던 그 탄피엔
묻어 있었다 영웅들의 피가
그 영웅들의 큰 발자국들에

군사놀이 작은 발자국들을 덧찍을 때
내 작은 손나팔로 신호도 해보던 곳

오, 조국을 위해 바친 고귀한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발치는것이더냐
지금은 이 기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의 영웅들과의 인연으로 느껴 보며
문득 뜨거워 지기도 하는 가슴, 깊어 지는
생각...

영웅들의 그 모습으로 나팔산은 솟아 있다
때로 바다 저 멀리 배전에서 보면 네 모양은
추켜 든 나팔같이
그날의 그 전호로 나를 부르기도 하는
바다가에 바투 나앉은 고향의 자랑스러운 산

너는 군민이 함께 싸워 이긴
그날의 기념비로
오늘도 멸적의 숨결 불 타는 가슴가슴에
필승의 나팔소리 힘차게,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내 고향의 자랑 아, 우리의 나팔산!

바다만 바라본다

온 시내가 다 보이는 남산마루에
우리 영웅도시의 상징처럼
하늘 높이
인민군추모탑이 솟아 있다

총창 꽃은 보충에
붉은기를 멘 대리석기념비
그앞에 룡해공군 청동의 군상들은
곧추 바다를 바라본다

포연에 숨 박히던 그때
총창을 비껴 들고 창격전에 나아가던
그 순간의 눈길로 지금도 보병은
바다가를 바라본다

중으로 불 타는 가슴
어뢰를 안고
미제의 구축함을 노리던 눈길로 해병은
바다만 바라본다

명사십리 저 비행장에서 리룩했던
그날의 비행사
미제항공모함으로 육박하던 눈길로
바다만 바라본다

풍어기 날리는 고기배들이
손뽕금소리 흥겹게 기슭으로 올 때도
그 배를 지키는 모습
우리 도시를 지키는 모습으로
영웅들은 바다만 바라본다

저 바다로 원쑤가 들어 왔고
놈들의 군함, 놈들의 비행기, 땅크도
바다에서 달려 들어 불 태웠던 도시
모든 재난이 저 바다에서 기여 들었기에

례사로운 날 길을 걷다가도
원쑤의 군사연습 알리는 방송소리 들리면
누구나 습관처럼 우리는
바다를 바라본다 저 영웅들의 눈으로!

고향의 도시

설이면 모두 모여서
서로 다른 직급은
저고리처럼 벗어 우정의 못에 걸어 놓고
알마음들로 즐겨 보는
내 학창의 벗들이 있는 고향도시

길을 걷다가도 《오빠》 하고 찾는
현숙한 너인을 만날 때
평양의 큰 일군 내 친구의 자격으로
스스럼 없는 누이동생으로 담소도 하는 도시

갈매기는 집집의 창턱을 스치며
집비둘기들과 어울려 날고
푸른 동해는 뜰안의 호수인양
발밑에 펼쳐 있어
고향의 정다움이 가슴에 출렁이는 곳

내 불 붙는 가스탑을 막아
한몫을 내대었을 땐
아낌없이 살점도 떼여 주고
순결한 피도 나누어 주던
그런 사람들 웃으며 사는 정다운 고향

고수머리우에 모자 비스듬 엮어 멋을 부리고
방파제아래 낚시줄 드리운 저 청년도

걸음발 타는 아기의 땀손을 갈라 잡고
하냥 기쁨에 취한 젊은 부부도
이 땅 지켜 싸운 영웅들의 후손임을 믿어
내 눈길 스스로 정답게 겨야는 해안도시

오늘의 도시는 행복에 젖어 있어도
도시의 역사엔 얼마나 많은 피와 땀 스며있었는가
오늘의 행복을 바래서 바친
끝끝한 청춘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 청춘들, 그 피땀에 받들려 솟은 오늘이기에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 누구나 와서 보라고
내 고향의 사연 어느 때나 와서 들으라고
한밤에도 쉬임없이
장덕섬 등대는 물길을 밝혀 성실하거니

그 누구에게도 모욕 당할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숭보이지 않게
솟은 산발들은 엄엄해라
저 황홀한 동명산 30층주택거리를 일으킨
사람마다 신념 강직한
사랑하는 내 고향 항구문화휴양도시

우리의 이 자부심 비길데 없으라

불비 내리던 50년대엔

김일성장군님 계시어

승리한 인민, 승리한 도시

오늘은 우리의 진두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나니

내 사랑 내 자랑 속속들이 배여 있는

이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

이 시원한 술술의 푸른 잎새 하나

한번 건드려 보려는 자 있다면

놈은 먼저 제 목숨을 잃게 하리라

아, 내 고향 영웅도시 원산이여, 원산이여

평론창작경기 조직요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 4월 28일 평론부문에 남아있는 낡고 구태의 연한 부족점을 극복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론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시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말씀과 주체90(2001)년 8월 21일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여 평론사업에서 전면적혁신과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평론창작경기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평론창작경기내용

-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을 령도하시어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을 새 세기에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평론,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작, 창조된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의 불멸의 의의와 미학정서적감화력을 깊이 있게 분석론증한 평론.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사상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 우리 식의 새로운 선군혁명문학운동과 창작을 힘있게 추동하는 평론, 특히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을 열어 주시고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폭 넓고 심오하게 해설 선전하며 주체사실주의문학에서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선군혁명문학의 본질과 미학적특성,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상문제를 깊이 있게 해명한 평론.

-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는 주체문학의 성과와 문학운동을 선도하는 모든 내용

의 평론, 특히 작품의 결함을 예리하게 분석비판하고 교훈을 찾도록 하는 비평.

2. 평론창작경기의 종류

작품분석에 대한 철학적깊이와 이론적심도, 작품생리에 맞는 형상방도의 탐색으로 창작을 선도할수 있게 씌여 진 문페평, 작품평, 단평 등 모든 평론형식을 다 포괄한다.

특히 평론형식을 대담하게 혁신하고 문제를 다양하고 이채롭게 하여 독자들을 끌어 당길수 있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단평인 경우에는 2편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해외공민포함)은 누구나 다 참가하며 특히 작가동맹창작분과 맹원들인 소설가, 시인, 아동문학작가, 극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4. 보낼 곳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5. 총화 및 시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론사업에 대하여 강령적 말씀을 주신 4월 28일을 계기로 총화하며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

※ 평론창작경기과 관련하여 문의할것이 있으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에 알아 볼것.

전화번호 621-9017

따뜻한 꿈

최련

북행렬차의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는 어둡고 차가운 새벽대기를 흔들며 오래도록 메아리쳤다.

그 여운을 붙잡기라도 할듯 하경은 동생의 얼어든 자그마한 손을 모두어 잡았다.

《윤경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난 아무래도 네가 거기 가서...》

윤경의 까칠하니 보풀이 인 입술우에 일순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다. 여전히 그는 울타리너머 가로등의 어설픈 불빛에 파릿하게 물든 백양나무의 앙상한 빈 가지들을 쓸쓸히 바라볼뿐이었다.

하경은 저도 모르게 호- 긴숨을 내쉬었다.

《너도 그 과장이란 사람을 잘 알잖니? 그런 사람 밑에서 뭔가 해낼수 있다는게 난 믿어 지지 않아. 너도 이제 네 생활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라도...》

《언니, 난 그 사람 밑으로 가는게 아니야.》

돌연히 터져 나온 목소리가 하경의 말허리를 끊었다.

《난 가야 해.》

윤경은 얼어 든 트렁크의 손잡이를 집어 들었다.

《내가 이제 물러 서면 그는 자기가 옳았다고 할거야. 내 꿈이 깨어 져 조박만 남았지만 난 그 조박마저도 너절한 타산보다는 훌륭하다는걸 보여주겠어.》

하경은 아픈 눈길로 윤경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과연 수정빛처럼 투명한 속에서 푸른 기운이 내비치는 저 얼굴이 한송이 꽃처럼 빨갭게 피어올라 것처럼 생기에 넘치고 매혹적이던 동생의 모습이 웅단 말인가.

하경은 흘러 내린 동생의 목수건을 꼼꼼히 여며주었다.

《윤경아, 다 알아.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구나. 난. 네가 잃어 버린걸 어떻게든 찾아 주고 싶다. 네 생활은 이제 시작이구 아직은...》

《언니, 그만해. 난 가겠어.》

윤경은 도망치듯 승강대에 올라 뒤돌아 보지 않고 열차안으로 들어 갔다.

한밤중에 떠나는 열차여사인지 드문드문 빈 자리가 눈에 띄이는 차안은 썰렁한 느낌을 주었다.

윤경은 차창옆에 자리를 잡았다.

희디흰 창가림을 드리운듯 성애가 하얗게 내뿜린 창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윤경은 창유리에 입김을 내뿜었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퍼져 나가더니 투명한 유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은빛바늘

같은것이 가로세로 뻗어 나가더니 다시금 꿈의 장막처럼 하얀 빛으로 변하며 모든것을 가리워 버렸다.

언니, 잘 있어. 언제나 막냉이로밖엔 처신할줄 모르는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처녀의 눈에 넘칠듯 고인 눈물이 파르르 떨어졌다. 그때 덜컥- 하고 열차가 움직였다.

×

《정신들 차려야겠소!》

생산부기사장의 지루한 토폰이 끝나자 협의회의 저조한 분위기를 돌변시킬셈인지 ○○관리국 립성무과장은 처음부터 어성을 높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하루빨리 당에 새형의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를 생산했다는 충성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도소조가 내려 온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밖에서 거칠은 바람이 뽀뿌라나무의 가지들을 후려 치며 이리저리 불어 치는 광경을 물끄러미 내다보던 사람들은 주섬주섬 앓음새를 고쳤다.

《문제는 새로 개발해야 할 부분품들이요. 이것 때문에 각 연구기관들에서 연구사동무들이 내려 왔는데...》

기술부기사장동무, 유압기계연구소 연구사동무가 참가했소?》

병밀굽을 도려 낸듯 한 근시안경을 낀 기술부기사장이 엉거주춤 일어 섰다.

《예, 최윤경동무가 자료조사때문에 연구소에 올라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창문가에 앉아 있던 윤경이 조용히 일어 섰다.

《여기 참가했습니다.》

순간 립성무와 윤경의 눈길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쳤다. 립성무는 인차 부드럽고 유연한 표정을 지었다.

《동무가 자기가 말은 열교환장치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입했다는 말은 나도 들었소. 그런데 내가 알고싶은건 그게 언제까지 완성될수 있는가 하는거요.》

윤경은 침착한 아조로 대답했다.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현재 컴퓨터모의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필 뒤등으로 책상우에 가볍게 장단을 치던 립성무의 손이 멎었다.

《3월 중순까진 끝내야 하오.》

《그건 담보할수 없습니다. 필요한 시험공정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은 삽시간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 졌다. 무엇인가 충격적인 일이 생길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힌 긴장한 시선들이 과장과 마주 선 가냘픈 몸매의 처녀를 주시했다.

《그럼 못하겠다는거요?》

《전 못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학에는 주관과 인연이 없는 자기의 생리와 법칙이 있다는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유난스레 크게 울렸다. 사람들은 인차 그것이 림성무의 원주필에서 심이 빠져 들어가는 소리였다는것을 알고 모두 숨을 내쉬었다.

회의장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잔물결처럼 퍼져 나갔다.

《처녀가 당돌하구만.》

《속에 얼음만 가득 찬것 같네.》

《여간 아닌데.》

림성무는 사람들속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처녀 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종소. 어쨌든 채취공학연구소에서 내려 온 유압전문가 리남진동무가 동무의 그 연구사업에 새로 인입되었소. 유능한 동무요.》

윤경은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모욕이나 뽕대정도가 아닌 무시였다. 자기가 자리를 비웠던 며칠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 났던것이 다.

예상치 않았던 그만큼 타격은 컸다.

《좀 휴식합시다. 15분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림성무의 말에 기다렸던듯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잠간새에 텅 비어 버린 방에 윤경은 홀로 앉아 있었다. 휴회를 선포하던 림성무의 목소리가 그냥 귀전에 맴돌았다. 그쯤한 도전은 닭알로 바위치기 격이라는 무언의 속대사가 느껴 지는 태연 자악한 어조...

《용감한데요.》

낮선 목소리에 윤경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 보았다. 출입문쪽에 또 한사람이 아직 앉아 있었다. 시원스럽게 룰락을 그린 얼굴에서 먹으로 찍은듯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청년이었다. 내심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활기가 번쩍이는 눈빛때문인지 아니면 입가에 떠도는 여유 있고 자신 있어 보이는 가벼운 미소때문인지 그에게서는 좀전의 회의장분위기와는 다른 싱싱하고 역센 기운이 내뿜기고 있었다.

《리남진이라고 합니다.》

윤경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니 이 청년이 바로...

얼굴에 진정인지 거짓인지 모를 감탄의 빛을 띄운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학적인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나 도전하는것은 과학자에게만 차례지는 특권이지요. 하지만 그 특권을 행사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운이 아니지요.》

윤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싱글거리는 청년의 얼굴을 뚫어 지게 쏘아 보았다.

《이건 조롱인가요?》

격분을 억누르는 그 목소리에 청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닙니다. 이건 저의 진정입니다.》

윤경은 한동안 청년을 쏘아 보다가 차겁게 말했다.

《그래요? 도전을 할수 있는것이 특권이라면 유능한 연구사로 선발된건 특혜인가요? 축하해요.》

남진은 윤경의 어조에서 울리는 비양기를 느끼는듯 마는듯 혼연히 대꾸했다.

《고맙습니다. 난 다만 그러루한 특권은 비싼 대가로 얻어 진다는걸 알고 있을뿐이지요.》

윤경은 홀연 신경이 바이올린줄처럼 팽팽해 지는것을 느꼈다.

《후에 다시 만납시다.》

《만날 필요가 없을거예요. 전 제가 맡은 짐을 남에게 들씩우고 싶진 않아요.》

처녀의 차디찬 반발에 남진은 한순간 멈칫했다.

《아니, 만날 필요가 정말 없는가는 두고 봐야 겠지요.》

그는 제 먼저 문쪽으로 향했다.

뒤따라 윤경도 밖으로 나왔다. 먼 대륙쪽에서 불어 오는 서북풍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바람은 몹시도 차거웠다...

《언니, 좀 추려 가자요. 6시부터 회관에서 무도회를 하는데 뭐 시예술단 취주악대를 초청해 왔대요. 이자 방금 도착했는데 번쩍번쩍하는게 막 눈부셔요. 언니가 나서면 모두 놀랄거야.》

《오늘은 공장명절이에요. 현지도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저녁만이라도 좀 쉬세요.》

오돌진 생김새가 신통히 쌍둥이처럼 비슷한 사도공처녀들은 윤경의 방에 뛰어들어 분주탕을 놓았다. 그 바람에 항상 정적에 잠겨 있던 방안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뒤설레는것 같았다.

윤경은 그들이 부러웠다. 한편 밤낮 이 방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가룩한 마음에 가슴속 한구석이 따뜻이 젖어 들기도 했다.

《난 좀 출출 모른단다.》

《거짓말! 빨리 차비를 해요. 네?》

처녀들은 막무가내로 윤경을 벽겨울앞으로 잡아끌었다.

《가겠다. 가겠어. 그런데 준비할 시간을 좀 주렴.》

처녀들은 저들끼리 서로 마주 보더니 고개를 까딱까딱했다.

《그럼 우린 먼저 가요. 안 오면 또 데리러 오겠어요.》

그들은 포르릉 새들이 날아 가듯 사라져 버렸다. 한순간 방이 텅 비어 버린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윤경은 창가로 다가가 옷쪽의 환기창을 열었다. 군데군데 무저 있는 눈무지들이 녹으며 풍기는 싱그러운 냄새와 함께 회관쪽에서 흥겨운 무도곡이 흘러 들었다. 그음악이 불현듯 처녀의 마음을 흥분으로 뛰놀게 했다. 대학시절 윤경은 춤을 잘 추어 학부를 벗어 난 전 대학의 선망의 눈길을 모았었다. 무용수처럼 매출하고 균형 잡힌 몸매며 세련되고 우아한 그의 춤동작을 보며 무용강습을 내려 왔던 예술단 안무가는 입을 다시기까지 했다.

《아깝소. 동무는 원래 천성이 예술이요. 선택을 잘못했소.》

윤경은 밝게 웃었다.

《선생님, 예술에 대한 감각과 사랑이 없이 과학에서 성공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는 윤경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말들을 즐겁게 할수 있었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어 진것처럼 서먹하니 느껴 진다.

왜서일까? 정말 나한테서 활기와 랑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싸늘한 채무지처럼 회의심만 남은것일까. 착잡한 생각들이 엇갈리는 속에 새로 시작된 서정곡이 맑고 시원한 샘물마냥 흘러 들었다.

해빛에 반짝이는 시내물, 아름다운 기슭을 차마 떠나기 아쉬워 뒤돌아 보다가 계곡으로 떨어져 수천의 은구슬로 환희의 도약을 하고는 머나먼 대하를 향해 즐기차게 흘러 가는 시내물...

《윤경동무.》

등뒤에서 울리는 난데없는 목소리에 윤경은 하닥닥 놀라며 창가에서 돌아 섰다. 진회색잠바를 단정히 입은 남진이 문가에 서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처녀의 방에 불쑥 들어 선것이 자기의 불찰은 아니라는듯 그는 싱긋 웃었다.

《무슨 일이에요?》

윤경은 창가에서 물러 나 설계대로 다가갔다.

《회관에 갔었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춤을 추는데 윤경동무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데리러 오는 길입니다.》

《관심해 주어서 고맙군요.》

《우리야 공동연구를 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천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그 말에 윤경은 돌아 섰다.

《공동연구?》

윤경의 날카로운 어조에도 남진의 그 여유 있는 자세는 조금도 허물어 지는것 같지 않았다.

《참, 과장동지한테서 동무가 나의 협조를 거절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문제는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열교환기를 하루빨리 내놓는가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윤경은 말문이 막혀 버렸다. 뭐라고 맴뎠 응대를 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다.

남진은 천천히 도면대로 다가갔다.

《난 동무에게 열교환회로를 Z방식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것을 권고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새로운 5통로 회전변과 유성감속기와의 호상련관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 호상련관이 새 세대 열교환장치에 있어서는 유기체의 생리와 같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고급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고무신을 신은격이라고 할는지...》

《뭐라고요?》

윤경의 얼굴이 타는듯 붉어 졌다가 다시 하얘졌다.

《표현이 지나치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고급구두가 아닌 다음에야...》

《그만해요. 전 룡담할새가 없어요.》

《나 역시 룡담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Z방식으로는 안됩니다.》

남진은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동무한테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라도 있는가요?》

《있습니다. 교방식입니다. 교방식으로 해야만 우리 우리가 만든 굴착기가 세계적수준이 된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교방식이란 말에 윤경은 아픈 곳을 찔려온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너무나도 귀에 익은 말이였다. 수년전부터 그 방식에 의한 열교환회로를 완성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던가.

《교방식에 대해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공상에 불과해요.》

말을 마친 윤경은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남진을 마주 보았다. 그는 윤경의 시선과 부딪치자 얼굴을 돌리더니 창가로 다가갔다. 문득 창가에 놓인 꽃병을 바라보던 그의 입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새여 나왔다.

《하! 종이꽃이로구만.》

가벼운 실망이 담긴 어조였다. 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꽃줄기를 만지작거렸다.

《난 언젠가 한 처녀한테서 꽃을 받은적이 있지요. 향기가 가득한 꽃을 말입니다. 그 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녀의 마음이 돌아 섰는가 보군요.》

《아니, 그렇진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받을수 있을거예요.》

《그렇가요?》

남진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듯 얼굴이 환해졌다.

《바람두 쏘일겸 함께 나가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남진은 흥겨운 무도곡소리가 흘러 드는 환기창에 얼핏 눈길을 주었다. 그의 눈에서는 즐거운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윤경은 창문가로 다가가 환기창을 닫아 버렸다. 하지만 음악은 그냥 방안에 흘러 들었다.

남진은 빙그레 웃었다.

《제가 알기엔 휴식할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줄도 모른다더군요.》

《그런가봐요. 전 일할줄 모른답니다. 춤을 출줄은 더구나 모르지요.》

《거짓말을 하는군요. 난 윤경동무가 연구소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무용수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레사롭게 울리는 그 목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던 윤경은 다음순간 편똥 놀랐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누구길래 이 공장에서 아무도 알수 없는 내 생활을 알수 있을까?

《난 윤경동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남진은 윤경의 눈이 커지는것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

《특히 왜서 교방식을 외면하는가는 더욱 모르지요. 참, 래일 평양에 올라 가는데 뭐 전할건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꼭듯이 인사를 남기고 남진이 떠나간뒤 윤경은 긴장이 풀려 힘없이 창가에 기대어 섰다.

교방식을 주장하던 남진의 열 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가슴을 허빈다. 교방식, 교방식...

어느새 창가에는 어둠이 내려 앉았다. 가녀에 하얗게 성에가 불린 창유리복판으로 별들이 보인다. 창가에 매달려 추운듯 파들파들 떠는 그 별빛은 잔약하고 짜늘하면서도 날카롭다. 그 빛이 지난해 여름밤 차거운 복도바닥에 산산이 깨어져 버린 인형의 사기조각벽에서 반짝이던 그 섬광을 련상시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인형은 색동치마저고리에 깡뚱한 쌍태머리를 한 소녀를 형상한 손가락만 한것이였다. 금방 나래를 펴고 푸른 창공을 날으려는 하얀 비둘기를 꽃잎 같은 손바닥에 높이 받쳐 든 소녀의 눈동자에서 환희가 빛발치고 있었다. 천진한 동심이 비긴 인형을 무심결에 들렀던 공예품상점에서 사든 순간부터 윤경은 그때껏 안정을 이룰수 없었던 마음이 저으기 가벼워 지는것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동물 만나겠다요.》 하는 말을 들은 전날부터 심한 불안에 잠겨 있던 처녀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손에 들어 온 조그마한 인형이 아득히 멀어 졌던 동심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며 어수선한 마음속 불안을 가셔 준것이였다.

소녀는 활짝 웃는다. 그 맑은 눈동자속에 파아란 하늘이 비졌다. 그 넓은 하늘로 소녀의 희망을 실은 비둘기는 이제 흰 나래를 활짝 펼치고 해님을 향해 훨훨 날아 오르리라.

그날 저녁 은근한 향내가 떠도는 방에서 림성무와 마주 앉았을 때에도 윤경은 그 인형을 손에서 놓을수 없었다.

《애길 많이 들었소. 새로운 유압장치를 연구한다지.》

차갑게 번쩍이는 검은 피아노를 등지고 쏘파에 비스듬히 앉은 림성무는 소탈하게 말을 시작하였다.

《유압분야는 공학에서도 험치 않은 분야지. 교방식은 더더구나 그렇구. 그래 윤경인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확신하겠지? 적어도 그걸 바라고 있다고 할가?...》

윤경은 그때껏 다소곳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전...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단 말이지...》

윤경인 생활과 사랑엔 서로 다른 론리가 있을수 있다는걸 생각해 본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구. 난 아들이 행복한 생활을 꾸리길 바라는 아버지야.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누구나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 설 때는 다 제나름의 꿈이 있구 희망과 포부가 있지. 하지만 실지 그 길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해서 성공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많지 못하지. 현실은 그만큼 냉혹한것이든. 더우기 녀성의 몸으로...》

림성무는 살짝 좋은 너부죽한 얼굴에 사려 깊은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한순간 긴장되였던 윤경의 마음은 림성무의 따뜻한 시선을 대하자 다시금 안정되였다. 두손에 감싸안은 인형이 어느새 땀에 축축히 젖었다. 하지만 소녀에는 여전히 윤경을 바라보며 티없이 맑은 웃음을 웃는다.

《제가 아직 수준이 어려 큰 전진은 없고 또 우리 유압공학실천에 난관도 있는건 사실이지만 전저의 꿈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땀과 노력이 깃든 새 유압제품이 성공할 날이 꼭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림성무는 김이 문문 솟아 오르는 차잔을 집어 들었다.

《그러니 윤경이한테는 생활과 사랑이 하나의 론리로구만. 그래야지.》

하지만 제 마음 먹은대로만 안되는게 생활이야닐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생활에서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 지는것은 아니거든.

여담이지만... 나한텐 이루지 못한 첫 사랑이

있었소. 이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난 이따금 혹시 내가 그때 그 사랑으로 살았더라면 나의 생활이 오늘과는 다르게 되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 결국... 나한테는 두개의 론리였소.》

림성무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듯 실눈을 지으며 허거픈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게 웃는 림성무를 바라보며 윤경은 무등 놀랐다. 자식과 같은 사람앞에서 외교적인 레의를 차리지 않고 자기의 진정과 추억을 열어 보이는 그가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림성무는 차를 한모금 들이켰다.

《하기는, 생활과 사랑이 하나의 론리로 이어져 행복할수만 있다면 그거야 더없이 좋은 일이지! 우리 윤경의 말처럼 두개가 아닌 하나의 론리를 만들어 보자구.

저녁식사를 하고 가오.》

윤경은 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거리에 나선 윤경의 걸음은 가벼웠다. 그렇듯 엄청나게 두려웠던 첫 상면이 뜻밖에도 가식 없는 진정이 오고 가는 따뜻한 마당으로 되었던것이다. 문득 그는 자기가 들뜬김에 래일 오후 파학원에서 진행되는 론문심의를 깜빡 잊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저녁 늦어서야 시내에 들어서게 되겠는데 그 동무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초저녁인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 섰다.

밤에도 식지 않는 삼복더위를 피해 반쯤 열어놓은 출입문결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윤경은 그만 무릎 굽어 졌다.

《안돼. 고무풍선처럼 똥똥 뜬 공상가는 우리 집에 들어 올수 없어. 되지도 않을 일에 2년째나 매달려 있는걸 봐도 공상가라는게 명백해. 공상은 먹고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윤경은 처음 그 애된 녀인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종잡을수 없었다. 한순간이 지나서야 좁전에 상냥한 태도로 자기를 바래주던 안주인의 목소리라는것을 알아 차렸다. 하지만 그 거칠고 랭담한 목소리가 방금전 《잘 가세요. 다시 만나요.》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웅단 말인가.

《어머니, 전 사실 윤경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할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만나보겠다가에...》

《아버지가 만난건 너의 립장을 세워 주기 위해서다. 이제 만나거든 적당히 돌려 대거라.

젊었을 땐 그게 다 있을수 있는 일이야.》

림성무의 툇진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글쎄 처녀가 툇툇해 보이기는 하던데... 오돌치고 담차고... 그 처녀가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도 있겠지. 하지만 들렸거든. 현실적으로 사고할줄 모른단 말이야. 꿈이라는건 깨지면 다라는걸 리해하지 못하거든.》

녀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 졌다.

《이제 며칠 있다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동창생

네 집에 가보야 한다. 처녀가 직업이 좋구 인물도 쓸쓸하고... 전문학교졸업생이지만 보다 중요한건 그 집이 너의 앞날을 받쳐 줄수 있다는거야.》

《글쎄... 가보긴 하겠습디만...》,

그때 윤경의 손에서 인형이 떨어 졌다. 썩-하는 아츠러운 음향과 함께 사기인형은 복도바닥에 산산이 부서 져 나갔다.

윤경은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황급히 깨어져 나간 조박들을 주어 묶는 그의 손이 건잡을수없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옷실을 여미며 나오던 청년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아니, 윤경동무! 난 사실...》

다시 일어난 윤경은 곧바로 계단을 향해 걸었다. 그는 걸음새를 정확히 하려고 애 썼다. 뒤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지켜 보고 있었다.

(울어선 안돼. 비칠거려선 안돼.)

윤경은 몸부림치듯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 밤에 처녀의 어린 가슴에는 그 날카로운 사기조박이 아프게 박혔다.

...역시 현실은 랭혹한것이였다. 번번이 실패하는 실험, 더욱더 묘연해 보이기만 하는 성공의 앞길...

그럴 때마다 윤경의 귀전에는 꿈이란 깨지면 다라던 림성무의 목소리가 울리며 자신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것이 아닐가, 자신의 꿈은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공상이 아닐가 하는 생각으로 모태기군하였다.

×

일주일후 한낮의 해빛이 따듯이 비칠무렵 윤경은 공장구내에 있는련못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는 자기가 무엇에 이끌려 여기로 왔는지 몰랐다. 설계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전부 수정하여 마침내 제작에 넘긴 환희가 자기를 끝냈는지 아니면 좁다란 설계실에 불박혀 어느새 메마르고 창백한 인간이 되어 버리고 마는가 하는 반발심이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알수 없다.

백사장으로 흘러 드는 지류가 만들어 놓은 자연못이라는데 훌륭한 휴식장으로 되고 있었다. 여름이면 해 목은 버드나무아지들이 실실이 드리우고 푸른 수초들이 우거진 이 못가가 공장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기슭이라고 했다. 그 기슭에 오늘은 물버들이 뽕안 망울들을 대롱대롱 피우고 섰다. 산탄자옥처럼 구멍이 송송하고 군데군데 깨여진 검푸른 얼음장사이로 파아란 물이 해벌에 아롱이는 기슭에 그것들은 어깨를 모아 붙이고 서 있다. 하이얀 솜털에 둘러 싸인 망울들을 살짝 다쳐 보니 마치도 아기의 볼에 자기의 볼을 가져다 대었을 때처럼 보드랍고 따듯하다. 여러

디 어린 그 분홍빛망울들이 자기에게 무어라고 귀엽게 속살거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렇듯 엄혹한 겨울이었지만 자기들을 영영 얼구어 버리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지켜 낸 저들의 삶을 이제 봄의 대지속에 푸르게 펼치겠다고 윤경이만이 알수 있을 말로 속삭인다.

윤경은 갑자기 눈썹리가 화끈 달아 오르는감을 느꼈다. 봄의 첫 소식이 장엄한 레포의 우렁찬 선언으로가 아니라 이렇듯 애어린 모습으로 소리없이 찾아 온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을 불러 일으키는것이였다.

《연구사언니!》

별안간 쉿쉿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날아 왔다. 사도공처녀가 얼굴이 빨갛게 되어 달려 오고 있었다.

《언니, 제가 방금 도면복사를 끝내서 현장에 갔다 주러 갔었는데 글썽 열교환기제작을 중지시켰어요.》

《누가?! 과장이?》

《아니예요. 평양에 출장 갔다 돌아 온 남진연구사동지가 중지시켰대요. 자긴 공동연구조라면서.》

사도공처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윤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언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

사도공처녀는 바람처럼 앞서 걷는 윤경의 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황히 따라 섰다...

남진은 현장에서 직장책임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말끝인지 그들은 즐겁게 웃었다. 긴 얼굴이 부얼부얼한 책임기사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윤경을 보자 웃음을 채 거두지 못한 채 굳어 졌다. 남진은 책임기사의 급작스러운 표정변화에 이상한것을 느꼈는지 흘깃 눈길을 돌렸다.

《잠간 만나요.》

푸른 불이 비낀 윤경의 눈을 바라본 남진은 머리를 끄덕였다.

약삭바른 책임기사는 윤경의 심상치 않은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예감한듯 얼른 사라져 버렸다.

《무슨 일입니까?》

윤경은 너무나도 천연스러운 그 태도가 억이 막혔다.

《동무가 중지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동문 그 설계가 심의에서 통과되었다는것을 모르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가 처녀의 분노를 더 한층 키웠다.

《그럼 무엇때문에, 무슨 권리로 중지시켰는가말이에요.》

《나에게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Z방식에 내량심이 동의하지 않았습시다.》

《아직은 그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건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공상이 아닌 현실속에 살고 있어요.》

《공상이라고요? 이곳 로동계급의 숭고한 리상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만들고 있는 이 굴착기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굴착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만들려는 열교환기가 난관앞에서의 절충이고 타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키겠는가 말입니다.》

남진의 눈에서는 솟불 같은것이 타고 있었다.

《우리 지식인들은 로동계급의 아름다운 꿈앞에 자기의 진심으로 마주 서야 할것입니다. 절충은 진심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들이치는 그 목소리에 윤경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제 넘어 지면 영영 일어 설수 없게 된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자기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설명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할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거예요.》

찬바람을 일으키며 윤경은 직장을 나섰다. 방금전 버들개지를 꺾으며 가슴속에 그들먹히 채워졌던 환희의 감정은 간곳없이 사라졌다. 대신 회의와 경멸, 분노의 감정들이 뒤고패치며 쓰라린 아픔을 자아낼뿐이었다.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저리남진이란 인간은 어째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것일까. 립성무는 그렇다치고 생면부지의 그 사람은 무슨 한을 품었기에 코코마다 나를 비웃고 아프게 찌르는것인가. 끝없이 물물기쳐 오는 분노와 설움을 씹으며 윤경은 걸었다...

...마침내 윤경은 도면의 마지막장을 덮었다. 맨끝에 《설계가 리남진》이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눈앞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 섰다. 파란 불씨가 날아 들며 현훈증에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한동안 까딱 않고 서 있던 윤경은 주전자 있는 곳으로 다가가 물고뿌를 들었다.

의심할바없이 남진은 교방식으로 열교환회로를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은것이다. 그는 자기가 반년가까이 고심하면서도 끝내 찾지 못했던 비밀의 통로들을 찾아 내고 마침내는 서유럽의 기술을 룡가하는 회로를 완성하였다.

윤경은 험썩해 진 얼굴에 흘러 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눈길은 한열에 놓여 있는 서류더미에 멎었다. 보풀이 인 수첩들, 기름얼룩이 진 학습장들, 한귀통이가 찢어 진 시험기록들... 거기에 찍여 진 하나하나의 수치들을 얻자면

몇밤을 새워야 하는지 윤경은 너무나 잘 안다. 가슴을 조이는 수습차의 시험끝에 얻어 내는 이런 수치들을 어찌 모래산을 씻고 또 씻어 얻어낸 금싸래기에 비길수 있으랴.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 낼수는 없는 이 모든것을 수재의 두뇌로만 평가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열교환회로설계에 착수한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착잡한 생각들사이로 기름얼룩이 커다랗게 퍼져나간 작업복을 걸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던 남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속한 룡말도 잘하고 우스개소리도 곧잘 퍼놓는 그를 노동자들은 연구사라기보다 자기들의 허물 없는 동료로 대하는것 같았다. 그들은 남진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것을 좋아 했고 식사시간이 되면 저마끔 잡아 끌었다. 어쨌든 학자라면 의례히 련상되는 두툼한 안경이며 도고하고 엄숙한 자세와는 애초부터 인연이 없는것 같은 청년이다.

생각에 잠겨 있던 윤경은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고뿌를 내려 놓았다.

수화기로 울려 나오는 림성무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틀지고 위엄기가 내뿜졌다.

《그래 내가 어제 보낸 리남진동무의 자료들을 다 봤소?》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동무도 교방식이나 자방식이나 하는 문제에 자기 결심이 섰겠구만. 시간이 없단 말이요.》

윤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됩니다. 열교환기는 리남진동무의 교안으로 제작될것입니다.》

《교안으로? 그럼 동무의 자안은?》

윤경은 수화기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히 젖어드는것을 느꼈다.

《전 물려 서겠습니다. 절 소환시켜 주십시오.》

《소환?》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던 림성무의 목소리가 다시금 날아왔다.

《잘소, 토론해 보지요. 좀 있다 내 방에 오오.》

수화기를 놓고 윤경은 이마에 돌아 난 땀을 훔쳤다. 그 짧은 순간에 이처럼 엄청난 결심을 할수있었다는것이 저 자신으로서도 놀라왔다.

그는 초연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 와 책상우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간간히 정리해 놓았다.

국지도소조는 종합사무청사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청사현관에 들어 서던 윤경은 자기를 찾는 목소리에 멈춰 섰다. 남진이었다.

《들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토의가 끝났습니다. 동무가 물려 서겠다고 한 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한순간 어리둥절해 졌던 윤경은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건 누구의 말인가요?》

《우선 나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교안이나 자안이나 하는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동문 열교환기제작에 끝까지 참가해야 합니다.》

윤경은 억이 막혔다.

《생각해 주어 고맙군요. 제가 여기 남아서 쫓다발을 엮기 바라는가요?》

《종도록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문 그 자안 하나를 위해 여기 내려 온건 아니기때문에.》

자기 말은 끝났다는듯 남진은 출입문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 갔다.

발자욱소리는 멀어 졌지만 윤경은 움직일수 없었다. 되돌아 서야 하는가, 아니면 올라 가야 하는가. 마치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듯 한 생각이 들었다.

《동무는 자안 하나를 위해 여기 내려 온건 아니기때문에.》

그 어조에서 풍기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그것이 무엇일까. 항상 아득한 높이에 서서 자기를 굽어 보며 조롱하는것 같은 그앞에서 난 왜 자신심을 잃어 버리고 허둥대는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윤경은 자기를 현장으로 떠미는 그 미지의 힘을 뿌리칠수 없다는것을 너무나 잘 안다. 가자, 그 힘이 떠미는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아니면 그 어떤 환희가 기다릴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주저앉을수는 없다....

《기다렸소. 비합금소재가공은 연구사동무가 꼭 봐줘야 할것 같아서.》

수더분하게 생긴 직장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비합금소재라는 말에 윤경은 놀라다. 열교환기의 부분품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얻기가 힘든 희유금속소재였다. 수차 제기했지만 국에 청구서를 냈다는 대답뿐 언제 해결되겠는지 오리무중이었다. 너무 안타까와 대응자재를 써볼 생각까지 했다. 그러면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소재때문에 한달을 기다릴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문득 해결되었다니...

직장장은 눈이 휘둥그레 졌다.

《아직 모르고 있었소? 남진연구사가 이것때문에 간밤에 150리길을 달렸다고. 저 자전거꼴을 좀 보오.》

직장장이 가리키는 휴게실 한구석에 불품없이 되어 버린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광성기계공장에서 부지배인으로 일하는 대학동창에게 부탁했다누만. 전화가 오자바람으로 떠났는데 올 땐 기차시간을 기다릴수 없어서 친구의 자전걸 끌구 나섰다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 튕굴었다는데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더구만.》

성미두 원...》

그제서야 윤경은 장의자에 대수롭지 않게 걸려 있는 보위색솜옷이 남진의것임을 알아 보았다. 남진의 체격에 잘 어울리던 그 품위 있는 솜옷이 지금은 흙탕으로 범벅이 되고 어깨부분의 혼술이 터져 나와 비죽이 하얀 솜이 드러나 보였다. 윤경은 솜옷을 끄당겨 차곡차곡 포개었다. 그는 직장장의 시선이 자기의 손에 미치는것을 느꼈다. 불현듯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한다. 하지만 놓고싶지는 않았다. 가슴속 한귀퉁이로 썸 솜아 오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결이 터갈라 진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 윤경은 가공직장에서 교방식에 의한 열교환기제작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밤이 늦어서야 합숙으로 돌아왔다. 온몸은 피로로 하여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더욱 맑아져 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들수가 없었다.

창가에 질푸른 비단처럼 드리운 밤하늘 한가운데 언니의 얼굴이 나타나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지켜 보고 있었다.

《넌 그러니 여기 계속 있겠다는거냐?》

윤경은 정말 언니를 눈앞에 보듯 머리를 끄덕였다.

《네 꿈의 마지막조박까지 부정 당하구두?》

《언니, 깨어 진 인형은 이미 인형이 아니라 사기조박이겠지. 그것처럼 내가 지금껏 품고 있는 건 꿈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의 조박이었어. 그래서 아픔만을 주었던거야.》

《그럼 지금 넌 무엇을 바라고 있니?》

《글쎄, 나 자신도 딱히는 알수 없어. 어쨌든 전과는 달리 무엇인가 즐거운 일을 마중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

《언니, 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군 해. 누군가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온것처럼 현실은 랭혹하기만 한것이 아니라는 생각, 도리어 우리 현실, 우리 생활은 따뜻하구 온화하구 또 아름다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 그리구 이제 잃어 버렸던 내 꿈도 다시 찾을것만 같은 생각 언니생각엔 어때?》

《...》

언니는 대답없이 미소를 짓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다.

언니의 얼굴은 불현듯 사라지고 검푸른 하늘중 천에 보석을 쥐여 뿌린듯 별들이 찬연히 반짝인다. 그 령롱한 반짝임들에 무언가 희망과 환희, 래일에 대한 크나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것들을 모두 이어 놓으면 아름답고 유정한 시가 된것만 같다. 그것을 읊으면 한없이 다정한 이 고요속에서 또 얼마나 청아하고 랑랑한 선물로 울려 퍼질것인가.

문득 푸른 밤하늘을 가르며 류성이 긴 꼬리를

끌고 떨어 저 내렸다. 류성이 떨어 질 때 꿈을 말하면 그 꿈이 이루어 진다지. 나는 무엇을 말 할가.

×

며칠후 공장의 구내방송은 열교환기의 시제품 제작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은 모두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져 마침내 닥쳐 올 굴착기의 완성을 두고 기뻐 했다. 그럴수록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눈앞에 둔 남진은 긴장한 시간을 보냈다.

오전내내 그는 조립도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교방식으로 제작한 열교환기의 성능시험은 다른 연구조들에서 개발한 부분품시험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때까지 시험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정황들을 예상하여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했다. 남진은 이번 열교환기시험회로에 먼저 제작된 전자비례변을 조립할것을 주장했다. 윤경은 반대했지만 남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폐쇄된 정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흐름속에서 열교환기의 성능을 검사해야 했다. 속으로 결심을 굳히며 도면에서 눈길을 땀 남진은 시선이 굳어졌다. 시험대앞에 꼼짝않고 선 윤경을 본것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전 소환장을 받았어요. 연구소로 올라 가라는...》

《소환장?!...》

윤경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장을 내밀었다.

《이럴수가 있는가... 아니, 가선 안되오.》

윤경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동무의 생각이예요. 내가 올라 가겠다고 제기한건 사실이고 또 파장으로로서의 직분은...》

《그만하오. 나도 알고 있소. 동무와 립성무과장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도.》

윤경은 한순간 멍하니 남진을 쳐다보았다.

《전번 출장길에 동무의 언니를 만났댔소. 그래서... 알게 댔소.》

《알았다고요? 동무가요?》

윤경의 목소리는 떨리며 마디마디 끊어졌다.

《그래요. 난 그때 내 생활이 온통 사랑으로 차있다고 확신한 철부지소녀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표리부동한 처세의 희생물이 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불안을 자아내는 무겁고 긴 침묵이였다.

《가시오.》

남진의 약간 쉬여 버린듯한 목소리에 윤경은 편뜻 시선을 들었다.

《가란 말이요. 동무가 없어도 우린 우리의 굴착기를 만들거요. 가되 이곳 로동계급속에 있었

다는, 우리 로동계급이 당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 속에 자기의 땀도 있다는 그런 추억은 영영 지워 버리시오.》

윤경은 피 터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하군요.》

《너무하다구?》

남진의 눈이 윤경을 순간에 태워 버릴듯 이글거렸다.

《동문 누구한테서 배반 당했소? 조국이요? 아니면 타산이요? 그런데 오늘 동문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 똑똑히 알아 두오. 그런 나약한 의지를 불들고서는 영영 일어 설수 없다는것을.》

남진은 도면을 말아 쥐고 가버렸다.

그의 말은 한마디한마디가 그대로 예리한 칼날처럼 윤경의 상처를 사정없이 갈라 놓았다. 아픔은 모질었지만 그것은 통쾌한 아픔이었다. 그속에 오래동안 자기를 얹매고 있었던 고통에서 마침내 벗어 난 환희가 있었다.

밖으로 나온 윤경은 오래도록 못가를 걸었다. 언젠가 버들개지를 꺾으며 환희에 잠겼던 그 못가에서 지난 겨울의 흔적인듯 마지막얼음장들이 꺼져 내리고 있었다. 부풀어 오른 봄물이 푸석푸석한 얼음장을 깎으며 기쁨에 겨워 저들끼리 얼싸안고 뒹굴며 무엇을 속살거리는지 같았다. 그 봄물은 윤경의 가슴속으로도 좌좌 소리를 내며 흘렀다.

…그날 저녁 윤경은 어째서인지 딱히 종잡을수 없는 예감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사람들이 흩어 저 갔을 때 전자유압변을 어깨에 멘 남진이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는 윤경을 보고 처음엔 놀란 기색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시험대에 전자유압변을 조립했다. 그의 거동에서 더 드릴수 없는 의지를 느낀 윤경은 말없이 그를 도와 나섰다. 한시간쯤 되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것을 확인한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서로 마주 보았다.

《시동스위치를 누르시오.》

윤경은 초들초들 마른 입술을 추졌다.

《알겠어요.》

붕- 하는 소음과 함께 전류가 흐르고 시험대우에 놓인 열교환기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두사람의 긴장한 눈빛이 측정기들의 눈금들을 예리하게 주시했다.

1... 2... 4

점차 작업표준상태로 치달아 오르는 눈금을 살펴 보는 윤경의 해쓱한 얼굴에 점차 붉은 기운이 퍼여 오르기 시작했다.

성공수치는 9였다. 9에서 열교환기가 정상으로 가동하면 그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7에서 눈금이 바르르 떨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와 함께 자기 심장도 한순간 멎었다가 다시 뛰는것 같아다. 윤경은 다른 측정기의 눈금들을 바라보았다. 정상

이다. 인제는...

마침내 눈금은 9라고 새겨 진 수자앞에 섰다. 성공이다. 열교환기는 아무 일없이 작용하고 있는것이다.

윤경은 남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환희가 빛나고 있었다.

《성공이에요.》

속삭임에 가까운 윤경의 목소리였다.

《아니, 아직은 그렇게 말할수 없소.》

《네?》

윤경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성공이 아니라니? 그는 다시한번 측정계기들을 살펴 보았다.

《무엇때문에 그래요?》

남진은 눈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대답했다.

《우리가 바라는 수자는 9가 아니라 12요.》

우리가 바라는 수자? 12?

그 말뜻을 음미하던 윤경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12라니? 그것은 열교환기의 최고부하, 아니 그 이상을 의미했다.

《어쩌자고 그래요?》

피득 윤경에게로 시선을 돌린 남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굴착기가 최고마력을 내자면 12까지는 올라 가야 하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험이었다. 자칫하면 모든것이 파멸로 이어 질수도 있다.

《스위치를 끄세요. 그러다가...》

윤경은 자기스스로도 다음말이 두려웠다.

남진은 듣는지 마는지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단단한 체구전체가 눈이 되어 긴장하게 눈금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수첩에 측정계기의 눈금들을 침착하게 적었다.

9... 10...

윤경은 더 생각할 사이없이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중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피땀을 들여 세운 공든 탑이 한순간에 허물어 질수 있었다.

《어쩌자는거요?》

스위치에 뻗친 윤경의 손을 남진의 억센 손이 움켜 잡았다.

《꺼야 해요.》

불이 이는 눈이 윤경을 내려다 보았다.

《안되오.》

윤경은 남진의 태도가 너무나 확고한데 또 한번 놀랐다.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지금은 끄자요. 최고부하시험은 다음번에...》

《비키오.》

남진은 윤경의 손을 밀어 버렸다. 그 억센 힘에 떠밀려 난 윤경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남진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평-》 하는 소리에 이어 물씬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며 모든 눈금들이 0으로 떨어 저 내린것은 그로부터 10초 되나마나한후였다.

윤경은 천천히 두손을 풀었다. 모든것이 끝장난 것이었다. 절망의 표정으로 남진을 본 그는 눈을 홑떴다. 남진은 웃고 있었다. 그렇다. 그의 거뒀해 진 얼굴에서 하얀 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성공이요! 이런걸 두고 성공이라고 하는거요. 12.5까지 작업을 했소.》

윤경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남진을 바라볼뿐이었다. 과연 그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열교환기가 파괴되었는데 웃을수 있단 말인가. 저사람은 도대체 철로 만들어 졌단 말인가.

《컴퓨터로 가지요. 당장 이 수치들을 넣어 봐야겠소.》

남진은 수첩을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윤경은 제대로 몸을 가눌수조차 없었다.

남진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그는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왔다.

얼굴빛이 푸르러 진 림성무도 나타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길로 시험대를 바라보았다.

《남진동문 어디 갔소?... 한심하오. 어떻게 만든 설비라구 이 꼴루 만드는가?》

윤경은 잠자코 그 말을 들었다.

《이제 완성날자를 어떻게 지키겠소? 도대체 뭘 믿구 이런 모험을 했는가 말ियो.》

《우린 우리의 심장을 믿었습니다.》

난데 없는 목소리가 뒤쪽에서 울렸다. 윤경은 그 목소리의 임자가 남진이라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사람들이 좌우로 비켜 섰다. 길이 나졌다. 그랑 끝에 림성무와 남진이 서 있었다.

《동문 굴착기를 제 기일에 만들지 못하게 된 책임앞에서도 그런 황당한 말을 할수 있소?》

《할수 있습니다. 우린 당에 보고 드린 기일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얻었습니다.》

《과학적담보? 그 담보를 여기서 어떻게 믿는가 말ियो?》

《믿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을 설계도면의 한장 한장을 대하듯이, 발명건수를 따지듯이 대해서는 안됩니다. 도면을 그리고 새로운 착상을 하는것은 인간입니다. 피가 있고 열이 있고 감각이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리는 도면 한장한장에 래일에 대한 꿈이 숨 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꿈을 짓밟는것은 그 어떤 리유로도 정당화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림성무는 얼굴이 거뒀해 질렀다.

《좋소, 관리국총화에서도 그런 시 같은 말을 할수 있는지 봅시다. 난 이 실태를 정확히 보고

하겠소.》

림성무가 떠나가자 모여 섰던 사람들도 하나 둘 헤어졌다.

남진은 윤경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손에 쥐였던 수첩을 넘겨 주었다.

《이 수첩에 다 적었소. 이 수치들에 근거해서 다시 설계합시다.》

윤경은 놀랐다. 바위 같은 인간, 그 힘의 끝을 가늠할수 없는 이 사람은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경은 설계실에서 온밤을 꼬박 새웠다. 피곤은 커녕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불물처럼 온몸을 달아 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한낮이 가까울수록 설계실로 사도공처녀가 들어 선것도 그는 미처 느끼지 못했다.

《언니.》

사도공처녀는 피곤이 가득 실렸으나 그보다는 환희가 빛나는 그 얼굴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언니, 언니 막 아름다워.》

윤경은 밝게 웃었다.

《좀 기다려. 이걸 제껴 가져다 주고 올테니.》

《그만뒤요. 남진연구사동진 없어요.》

사도공처녀는 윤경의 의아한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파장동지와 새벽차로 올라 갔어요. 관리국에서 회의를 있다가 봐요. 아침에 언니를 만나러 왔었는데 설계에 여념이 없는걸 보더니 이 편지를 쓰더군요.》

그는 도면말이와 함께 네모나게 접은 흰 종이를 내밀었다.

윤경은 서둘러 편지를 펼쳤다. 낯익은 글씨가 하얀 종이위에 흐르고 있었다.

《윤경동무. 떠나기전에 만나고 싶었지만 사색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로 씁니다. 사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윤경동무, 동무는 종시 기억해 내지 못했지만 난 2년전 동무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 채취공학부문 새 기술토론회가 생각납니까? 교안에 의한 새로운 유압장치에 대한 동무의 토론은 너무나도 새롭고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으로 가득차 있어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놀랐고 공상이 아닌가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무를 만나려고 결심하고 회전문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 진 동무가 손에는 방금 토론회장에서 받은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동무앞에 감히 다가서기조차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동무를 불러 세우고 그 착상의 현실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제단엔 정통을 찢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동문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꿈이에요. 성공이 열매라면 꿈

은 꽃이에요. 동문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가요?>

동무는 불쑥 손에 쥐였던 꽃을 내게 내밀었고 나는 열결에 그 꽃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통을 찢리운것은 나였습니다. 멀어 저 가는 동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별안간 주위가 온통 생신한 향기로 가득 차 있는걸 느꼈습니다. 나는 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직도 하얀 구슬 같은 물방울이 점점이 맺혀 있는 생신한 꽃잎, 휘늘어진 줄기, 파아란 잎새, 꽃 전체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였습니다. 나는 그 향기를 폐부깊이 들이마시었습니다. 그때 그 꽃이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린가 봅니다. 이렇게 교안은 바로 동무의 그 귀중한 착상에서 시작된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현실화했을뿐입니다. 여기 내려 와 동무를 보았을 때 나는 동무를 다시 만나게 해준 행운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윤경동무, 언젠가 내가 무례하게 소리친것을 용서하시오. 우리의 꿈은 결코 허황한 공상이 아닙니다. 잠을 깨면 산산이 흩어 저 버리는 일장춘몽은 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래일에 대한 깨뜨릴수 없는 믿음이고 그것을 당겨 오기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하기에 그것은 넋이 있고 피가 있으며 맥박이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 어떤 개인적인것

으로 되기전에 조국을 위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무의 꿈도 시대의 지향과 합쳐 질 때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될것입니다.

여기 평범한 로동자 한사람한사람의 가슴속에도 그 꿈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어 그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것을 이겨 내며 웃으며 삽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외롭지 않을겁니다.

윤경동무, 국에서 일이 끝나면 인차 내려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남진 씀.》

윤경은 울었다. 가슴을 에이는 슬픔의 시각에도 강잉히 참던 그 눈물은 행복의 이 시각 불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 내린다.

강가의 버들강아지를 매만지며 밖을 내다보던 사도공처럼 말했다.

《봄비가 내려요, 언니.》

윤경은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밖으로 나왔다.

흑독한 겨울을 이겨 낸 대견하고 다정한 대지에 새 생명의 계절을 속살거리며 비가 내린다. 멀리보이는 푸르스름한 산발마다에도 련못가의 허리굽은 버드나무의 아지에도 고마움의 눈물처럼 젖어 드는 봄비...

봄비는 파스했다. 새 생명을 지닌 꿈은 윤경의 온넛을 따듯이 감싸안고 있었다.

가사

붉은 백두산

박정애

성스러운 백두산에 아침해 솟으면
아득한 붉은 밀림 파도쳐 설레이네
수령님 안고 오신 붉은기폭이런가
사람도 산천도 한빛으로 물들이네
승엄하여라 백두산 붉은 백두산

항일의 선렬들 더운 피로 물 들어
이끼 덮인 바위도 붉은 빛을 뿌리네
천지의 물결도 불길로 치솟는가

그 어떤 광풍도 한빛으로 불 태우네
장엄하여라 백두산 붉은 백두산

수령님 한생의 그 위업 찬란하여
그 언제나 올라도 내 마음의 붉은 산
주체위업 완성하실 장군님의 신념으로
백두의 붉은 노을 온 누리에 펼쳐 지네
영원하여라 백두산 붉은 백두산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의 첫 기슭에 서니 마치도 봄들판에 나선 농사군의 마음처럼 꿈과 희망, 기대의 아지랑이가 가슴 가득 피어 오릅니다.

땅을 걸구지 않고 피와 땀을 묻지 않고, 풍만한 가을열매를 어이 바라겠습니까.

새해의 첫 자욱을 힘 있게 내디딘 작가들의 뜨거운 맹세와 신념과 의지의 숨결이 맥박치는 첫호부터 《조선문학》의 전야에는 무르익은 낱알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거듭 베풀어 주시는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속에 목 메이던 하루하루가 달을 이루고 해를 이루는 나날속에 우리 작가들의 심장속엔 뜨거운 의리의 피만이 짙 차흐르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붓대로 받들어 결사옹위해 갈 신념의 맹세가 맥박칩니다.

바라건대 새 세기 첫해인 지난해 우리 당의 선군숨결이 맥박치고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정이 나래치는 명작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창작되어 편집된것처럼 올해에도 참으로 불만한 작품들이 자기의 모습을 이채롭게 드러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

의 혁명적문제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작가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참답게 보답하는 길이 있다.》

조국의 강성대국건설과 함께 문학의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새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시는 선군령도의 자욱마다에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일떠서는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 있게 울려 퍼진 심장의 메아리와 특색 있는 성격과 생활의 맛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은 손에서 《조선문학》을 놓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날들을 위해 모두 건강하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조선문학》의 발전을 위해 편집원들과 함께 한줄 닦은 강냉이도 나누어 들며 그 누구보다도 눈비 오는 험한 길을 많이 걸었고 시련과 어려움도 곳곳이 이겨 내면서 밤도 많이 지새우며 피와 땀, 생명이 아끼지 않은 작가동지들.

새로운 성공과 승리가 약속된 새해를 축하합니다!

-편집부-

새해결의

더 잘, 더 많이...

더 잘, 더 많이...

이것은 누구나 새해를 맞으며 다져 보는 마음일것이다. 그래서 새해는 더더욱 희망차고 또 아름다운것이 아니겠는가.

내 마음도 같다. 새해에는 더 잘, 더 많이...

해마다 다지면서도 미진함을 남긴 결심이지만 새해에는 방학숙제를 하루 또 하루 미루고 미루다 개학날을 맞는 학생처럼 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혀 본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작품,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찬가로 될 작품을 쓰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의 숭고한 사명이고 의무이다.

나는 새해에 우선 신념과 의지의 인간 비전향

장기수를 형성한 작품을 소설다운 소설로 완성해 보려고 한다. 그와 함께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일군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한다.

아직은 제목도 없고 주인공의 형상만 머리속에서 무르익혀 가고 있을뿐이지만 새해에 독자들이 그 소설들을 읽을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새해에는 더 잘, 더 많이...

이것이 강성대국건설에 펼쳐 나선 우리 인민도 두의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나의 마음도 합쳐 다시한번 가다듬어 본다.

소설가 **한웅빈**

새해와 나의 자세

지난해 말에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도하신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와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급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산에 갔었다.

작가가 되어 처음으로 걸어본 취재길이였다.

작가는 물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벅찬 생활이 창조되는 곳으로 먼저 찾아 간다. 그런 까닭에 부딪치는 생활도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가 훌륭하다.

우리는 의연히 힘겨운 행군을 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것이 부족하고 곤란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이 모든것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 내면서 강성 대국건설에로 내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아직까지도 어려운 형편에 빙자하면서 앉

아몽개는 현상, 제 살 궁리만 하는 현상들도 있다.

작가라면 이러한것을 외면할수 없다. 눈에 보이는 번지르르한것만을 골라 가며 글을 쓸수는 없다.

작가라면 마땅히 부정을 타매하고 사람들을 정의와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글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다면 나는 어떤 글을 써야 하는가.

시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대할것인가.

결국 정치적식견문제이다.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 작가의 눈을 가지는것이다.

나는 새해에 이것부터 배우려고 한다.

소설가 리준호

선군문학건설의 전조선에서

소설문학은 시대정신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성격을 띤다.

조선의 작가로 분연히 일어 서서 격동하는 21세기 위대한 선군혁명시대를 진실하게, 격조높이, 의의 있게 형상하지 못한다면 먼 후날 후대들의 무자비한 경원의 눈초리를 피할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의무감과 역사적사명감, 민족적 책임감이 우리 작가들, 선군시대 작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틀어 쥔 펜을 더더욱 무겁게 하고있다.

선군시대의 반영은 곧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의 예술적형상이다. 선군문학건설에서 걸어 온 길보다 걸어 가야 할길이 더 멀고 한일보다 할일이 더 많은 저로서는 새해를 맞으며 생각이 깊어 진다.

문학수업의 첫걸음부터 최고사령관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어느덧 40대의 중견작가로 자라난 저는 수령형상문학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제나름의 모색과 탐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미학적기대앞에 보답 못하는것으로 하여 자책감을 금할수 없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의

미숙한 재능도 귀중히 여기시여 활짝 꽃 피워 주시였을뿐아니라 장편소설 《순간과 영원》, 《고요한 행성》을 창작하였을 때에는 적은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여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작가에게 있어서 보답의 길은 곧 실력을 가지고 실적을 내는것이다.

저는 천근만근으로 느껴 지는 펜을 더욱 무겁게 틀어 쥐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폭 넓게 반영한 수령형상 장편소설 《총대》창작에 온 심혈을 기울이겠다.

전선길에서 해와 달을 맞으시며 늘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의 총대는 우리 전사들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사상예술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선군문학건설의 전조선에 선 작가의 본분을 다하겠다.

그리고 새해에 저는 구상중인 새 장편소설 《사변전야》(가제)창작을 줄기차게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깎 들어 찬 선군정치를 받드는 기수, 돌격대로 준비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소설가 박윤

단거리선수의 속도로 달리겠다

실천된 결의를 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새해엔 좋은 시를 쓰자.》 번번이 결의로만 끝난 해들을 돌아 보며 또다시 같은 결의를 다져야 하는 내 마음 민망스럽기 그지 없다.

현실은 시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사변적이고 또 정서적이다.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평북도땅만 보더라도 어버이장군님께서 자주 오시는데 마치도 시를 쓰라고 그렇게 오시는듯 신통히도 대한날의 정월이 아니면 하지때의 여름이다.

들리시는 곳만 보더라도 시인들이 마음껏 정서의 나래를 펼치고 오를수 있는 10명당원들의 공장이 아니면 《고난의 행군》을 거쳐 온 이 땅에도 이런데가 있는가 싶게 놀라우리만치 아름다운 농촌마을이다.

두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것이야말로 시가 아닌가 무릎을 칠수 있을만큼 감동적인 마디마디 말들이다.

하면서도 내자신이 좋은 시를 쓰지 못하는것은 시인으로서 초보적인것, 본질적인것이기도 한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인으로 사는 이상 좋은 시를 남겨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데 있으랴.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하다.

자주 사람들이 당신은 뭔가 남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소 하고 나에게 물을 때면 난처하고 자신이 서글퍼 지기도 한다.

자신처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서정의 호수를 안고 시인의 대렬에 들어 섰다.

그 작은 호수에서 거의 서른해 물을 퍼냈으니 바닥인들 왜 드러나지 않겠는가.

물을 채워야 한다.

다시, 다시 문학신인의 그 시절로 되돌아가 시인으로서의 준비부터 해야 한다.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보겠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길밖에 없는 나로서는 힘겨웁지만 마라손선수의 속도가 아니라 100미터 선수의 속도로 달리야 할줄 안다.

그래서 이해에 발표된 나의 시들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은 100미터속도로 나머지 구간을 달렸소 할수 있게끔 살겠다는것이 새해 나의결의미다.

시인 김정철

평론다운 평론을

선군혁명문학의 빛나는 봉우리를 쌓아 온 우리 문학의 모든 형태가 다 그러하지만 우리 평론부문은 지난해에 너무나 궁지롭고 행복한 특전을 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새 세기 우리 평론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평론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 주시였으며 평론가들에게 은혜로운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 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문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국평론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을 우리 식 평론운동으로 힘 있게 불러 주시였다.

위대한 스승과 자애로운 어버이의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고 뜻 깊은 새해를 맞는 우리 평론가들의 심장은 평필로 우리 당의 선군평도를 받들고 선군혁명문학을 빛내리라는 불 같은 맹세로 불 타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의 기대와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평론활동에서는 너무나 한것이 없음을 자책하며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아직도 자신의 평론창작에서는 철학적깊이가 부족하고 형상의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실리적인 평론으로 되지 못하는 부족점이 극복되지 못하고있다.

나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철학적안목과 식견을 넓히는데 힘을 집중하겠다. 하여 당이 바라는 실력 있는 평론가로 준비하겠다.

새해에 나는 선군혁명문학운동에 힘 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성 있는 평론을 창작하겠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론사업에 대하여 강력적 말씀을 주신 4월 28일을 계기로 조직하는 평론창작경기에 문제작을 가지고 적극 참가함으로써 우리 문학운동에 다소나마 기여하겠다.

우리 평론운동의 미래는 창창하고 낙관적이다.

더욱 탐구하고 사색하고 분발하자. 하여 새 세기 평론운동을 보다 더 높은 경지에 끌어 올리자. 이것이 나자신에 대한 새해의 요구이면서 우리 평론가들에게 호소하고싶은 나의 심정이다.

평론가 리용일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김휘조

탄전의 아침

탄부들이 간다, 갡으로 간다
불그레 물든 하늘엔 해가 뜨지 않았는데
발구름소리 발구름소리
먼 산밭도 우줄우줄 봉우리를 들고 일어 선다
탄전길엔 서둘러 젖은 안개 흩어 진다

광장에 모여 한달전투를 총화하고
새 목표를 받아 안은 새달도 첫날
첫 출근의 발구름소리다
집집의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잠 깬 아이들이 창가에 손을 흔든다

바람을 안은 돛폭처럼 대렬앞에 펄럭이는
저 붉은기를 보아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천리마를 타던 나날
찬바람속을 석수속을
들고 온 기발이다

저 대렬속엔 있다, 탄전이 다 아는 영웅도
새 세기도 첫째 처음 탄부복을 입은
나어린 굴진공도
안전모밑에 빨간 머리수건이
불처럼 타는 전차공처럼도

그 가슴들엔 한생각
날마다 석탄일보를 보시고서야
다음일을 시작한다신 장군님생각
이 아침도 서둘러
잠을 깨운 그 생각

그이의 집무실과 탄전은
잇닿아 있거니
여기서 평양은 가까운 천리
멀어도 탄부의 마음속엔
가까운 천리

오늘도 더 높은 생산수자를 기록하리라
맹세의 발구름소리 땅을 흔든다, 아침을 흔든다
저 산기슭에선 새들이 우우
떼지어 푸른 숲으로 날아 퍼진다
깃을 치며 지저귀며 날아 퍼진다

이제 탄부들은 들어 서리라, 인차로 멀리
헤치면 탄기름이 도는 막장 멀리
거기서 번뜩이는 탄벽을 혈어혈어
안아 내리니
이 땅의 뜨거운 열을 생명의 열을

보아라, 대렬의 저앞엔
전달전투에서 이름 떨친 탄부들
가슴에 꽃송이가 웃누나
향긋한 꽃송이
새달엔 온 탄전이 꽃으로 더 밝아 지리

탄부들이 간다, 갡으로 간다
새달의 더 높은 목표를 안은
그들의 머리위로 금시
새날의 눈 부신 해가
넓은 하늘을 들고 일어 선다

해군제대군인의 일기 한토막

해군명기 금빛 닻을 탄전에 내렸다고
사람들은 묻더라, 갈매기 어이 바다를 떠났나
아침이면 진주물결 부서지는 바다
저녁이면 달도 안겨 출렁이는 바다
언젠가는 바다로 다시 가지 않겠냐고

말 말어라, 산우에 또 산 사방 산천지
첩첩 산들사이 어디나 낮 선 길이
탄가루에 묻힌 길이 날 불러도

여기는 온 나라 새 진군의 돌파구
장군님 그 언제나 못 잊으시는 곳

석탄산봉우리에서 아침마다 해 뜨고
석탄산기슭에서 희망의 넓은 바다가
온 나라를 향해 창창 열리나니
나는 오늘도 그 바다에 깃을 치는 갈매기
장군님품은 어디나 내 희망의 넓은 바다
나는 오늘도 바다를 떠나지 않았네

굴진공의 맹세

그는 천천히 연락앞에 다가선다
큰집기둥처럼 든든한 어깨
수염터 푸릿한 얼굴

번쩍, 창문으로 흘러 드는 운탄선의 불빛이
그 얼굴에 비낀다

미국놈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종업원회의
쇠덩이 같은 주먹을 흔드는 그의 목소리,
한여름 폭염은 창밖에선 쿵쿵
발파소리 땅에 북을 친다

-백악관의 미싸일광신자들이
오늘도 압살을 떠들고 있수다
우리를 죽이겠다구
저 거리를 재더미로 만들구
우리 사회주의를 삼키겠다구...

마흔해 착암기를 틀어 쥐고
검은 탄에 바쳐온 흰 눈같이 깨끗한 정
티없이 주름없이 살아 온 사람
마음속 불는 불을 주먹에 모아
그는 바위 같은 가슴을 두드린다

-놈들이 떠들수록 나는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키겠소
새 세기 진군에도 앞장서서
올해계획을 석달 앞당기겠다구
우리 올린 맹세를 말어요

또다시 쿵쿵
땅을 깨우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땅처럼 두터운 가슴에서 꺼내듯

웅글은 마디마디
선전실 온 가슴에 불을 텅긴다

-우리 군대들이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목숨으로 지키는걸
우리 보지 않았소
나도 목숨 걸고 그 맹세 지키겠소

그러면 우린 이기오
그러면 저 마을들이 더 밝아 지오
그러면 저 새 거리가 더 빨리 일어 서오
그러면 저길 보오, 학교 가는 아이들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

-웁소!
온 장내가 바람을 안은 숲처럼 설렌다
-우리 기어이 해내기요
또다시 번쩍
비껴 드는 운탄전의 불빛

온 장내가 맹세를 틀어 켜
큼직한 손들을 추켜 든다, 높이 추켜 든다
웃음속에 노래속에 영원히 푸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주의를!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누런 보리이삭이 익는 저 넓은 벌과
또 저기 흰 연기 뿜는 공장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땅속길을 내리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웃고 떠들며 건강한 아이들이 크는
저 거리 밝은 창문들이 많기도 한 마을들처럼
땅속을 손금 보듯 아는 사람들

때로 차디찬 석수에
화락이 젖는 옷 말릴새 없어도
석탄이 쏟아 질 때면 만시름 놓고 웃는
고백하노니 이들의 일보다
중한 일이 있으랴, 힘들고도 중한 일이

그래서 탄전에 정을 두고 사는
고난의 날엔 통강냉이를 씹으면서도
그속에서 오히려 의지가 자란
그래서 우리 장군님
그 언제나 잊지 못하시는

이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노라
탄을 캐며 어버이 그이를 생각하고
탄을 캐며 맘씨 고운 안해를 사랑하고

탄때문에 바쁘고 탄때문에 걱정도 많고
탄앞에 소중한 한생이 가는

이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노라
나의 마음속 창문도 활짝 열어 주며
아침이면 창문에 비껴 드는 해빛을 사랑하듯이
밝은 불빛이 밤을 밀어 낸 거리
버들가지 실실이 푸른 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노라, 그 어디서 비록 처음 만나도
탄부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면 나는 사랑하노라
불이 튀는 싸움터에서
쓰러진 나에게 피를 나누어 주며
꺼져 가는 박동을 일으켜 준 전우들처럼

사랑하노라, 비록 그 이름은 다 모른다 해도
그가 탄부이면 나는 사랑하노라
무엇인가 가장 다정한 말
별지고 달길 때까지 속삭이고 싶도록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것을 다 주고 싶도록

사랑하노라,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그 없인 못살 어머니 내 조국
세상에 우뚝 솟을 강성대국할 어머니 내 조국을
나는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그들의 모습이 깨우쳐 준것

황철 (남조선)

사전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세상을 둘러 보면 참으로 무수한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사랑, 처자사랑, 동무사랑, 이웃사랑과 같은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맺어 지는 자기자 기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사랑, 인류사랑, 조국사랑 등 상상키 어려운 굉장한 폭과 깊이의 느낌으로 가슴에 묵직하게 흘러 드는 그런 사랑들도 있다.

인간생활에 이처럼 사랑이 어휘풍년을 이루고 있는것은 아마도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욕망 때문이라 하겠다. 인간은 식의주로만 살 수 없다. 사랑이 없이 물질적포식과 포만으로야 어찌 인간된 삶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갈구하는것은 인간의 본능적욕망이나.

《인간은 사랑에 주린 동물》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인간은 세상에 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속에 살기를 소원하는것이다.

어느 책에서인가 《사랑속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구절을 읽은적이 있었다. 어떤지 공간이 가면서도 허전한 느낌을 털어 버릴 수가 없었다.

물론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사랑에도 성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 법이니 세상에는 자기 한사람의 사랑을 추구하여 남의 사랑을 희생시키고 남의 불행을 악용해 자기 만족을 채우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일 그렇게 얻은 사랑속에 사는 인간들이 느끼는 《행복》은 과연 어떤것일까.

사랑은 사랑이로되 참사랑이여야 하는것이다.

참사랑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무엇보다 내가 만났던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을 복으로 송환할데 대한 조항이 명기된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기 몇달전에 나는 《뉴스신분들이 자식도 없이 홀로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자교로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외면하는것은 금수나 한가지라고 했다.》라는 말로 아들을 타일러 비전향장기수자원봉자로 몇주일 보낸적이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심은 판데 있었다. 기실 그때 나는 아들문제로 어지간히 고심하고 있었다.

흔히 성숙기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더구나 요즘 아이들이 더욱 그러하듯이 아들녀석은 사춘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나를 불안하게 했다. 짝하

면 구경이요, 오락이요 하면서 다른 애들과 밀려다니다가 밤 늦게야 집에 들어 오곤 했고 무슨 잘못을 가지고 타이르려 들면 《그쯤은 나도 알아요.》 하고 목대를 뻗뻗이 세우기 일쑤였다.

지나친 로파심인지는 몰라도 다치면 깨여 질가, 불면 날아 갈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크면서 점점 집안과 멀어 지는것 같아 마음이 다급해 졌다. 아이들에게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교양이 중요하다는데 저러다가 애가 불량소년들과 섞슬리기라도 하면 큰 일이 아닌가. 더구나 요즘련이 어 불어 닳친 경제위기와 함께 가출소년들과 불량자들이 부쩍 늘어 난데다 사회적으로 청소년교양이 허술해 물의를 일으킨다는데.

생각끝에 고안해 낸것이 아들을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그곳 장기수들의 외로운 생활을 보면서 인간생활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는 타산이었다. 현대 이러한 리기적인 타산으로 시작된 나의 행위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줄이야.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 온 아들은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지레짐작한 나는 아들에게 《그래 가보니 이젠 알겠지. 사람이 가정을 떠나면 그지없이 비참해 져. 동무 따라 강남간다지만 그건 그저 해보는 소리고 이 세상에 진심으로 널 위해 줄 사람들은 가족밖에 있는줄 아니.》 하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나의 말을 반박하는것이였다.

《아네요. 그분들을 그렇게 비참하다고만 할수는 없는거예요. 그분들은 비록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진 못해도 그보다 더 크고 따뜻한 사랑을 늘 맘속에 느끼고 있거던요. 난 그분들이 부러웠어요.》

나는 순간 아연해 지고 말았다. 불의에 뒤통수를 세계 얻어 맞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놀라움은 그후에 일어 났다. 처음엔 아들이 모든 놀음에 무관심해 지고 독서에 열중하기에 퍼그나 대견하다 했는데 어느날인가 우연히 녀석의 책상서랍에서 복의 리념도서를 발견했던것이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아들의 모습은 나에게 새로운 위구와 의문을 가져다 주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자원봉사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가. 이 의문은 나로 하여금 마침내 비전향장기수들이 함께 모여 사는 어느 한 탕제원(아들이 자원봉사를 한 곳이었다.)의 문을 두드리게 했고 결국 나에게 있어서 일생 지울수 없는 커다란 심

리적충격을 안겨 주었다.

처음에 나는 그곳 비전향장기수들에게서 외로움과 고독 같은것을 거의나 찾아 볼수 없는데 놀랐다. 얼굴에 발고랑 같은 주름이 진 늙은이들은 수십년간 겪은 감옥살이로 하여 몸이 만신창으로 짓이겨 졌고 병약했지만 표정들은 하나같이 밝고 신심에 넘쳐 있었다.

그 락천성과 담담함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나는 그곳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깨달을수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김정일**령도자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그들이 들려 준 이야기는 지금도 나의 가슴을 마냥 뜨거운 감격과 흥분으로 달아오르게 한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남조선에서 갇은 고초를 겪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하여 못내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하루빨리 송환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 오는 문제를 혁명의 길에서 굴함없이 싸운 동지들에 대한 혁명적의리로 여기며 혁명의 령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사랑으로 간주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었다 한다. 그분의 관심밑에 수십차례에 걸쳐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할것을 요구하는 북의 정부와 정당, 단체들의 성명이 련이어 발표되고 국제적범위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하기 위한 운동이 세차게 벌여 졌다고 한다. 언제인가 한 비전향장기수가 뇌졸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남조선당국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한사코 가로 막는 조건에서 북에 있는 그의 가족과 강력한 의료진을 남으로 내보내 그를 소생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다고 한다.

남쪽당국의 집요한 거부로 하여 북에 있는 가족과 의료진이 비록 남에 도착하지 못하였지만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환자에게 거듭 보내주시는 고가약들을 받아 안고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목이 메여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미 온 세계가 그토록 경탄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의 북송과정과 그가 송환후 북에서 받아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혜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리인모뿐아니라 비전향장기수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리도 따뜻한 사랑과 믿음, 대해 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고 계신줄은 미처 몰랐던 나였다.

인간생활에서 모성애만큼 열렬하고 혈육의 정이 진하게 넘쳐 흐르는 사랑은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을 그토록 즐겨 쓰는것이라.

그러나 아무리 자애롭고 다심한 어머니도 자식이 오랜 세월 슬하를 떠나 있으면 자연히 그 얼굴을 잊어 버리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정도 떠지기 마련이거늘 장장 수십년의 기나긴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따사로이 비쳐 드는 령도자님의 해빛 같은 사랑을 어찌 모성애와 같은 협소한 어휘로써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바닥 모르는 나의 생각은 2000년 8월 15일 《북남공동선언 지지관철과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추전》을 장식하는 마감순서로 진행된 비전향장기수 환송식장으로 이어 진다. 그때 북으로 송환되는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청년들과 함께 무대우에서 부른 《동지애의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할것없이 만장의 뜨거운 눈물을 자아 냈다.

돌우에 피여 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지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리러 보네

19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젊은 지도자이시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한별》로 열렬히 칭송하며 옹위하던 열화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동지애의 노래》.

비전향장기수들이 환송식장에서 굳이 그 노래를 열창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김정일**령도자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간난신고를 뚫고 온 수십년간의 지난 날에 대한 긍지 높은 총화였으며 자기들을 끝끝내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신 **김정일**령도자님에 대한 한 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었다.

석집한 목소리들을 합쳐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웅건한 모습에서 우리 남쪽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었는가. 그것은 한번 정을 주신 전사는 실사 그가 사선천리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구해 주시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세워 주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숭고한 동지관과 대대같은 의리의 세계였다.

정녕 비전향장기수들의 그 모습은 남쪽사회가 주입시킨 개인의 리기적인 사랑관에 오염되어 있던 우리들의 머리속에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열렬한 사랑중의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샘처럼 느끼게 한 감격적인 모습이었으며 비전향장기수

들이 어떻게 사상과 신념을 고수한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더우기 인구도 령토도 작은 북이 어떻게 제국주의 령강들을 휘어 잡은 강국으로 되게 되었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한 환희의 모습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북으로 송환되어 갔지만 **김정일** 령도자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고귀한 사

랑과 의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남녘의 경향각지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그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들속에 사랑과 의리의 화신이신 **김정일** 령도자님을 통일의 령수로 우러르며 그분의 품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남녘민중의 열화의 마음이 고이 간직되어 있음을 이 글에서 더 말해무엇하겠는가.

자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껏 사람들은 장편소설 《고난의 길》을 쓴 로씨야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백작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작가아들이 있었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것은 그 아들이 쓴 소설들이 지금껏 출판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년간 아. 톨스토이에게 아버지의 대를 이은 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 톨스토이의 아들 드미트리 알렉산드로비치 비스프로레토프는 1901년 1월 3일에 크림의 아크초라령지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꾸반까자크군 대목사의 딸인 클라브지야 드미트리예브나 비스프로레토프이다.

비스프로레토프는 주체3(1914)년에 쉘바스토볼의 해군유년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 나날에 흑해함대 제2해군전대에 소속되어 1차세계대전에도 참가하였다.

혁명정부에 의해 사관학교가 없어 지자 아나빠시에 가서 중학교와 선원학교를 다녔으며 졸업후에는 제니킨지원병군단의 함대로 자원해갔다.

주체8(1919)년 8일 뤼르끼예로 망명한 그는 콩스판찌노뿔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학교를 졸업하고 뿌라하종합대학을 다녔다.

대학기간에 쏘련공민권을 받은 그는 주체12(1923)년부터 쏘련무역대표부 일군으로, 주체14(1925)년부터 쏘련대의 정탐으로 종사하였다. 주체19(1930)년부터는 비밀정탐으로 활약하다가 주체25(1936)년에 쏘련으로 귀국하였다. 당시 그는 20개의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줄 알았다.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쏘련미술가동맹맹원이 되었으며 뿌라하종합대학 법학박사, 쥘리히 종합대학 의학박사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비스프로레토프는 주체27(1938)년에 쏘련정부

로부터 20년형을 받고 일반로동수용소에 들어갔으며 주체36(1947)년에 재심의를 거쳐 《독감방으로 5년, 그 다음 총살》이라는 형을 다시받았다.

3년간의 독감방생활로 심하게 앓은 그는 치료를 받은후 바이칼-아무르스크철도건설장에서 류형사리를 하였다. 그후 그는 주체43(1954)년에 발작, 중풍, 부분적인 기억불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주체45(1956)년에 명예회복된 그는 모스크바에서 사회보장을 받으며 외국문학번역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비스프로레토프는 감옥살이를 하던 주체28(1939)년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그는 생애의 전 기간에 16권으로 된 방대한 규모의 자서전체소설인 《영생하는 사람들의 주연》을 창작 하였다.

그러나 그는 생존기간에 자기가 쓴 책을 한권도 출판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작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주체64(1975)년 5월 3일에 생을 마쳤다.

최근 로씨야에서는 비스프로레토프의 소설들이 그의 사후 20여년만에 출판되고 있다.

《로만 가제파》 주체89(2000)년 13호에는 《영생하는 사람들의 주연》의 한편인 장편소설 《미궁에로의 려행》이 실렸다.

소설은 비스프로레토프가 실지 체험한 사건들에 기초하여 쓴것이다.

그는 해외활동기간에 알게 된 자기의 안해에 대해서, 안해와의 순란치 않았던 부부생활에 대하여 작품에 담았다.

비스프로레토프의 소설들이 출판됨으로써 그는 아버지 아. 톨스토이와 함께 로씨야문학사에 부자작가로 남게 되었다.

악마

황도해(남조선)

똑똑

뭔가 저어하듯 조심스레 두드리는 문소리였다. 저녁 어스름이 추위에 꽁꽁 얼어 붙은 창문을 거무스레한 색깔로 물 들이고 있었다.

《예. 들어 오십시오.》

퇴근준비를 하느라고 흰 가운(수술복)을 벗어 주섬주섬 치료탁우에 정돈하던 정진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 섰다. 검은 털수건을 목에 두르고 역시 검은색의 외투를 단정하게 입은 나이 50대 중반가량의 여성이었다.

《저 허정진 선생님이 여기에 계신다기에 찾아왔습니다.》

정진은 문득 여인의 목 걸린 음성에서 슬픔 같은 것이 축축히 묻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보니 여인의 얼굴에는 까닭 모를 수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제가 허정진입니다. 헌데 누구신지요?》

《알고 있는 저의 남편이 선생님을 꼭 모셔 오라기에...》

《나를요?! 그러니 왕진을 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림종의 마지막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송합니다. 자상히 말씀 드리면 저의 남편은 이미 두달전에 폐암진단을 받았습시다. 30년전부터 폐염과 신경계통질환과 같은 병들로 해서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폐염이 악성으로 전환되어 더는 손 쓸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런데 폐암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은후 두달동안 남편은 일체 두문분출하고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낮에 드디어 쓰러지셨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모두 면회를 거절하고 오직 선생님만 찾는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떠나가는 이의 마지막소원을 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점점 울먹이더니 마지막에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정진은 서둘러 물 한고뿌를 따라 여인에게 내어밀었다.

《부인, 고정하십시오.》

여인은 고뿌를 받아 들었으나 일념 마실념을 못하고 그냥 흐느끼기만 했다.

정진은 몹시 난감했다. 그는 여인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부인의 남편이 절 어떻게 아신답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모셔 오라고만...》

《실례지만 남편의 성함을 어떻게 부르지요?》

《양무석이라고 합니다.》

정진은 가볍게 전를했다. 몹시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급기야 눈앞에 환각인양 떠오르는 한 사나이의 얼굴... 감때 사납게 생긴 그 얼굴이 30여년간이나 두툼하게 덮인 세월의 덩굴을 헤치고 정진을 무섭게 노려 보고 있었다.

정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언제든 한번은 만날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악마 같은 인간, 설혹 정진이 그를 찾으면 찾았지 그가 정진을 찾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혹시 내가 치료해 준 환자들중의 한사람인지도 모르지.)

정진은 이렇게 바꾸어 생각했다. 여태 치료사업을 하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환자들을 얼마나 수없이 보아 왔던가. 그들가운데는 정진이 기억하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필경 그들중의 한사람일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찾는걸까. 림종을 앓고 있는 병자가 찾는다는 소식은 정진에게 그리 반가울수가 없었다.

정진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왕진가방을 손에 들었다.

《갑시다. 부인, 앞서십시오.》

성애가 허영게 불린 창밖은 이미 어둑속에 묻혀있었다.

×

정은 의사생활 수십년동안 저승의 문턱에까지 다가가간 사람을 구원하려 수없이 많은 걸음을 걸었지만 지금처럼 저승으로 가는 사람을 바래우기 위해 걸음을 걸은것은 일생에 처음이었다.

그런만큼 시커먼 어둑과 피폐한 정적이 감도는 여인의 집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여인이 집문을 열고 그안에서 피골이 상접하여 눈만 쾅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부엌에 새여 나오는 방안불빛을 배경으로 찌그덕찌그덕 하는 낡은 율체어(바퀴

달린 의자)를 굴리며 마중 나올 땐 흡사 그 모습이 유령 같아 금시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오세요?》

월철퍼를 탄 젊은이가 너인에게 묻는 소리였다. 환자를 돌보느라 어지간히 지쳤는지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피로가 한껏 실려 있었다.

《인사해라. 허정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대꾸한 너인은 정진에게 젊은이를 소개했다.

《제 아들입니다.》

정진은 월철퍼에 앉은채로 머리를 굽적하는 젊은이와 너인을 놀라운 눈길로 번갈아 보았다.

남편의 불상사에 이어 아들마저도 불구의 몸이라는 기막힌 현실이 그의 가슴을 예리한 쇠불이처럼 아프게 찢어 왔던 것이었다.

너인은 정진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없이 아들의 월철퍼를 돌려 잡더니 방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들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 간 정진은 전등불도 없이 침대의 머리말에 초불 두개를 켜놓은채 잠자듯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로인의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을 보았다.

이미 세상을 살대로 산 나이인듯 주름살이 발고랑처럼 건너 간 이마위에 몇개의 허연 머리카락이 맥없이 드리워져 있었다. 광볼과 눈확은 박우물처럼 폭 패어 들어 가고 우뚝 치솟은 코날 밑에 두개의 꺼먼 코구멍이 쌍굴간처럼 유묘하게 보였다. 한마디로 백포를 덮어 씌우지 않아서 그렇기 아직 살아 있는 생명체라고는 전혀 믿기 어려운 화석 같은 모습이었다.

로인의 곁에 다가간 너인은 그의 귀전에 허리를 굽히고 조심조심 불렀다.

《여보, 허 선생님을 모셔 왔어요.》

순간 정진은 당대 열렬상 싶지 않던 로인의 우묵한 눈가풀이 슬며시 떠지는것을 보았다.

로인은 아직 몽롱한 의식속에 있는듯 초점 없는 눈길로 천정을 멍하니 올려다 보더니 잠시 후 누구를 찾는지 힘겹게 사위를 돌려 보았다.

정진은 자기도 모를 의무감에 떠밀려 그에게 바투 다가섰다.

《제 허정진입니다. 로인님의 이런 모습을 뵈게 되니 참 안됐습니다.》

로인은 가볍게 목례하는 정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뿌연 눈동자에 이상야릇한 광채가 비끼기 시작했다.

로인은 실주름 덮인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마침내 가래가 끓어 갈그랑거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허 선생, 참 오랜만이요. 찾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라니?! 정진은 삽시에 미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로인의 얼굴을 뜯어 보아야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진의 착잡한 심증을 읽은듯 로인은 입가에 넓은 미소를 띠었다.

《난 신문에서 선생을 알아 보았소. 언제인가 휴전선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하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신문에 기고한적이 있지요?》

정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덤덤했으나 그는 불길한 예감에 속이 얼음장처럼 서늘해 지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몇달전의 일이었다. 미국이 1960년대 말에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대호를 가진 극비작전을 벌려 휴전선 남측 비무장지대의 전역에 맹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를 수십만리터나 뿌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사회여론은 들끓었다. 더우기 인체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것으로 하여 일명 《지옥탄》, 《악마의 화학무기》라고 불리우는 고엽제를 남조선주둔 미군은 전혀 동원함이 없이 순수 남조선군 사령들만을 시켜 맨손으로 뿌리게 한 사실은 사람들을 극도로 경악케 했다.

신문과 메스컴(보도업체)들에서 미국의 고엽제 살포만행사실들이 련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는 가운데 60년대 말에 휴전선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정진은 어느 한 신문사의 청탁을 받고 고엽제를 뿌리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체험수기를 발표한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정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 보던 로인은 피로운듯 고개를 돌리며 웅얼웅얼 말했다.

《놀라지 마오. 선생이 그 글에서 쓴 30여년전 그때 그 무지스럽고 황포하던 <국군>소대장이 바로 나요.》

로인의 마지막말은 마침내 정진의 귀에 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무렇게나 쥐여 짜 내던진것 같은 초채한 모습의 이 로인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어 가고 있는 가련한 이 로인이 바로 것처럼 야성적인 혈기와 폭력으로 사병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옛 시절의 소대장이란 말인가.

너인에게서 양무석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올랐던 그때 사나운 얼굴이 다시금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 악마 같은 옛 소대장의 모습을 이 로인의 어느 구석에서 찾아 볼수 있는가.

기연가미연가 하던것이 마침내 현실로 확인되는 마당에서 정진은 피가 역류하는것 같았다.

정진은 로인의 해골 같은 얼굴을 뚫어 저라 쏘아 보았다.

로인의 머리말에 놓인 초불이 불안스레 떨고 있었다.

《지난 30년동안 난 원인 모를 병에 줄곧 시달려온 나머지 폐인이 되고 말았소. 지금 누구도 내가 아직 60전의 나이라면 믿지 않을거요. 고엽제사실이 뒤늦게 밝혀 지면서야 난 비로소 나의

병이 고엽제후유증이란걸 알게 되었지.

지금 난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나의 수많은 사병들을 죽음으로 내몬 죄악감으로 가슴이 터지는것 같소. 아, 내 어쩌다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요.

날 용서해 주오. 그때... 그때 정말 당신이 옳았소.》

로인은 헉헉 가쁘게 숨을 몰아 쉬기 시작했다.

정진은 부지중 손을 올려 이마우를 더듬었다. 거기에는 하나의 큰 흉터자국이 있었다. 정진이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흉터자국이였다.

...소대사병들을 실은 군용트럭이 미군병영마당에 몇어 서자 양무석중위는 전원 하차할것을 명령했다.

푹을 찌운 좁은 짐칸에 콩나물처럼 비좁게 들어앉아 있던 사병들은 한초라도 빨리 답답함에서 벗어 나려고 저마끔 짐칸밖을 두덕두덕 날아 내렸다.

정진도 그들속에 섞여 짐칸에서 뛰어 내렸다.

사병들이 마당에 정렬하자 어깨가 딱 바라지고 군모를 비스듬하게 눌러 쓴 양무석중위가 앞에 나섰다.

《오늘 우리 소대의 임무는 여기 미군경비구역안에 있는 잡초와 나무를 제거하는것이다. 원래는 미군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오늘부터 미군은 특별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우리가 대신하게 된다.

작업량은 많지만 그리 힘들지 않다. 저기 있는 살초액을 수림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무석중위는 마당 한구석에 세워 저 있는 몇개의 오렌지색통들을 가리켰다. 이때였다.

《헛,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좀 허리 펴고 휴식하는가 했더니 미국놈들때문에 또 꼬라지신세가 되어 뿌렸구먼.》

대렬 한복판에서 두덜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전라남도 구례출신으로 남보다 목소리가 굵절이나 크고 웅글어서 사병들이 《항아리》라고 놀려 대군 하는 최일병이였다. 자기옆의 사병에게 수군거린다는것이 그만 턱없이 큰 목소리때문에 곧바로 들려 나고 만것이였다.

《누구야? 짜식, <항아리>로구나. 너 이리 나 왔!》

양무석은 손가락끝을 곧추 펴서 최일병을 짚어 냈다.

최일병이 어정어정 대렬앞에 나서자 양무석은 다짜고짜 그의 귀뺨을 후려 갈겼다.

《임마, 미군은 우릴 위해 대양 건너 와서 고생하는데 넌 미군을 위해 요쫄한 수고도 아까우냐? 들어 갓.》

불을 찌킨 최일병이 제 자리로 들어 가자 양무

석은 땅에 꽃아 놓은 막대기들마냥 꽃꽂이 서 있는 사병들을 일별하며 말했다.

《살초액을 담을 용기는 양동이 세개뿐이다. 부족되는 용기는 각자 철갑모로 대용하도록. 이상.》 이때였다.

대렬 한귀퉁이에 서 있던 정진은 자기도 깜짝 놀랄만큼 큰 소리로 웨쳤다.

《일병 허정진. 소대장님께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정진의 웨침에 그만에야 사방으로 흩어 지려던 사병들은 제 자리에 멈칫했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던 양무석은 귀찮다는듯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뭐야? 간단히 말해.》

정진은 양무석앞으로 정보로 걸어 나갔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이 불을 품은것처럼 달아 오름을 느꼈다. 그는 자기의 돌출적인 행동이 가져올 후파에 대해서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지금의 유해로운 작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머칠전 소대의 사병 네명이 근무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미군이 실어다 준 오렌지색의 통들에 담겨 있던 노란 살초액을 소대 경비구역안에 뿌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중 한명의 사병이 그날밤부터 심한 구토를 하고 얼굴이 붓는 등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세명에게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것만 큼 소대사병들은 그다к 수상쩍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진은 필시 그들이 만졌던 노란 살초액때문 일것이라고 단정했다. 의학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징집된 정진은 유해물질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마다 유해물질에 의한 발병의 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는것이 다.

《소대장님, 제 생각엔 저 통액이 인체를 파괴하는 유해물질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방독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해물질?!》

정진의 말에 양무석은 입가에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렸다.

《이건 휴전선지역에서 해마다 진행하군 하는 국군의 제조작업을 험하게 하기 위해 미군이 들여온 순수한 살초제야. 사람에게겐 아무런 피해도 안끼친단 말이다.》

《그러나 농군들도 농약과 비료를 뿌릴 땐 최소한 방독장갑과 분무기를 사용하는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아무리 순수한 살초제라도 철갑모에 담아 맨손으로 뿌린다는건...》

《닥쳐!》

양무석은 정진의 말을 나뉘 채며 고함을 질렀다.

《대학물이나 좀 먹었다고 유식을 뿔내는건가? 상관이지키면 복종하는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만일 저것이 유해롭지 않다면 미군이 어째서 제가 할 일을 우리 <국군>에 떠넘기겠습니까. 정말 이래로 작업하다가는...》

정진은 자기 말을 채 끝 맺을수가 없었다.

격노한 양무석의 무죄주먹이 그의 면상에 날아와 박혔던것이다. 정진은 단번에 코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양무석은 쓰러진 정진을 마구잡이로 짓밟기 시작했다.

《이 새끼 보자보자하니까 미군까지 욕하며 선동을 해. 내 그렇지 않아도 네놈이 대학 다닐 때부터 반미시위에 앞장 서군 하던 결그러운 놈인 줄 알고 있었다. 소대 화장실벽에 써놓은 반미구호도 네놈의 작간이지?》

양무석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정진의 가슴이 배, 옆구리 할것없이 무지하게 강타했다. 그는 정진에게 얼마전 소대 화장실 락서사건으로 《보안사》요원에게 불러 가 개취급을 당했던 분풀이까지 함께 해대고 있는터였다.

한참 매질을 가한 양무석은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걸레처럼 늘어 진 정진의 목살을 잡아일으켜 세웠다.

《새까. 너부터 저기 가서 통을 하나 메와.》

허나 정진은 정신이 아뜩해 지는 속에서도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대로는... 그대로는 안됩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주둥아리질이야.》

양무석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그는 눈에 보이는대로 방금 운전수가 트럭에서 부리 놓은 공구들중 삽자루 한개를 들어 그대로 정진의 머리를 내려쳤다.

《악!》

정진은 다시금 쓰러졌다. 깨진 그의 한쪽 이마 위에서는 선지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의무실에서 정신을 차린 정진은 그만 사나이울음을 터뜨렸다. 쑤시는 상처의 고통보다도 양무석에 대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신을 견잡을수 없었다.

그날 밤 정진은 자동소총과 탄약을 휴대하고 부대를 탈출했다. 그가 누워 있던 의무실 침대에는 《악마를 잡으러 간다.》 쓴 쪽지편지 한장만이 놓여 있을뿐이었다.

그러나 정진의 극적인 탈출은 그가 다음 날 새벽 긴급출동한 무장 《헌병》들에 의해 양무석의 침실부근에서 체포되는것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칠후 그는 군사재판에서 《부대탈영죄》와 《상관암살 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정진은 간절한 눈빛을 머금고 자기를 바라보는 양무석의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증오와 동정의 이를 배반적심리가 마구 널뛰기를 하고 있었다.

정진은 지난 30여년간 양무석이란 인간을 잊어본적이 없었다. 이마위의 상처를 볼 때마다 억울하게 당하던 피의 구타장면을 떠올렸고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 결산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그토록 저주스럽던 양무석이 지나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옛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폐인으로 변하고 마침내 죽음의 문어구에서 정진에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으니 정녕 죄는 지은대로 가는것인가. 과연 이런 뎨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참후야 정진은 마지 못해 입을 열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정진은 자신의 이 말에 아무런 억양도 담기지 않게 하기 위해 모지름을 썼다.

(양무석씨. 나 한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 무엇 하겠는가. 지금 고엽제피해로 인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구천에 사무치고 있소. 거기에는 우리의 옛 사병들의 피 맺힌 목소리도 함께 섞여 있을거요. 난 당신을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소. 지금은 단지 죽음이라는 극단한 현실앞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리성을 이기고 있을뿐이요.)

이런 격렬한 절규가 그의 흉벽을 쿵쿵 두드리고 있었다.

양무석은 숨을 가쁘게 내쉬는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정진의 말뜻을 음미해 보는듯 했다. 그러더니 다시금 눈을 떴다.

《그때 난 당신들에게 그 어떤 적의를 품고 그랬던것은 아니요, 단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구세주>라는 군부의 교육과 명령에 충실하려 했을뿐이요. 그런데 그 맹목적인 복종이 결국은... 아!》

양무석은 피로운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온몸을 뒤틀었다. 호흡이 한결 더 급해 지고 가래 끓는 소리가 높아 지더니 급기야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정진은 의사의 직업적인 느낌으로 초불 같은 생명을 가까스로 불안고 있던 양무석의 의지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왕진가방을 열었다.

이때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양무석 팔을 뻗쳐 정진의 손목을 부여 잡았다. 동시에 발작적으로 깃던 그의 기침도 뚝 멎었다.

양무석은 애원이 가득 비낀 얼굴로 정진을 바라보았다. 피줄이 퍼렇게 일어 선 그의 관자노리가 푸들푸들 떨었다. 마침내 양무석은 안간힘을 써가며 한마디한마디 짜내듯 말했다.

《용서해 준다니 고맙소. 내 저승에 가서... 미

국놈들과 꼭... 결산을 하겠소.》

양무석의 목에서 가래 뚫는 소리가 푹 멎더니 정진의 손목을 부여잡았던 그의 팔이 맥없이 툭렁 침대맡에 드리웠다.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있던 청년이 양무석의 몸우에 상체를 덮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곁에 서 있던 양무석의 안해도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허나 양무석은 까딱 미동도 없었다. 이미 굳어져 버린 그의 두눈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출렁이는 방안 천정 어느 한곳인가를 끝없이 응시하고 있을뿐이었다.

정진은 천천히 손을 올려 양무석의 두눈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 잠시 묵도했다.

그는 자기가 비록 용서해 준다고 말했지만 양무석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 들이고 개운한 마음으로 저세상에 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밀물처럼 갈마드는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정진은 마음이 피로왔다.

동정은 가면서도 용서해 주기는 왜 그리 힘든 것일까. 한 맺힌 사람의 마음이란 이다지도 모진 것일까.

정진은 숨진 양무석의 얼굴을 백포로 가리우고 나서 끝없이 흐느끼고 있는 양무석의 안해를 부축하고 어두운 방안을 나섰다.

옆방으로 들어 선 정진은 녀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부인, 슬프시겠지만 지금은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 합니다. 남편을 편히 보내도록 장례를 잘 치르자면 이제부터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진의 말에 녀인은 마음을 다잡는듯 험험 눈물삼키는 소리를 내며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찍어냈다.

《저의 주인의... 마지막자리를 지켜 드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진은 허리 굽혀 절하는 녀인에게 손을 내저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데 저기 있는 맥의 아드님은 어찌다가 몸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정진은 녀인의 정상이 못내 가공하여 이렇게 물었다. 언약하고 늙은 녀인이 남편도 없이 장애인(불구자)인 자식을 데리고 험난한 세상풍파를 홀로 헤쳐야 하겠으니 그 어려움과 고달픔이 오죽하랴 싶었다.

정진의 물음에 녀인은 잠시 망설이는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려서부터 하반신에 신경마비가 왔습니다. 그때에는 무엇때문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남편이 앓고 있는 고엽체후유증에 의한 선천성마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드님도 고엽체에 의해서?!》

정진은 그만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고엽체후과가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후대들에게까지 전이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지금처럼 고엽체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된 가정을 그는 처음 보았던 것이었다.

그러니 양무석은 얼마나 철저한 인간적과멸을 가져 온것인가. 정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그의 눈앞에는 숨 지는 마지막순간에 최후의 기력을 모아 저승에 가서라도 미국놈들과 결산하겠다는 양무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국에 의해 자기의 삶과 미래를 통채로 통락 당하고 무참히 짓밟힌 한 인간의 뼈에 사무친 원한의 몸부림이었으며 처절한 복수의 맹세가 아니었던가.

추위에 얼어 붙고 눈가루가 간단없이 흩날리는 밤의 대지위에 암흑색의 하늘이 검은 장막인양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진은 어찌 보면 대지를 온통 칠푼암흑으로 뒤덮고 있는 그 검은 장막이 다름 아닌 남조선사회를 통채로 휘감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날개처럼 생각되었다.

그렇다. 미국은 자기의 피물 같은 거대한 날개로 온 남조선땅을 암흑사회로 전변시키고 그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리고 자주의식도 마비시켰다.

양무석의 파오는 미국에 대한 사대의식과 무지로부터 오는 맹목적추종과 아무였다.

그러나 보다 깊이 따져 보면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세부적말단구조까지 미국에 철저히 장악되고 오직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식민지 남조선사회체도가 창출해 낸 필연적결과가 아니겠는가.

미국이 남조선에 진주한 이후 반세기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식민주의정책에 속아 자신이 미국의 리익을 쟁기기 위한 도구로, 미국의 맛나는 먹이감으로 리용되고 있다는것을 모르고 살아 왔던가.

미국의 의사와 미국의 구미에 맞게 모든것이 개조된 남조선사회에서 본의든 본의 아니든 어쩔수없이 미국을 위해 일하게 되는것이 바로 식민지남조선국민들의 웃지 못할 비극적처지인것이다.

정진은 불끈 주먹을 움그려쥐었다.

《양무석씨,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악마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악마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는 부지중 솟구치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냈다. 한생토록 굴종과 오욕의 번민속에 살다가 너무도 비참하게 생을 마친 불쌍한 인간 양무석을 입해 정진이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

이들후 눈 덮인 서울거리에 하나의 큰 장례행렬이 나타나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 행렬은 종로구를 지나 곧바로 미국대사관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양무석의 장례행렬이었다.

행렬의 맨앞에는 《양키는 물러 가라!》라고 쓴 프랑카드가 펄럭이고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드린 양무석의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양무석의 안해가 그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그뒤를 정진이가 속해 있는 《반미구국회》조직성원들과 남조선주둔 《미군범죄고발운동》본부 회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양무석의 령구를 멘 정진은 옆사람들과 보폭을 맞추며 걸어 갔다.

비장감에 싸인 그의 마음은 지금 령구안에 고요히 누워 있는 양무석에게 이렇게 웅치고 있었다.

《양무석씨, 당신과 나와의 화해는 너무도 늦게야 이루어 졌습니다. 당신과 나는 보다 훨씬 이전에 이 투쟁대오에 함께 들어 섰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교훈을 반미자주화투쟁의 보다 큰 기폭제로 삼으며 우리는 일떠설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지난 날 미국에 속아 수난의 길을 걸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미국을 징벌하고 수난의 대가를 받아낼것입니다.》

마침내 양무석의 장례행렬이 도심에 거만하게 틀고 앉은 미국대사관 정문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장례행렬속에서는 불현듯 거세찬 반미합성이 터져 나왔다.

《양키는 물러 가라!》

《미국은 사죄하라!》

구호를 웅칠 때마다 돌덩이처럼 움켜 쥔 주먹들이 수풀처럼 하늘로 치솟곤 했다.

장례행렬을 지켜 보던 수많은 길손들이 박수를 치며 그에 합세했다.

《양키는 물러 가라!》

《미국은 물러 가라!》

미국대사관앞은 순식간에 격노한 군중의 시위 장소로 화하고 있었다.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큼니까

고남철

고운 옷 물고 강아지가 달아 뺄도 모릅니다
봄물에 손발이 빨갛게 익는것도 잊었습니다
장난 세찬 미운 일곱살내기들
흙물 텅진 능금불이 굶기만 합니다

저기 봄하늘에 이마를 번뜩이는 청춘언제를
꽃잎 같은 손안에 쥐고 흔들며
발전소마을 귀여운 아이들
 시내가에 언제를 쌓아 갑니다

젖이발이 빠져 입이 항 열린 수남인
아버지 안전모에 흙을 담아 나릅니다
보조개 감쪽한 분이의 쟁쟁한 호각소리에
 시내물도 찰랑찰랑 춤을 춥니다

군사놀이 편 갈라도 불과 물로 가르고
줄넘기해도 큰 물결 작은 물결 강을 넘는 아이들
이 애들을 위해 이 땅에 언제는 늘어 가고...

언제와 함께 아이들 고운 꿈은 자라고...

잠간새 시내물 척 타고 앉은 언제우에
큰 강 작은 강 다 새겨 진 지도를 펼치고
수풍, 강계, 남강, 태천... 짜랑짜랑
아버지들 세운 언제를 쏘아 가던 아이들
동해 서해 두 바다를 제것이라 우깁니다

장군님 받들어 아빠 형님 누나들
큰 강 작은 강 다 막아 언제를 세우면
자기들은 동해 서해
넓은 바다를 막는답니다

저기는 아버지들 세운 청춘언제
여기 시내가엔 아이들 세운 꼬마언제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큼니까

중국의 《모순문학상》과 주체 89(2000)년 모순상 당선작품

주체89(2000)년 11월 10일 중국의 절강성 동향시 오진에서 제5기 모순상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절강성 동향시 오진은 모순의 고향이다.

주체70(1981)년 모순은 인민화폐 25만웬을 헌납하면서 중국의 새 세대 작가들에게 문학상을 수여해 달라고 유언하였다. 그후 모순의 유언에 따라 모순문화상이 설립되었는데 이 상은 중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장편소설상으로 되었다.

제5기 모순상쟁탈전에는 주체84(1995)년부터 주체87(1998)년 사이에 창작된 우수장편소설 138편이 참가하였는데 그중에서 4편의 장편소설이 당선되었다.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1. 장편소설 《선택》 (장평작)

장편소설 《선택》은 권력의 람용이 부패의 근원으로 된다는것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어느 한 도시의 방직회사로동자들이 회사간부들의 부패문제를 놓고 소동을 피우자 시장인 리고성은 부패문제에 대한 비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 리고성은 이 부패사건에 자기의 오랜 상급과 하급, 지어 자기 안해까지 관여되었음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고성에게는 대중과 친척, 친우 량자중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심해야 할 판가리시각이 닥쳐온다. 그는 마침내 인민대중의 편에 서며 대중역시 그를 지지한다.

작품은 관직매매, 퇴물행위, 공급람용 등 사회적인 부패현상들을 조금도 주저없이 로출시키고 비판하였다. 소설은 결심을 선택해야 할 주인공의 심리적고통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주체89(2000)년 상반기에 이 소설은 《생사선택》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각색되어 대인기를 끌었다.

2. 장편소설 《장한가》 (왕안억작)

장편소설 《장한가》는 한 녀인의 40년간에 걸

친 애정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중학시절인 1940년대에 한 고위급인물의 사랑을 받으면서 상류계층의 녀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상해해방후 그 고위급인물이 화를 입게 되자 주인공은 보통녀인으로 된다.

그후 주인공의 일생은 표면상 시내물처럼 순탄하게 흘러 간다.

그러나 그의 내적감정은 격류처럼 거세차게 끓는다. 주인공은 몇명의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며 80년대에 와서는 자기 딸애의 동창생인 남학생과 기형적인 련장관계까지 가진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험악한 상해정신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작가 역시 주인공이 상해의 변천과정을 체현한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3. 장편소설 《가라앉은 먼지》 (아래작)

장편소설 《가라앉은 먼지》는 티베트 토호제도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명성 높은 티베트 강파족의 어느 한 토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족 부녀자와 관계를 가진다. 그후 한족녀인은 《바보》아들을 낳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애를 현실생활과 어울릴 줄 모르는 바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시대적인 감각이 있다. 그 애는 토호제도의 흥망을 목격하는 토호제도의 증견자로 된다.

소설은 굴곡이 있고 이채로운 줄거리, 민족성과 토색이 짙은 표현으로 신비한 토호들의 세계를 감명 깊게 그리고 있다.

4. 장편소설 《차상인 3부곡》 (왕육봉작)

장편소설 《차상인 3부곡》은 록차고장인 항주에서 3대에 걸쳐 차장사를 해온 어느 한 상인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이 가정의 운명선을 통해 중국 차상인들의 곡절 많은 이야기와 차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전소설 《상변군사》에 대하여

16~17세기의 이름난 문인인 어우당 류몽인(1558~1628)이 지은 패설집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상변군사》는 시골에서 상변 올라 온 한 늙은 군사가 장기대기를 하여 서울량반을 골탕 먹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임금의 친척인 서천령이라는 량반은 장기를 무척 좋아 하였으며 그만 하면 장기수도 높다고 할수 있었다. 이러한 그가 《그만하면 높은》 장기수를 가지고 하도 자랑을 해대니 웬간한 사람들은 그와 감히 겨룰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집에 시골에서 올라 온 늙은 군사가 찾아 왔다. 장기수가 하 높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왔는데 자기의 준마를 걸고 내기하자는 것이었다. 좀 여윌진 했어도 준마임을 틀림 없는것을 보고 서천령은 《장기국수》답게 패히 응해 나섰 다.

3판 2승으로 준마를 차지한 서천령에게 늙은 군사는 후날에 다시한번 겨루기를 약속하고 돌아 갔다.

서천령의 집에서 준마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튼튼해 졌다.

이러구러 몇달이 지난 어느 날, 그사이 상변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 가던 늙은 군사가 서천령의 집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준마의 주인의 자격으로, 당당한 《장기국수》의 위치에서 늙은 군사와 마주 앉은 서천령이었던만 3판 3패의 쓴 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인이 이 말을 무척 사랑하고 귀히 여기나 서울에 와서는 먹여 살리기가 몹시 어렵겠기에 잠시 여기에 맡기었댔소이다. 그사이 잘 먹여 주어 이렇게 훌륭한 말을 만들어 주어 대단히 고맙소이다.》

이것은 늙은 상변군사가 자기 말을 되찾아 가며 느릿한 어조로 서천령에게 한 말이였다.

이처럼 소설은 아주 짭작하면서도 간단한 구성 속에서도 많은 내용을 예술적으로 재치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신분적으로 천한 시골의 농부가 위세가 등등한 임금의 친척과 마주 앉아 장기대기로 량반을 골탕먹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천대 받고 억압 당하는 최하층백성들이 지닌 슬기와 지혜를 보여 주는 동시에 허영에 사로 잡혀 안일과 방종으로 세월을 일 삼는 봉건량반계급들의 무능과 허장성세의 리면을 해학적으로 폭로비판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봉건지배계급의 강요에 의해 늙은 몸이지만 상변을 올라 와야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말조차 변변히 기를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인간이 자기의 재주와 기지로 별치 않은 열은 장기수를 가지고 《국수》라고 뽐내는 경박한 량반인 임금의 친척을 가볍게 놀려 버리는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당대시기의 량반계급의 뒤생활을 짭작한 내용속에서 적라라하게 말가 벗기는것으로 해서 깊은 의미를 안겨 주고 있다.

주인공이 그처럼 비범한 장기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앞에 전혀 빛을 내지 못하고 시골에서 그냥 묻혀 있는것 역시 봉건사회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사상적측면에 있어서나 내용적측면에 있어서도 간파할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맛이 느껴 지는 작품이다.

이처럼 고전소설 《상변군사》는 아주 짧은 단편소설로서 담고 있는 내용의 심도나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나 아주 특색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